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李世震(1910~1949年)의
濟州佛教革新運動 研究



濟州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韓 錦 實

2006年 12月

李世震(1910~1949年)의
濟州佛教革新運動 研究

指導教授 金 東 栓

韓 錦 實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12月

韓錦實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_____印

委 員_____印

委 員_____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6年 12月

A Study on Lee Se-jin's
Reform Movement of Jeju Buddhism

Hahn Geum-sil

(Supervised by Professor KIM DONG-JU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06. 12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 Study on Lee Se-jin's Reform Movement of Jeju Buddhism

The thesis tries to reveal the forgotten facts of Jeju history Through the life of a buddhist monk, named Lee Se-jin, who lived from 1910 to 1949 by considering not only the modern historical stream of Jeju buddhism connected with Jeju people's lives but also the reform of Jeju buddhism intensely developed in the current of the times

Lee Se-jin was born in the year of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and died in 1949. As his short 40-year life shows how the modern Jeju Buddhism was distorted, it must be a good example for studying Jeju Buddhism to light up his life. Of his significant achievements, the meaningful thing to the history of Korean Buddhism as well as that of Jeju buddhism is that he tried to educate buddhist monks in Jeju Gangwon(an educational institution of buddhism) for the first time. In the Seogwaneum temple, he led the reform of Jeju Buddhism that started in cooperation with monks and the residents.

Lee Se-jin's revolutionary thoughts were influenced by the modern Seonnong Buddhism which was continuously observed in his life from childhood up until he became a buddhist priest. The Seonnong Buddhism was a practical buddhism which aimed at taking part in the living of the masses. It was also a reform of buddhism that intended to find solutions of things in collaborated lives of monks and the masses by inspiring them with ascetic exercises through labor under the impartial productive structure. Lee related The Seonnong Buddhism with a traditional Gangwon which succeeds to the

spirits of Korean Buddhism. That enabled him to found and operate a Gangwon, an educational institution, and a Gongjang, a productive system, within one temple together. This activity can be considered as quite unique type of the reform movement of buddhism that was unparalleled in the established buddhism world.

The Seogwaneum temple, the practical space of the reform, was burned down by the punitive force in January, 1949 during the Dopyeong Massacre. In July, the temple was closed right after one monk buried the image of Buddha under the ground at the news that Lee was shot dead. Unfortunately, Lee's reform was blocked by Jeju 4.3 Uprising and disappeared into history along with plenty of traces of Jeju Buddhism.

As stated above, this paper tries to describe Lee's movement frustrated by Jeju 4.3 Uprising. The study on the movement can be considered as a basic material clarifying the identify of the present Jeju Buddhism, the relationship of the movement with the history of Korean Buddhism, and the concrete tendency of the revolutionary period of Korean society.

목 차

Abstract

I. 머리말	1
1. 연구목적과 연구사 검토	1
2. 연구방법과 범위	4
II. 生涯와 思想的 背景	7
1. 생애	7
2. 사상적 배경	12
1) 禪農佛敎思想	13
2) 佛敎敎育 革新思想	20
III. 內藏禪院과 衆香講院에서의 敎育 활동	27
1. 내장선원에서의 활동	27
2. 중향강원에서의 활동	30
IV. 近代 濟州佛敎革新運動과 이세진의 활동	35
1. 近代 濟州新佛敎運動의 동향	38
2. 大覺寺 濟州講院에서의 濟州僧家敎育 활동	44
3. 제주불교혁신운동과 西觀音寺 창건	51
V. 제주 4·3사건과 이세진의 濟州佛敎革新運動의 좌절	57
1. 이세진의 武裝隊 활동	59
2. 제주불교계의 피해와 佛敎革新運動의 좌절	65
VI. 맺음말	72
참고문헌	77
[부록] 이세진의 생애사 연표(1910~1949년)	85

표 · 사진 목차

<표 1> 전조선강원학인명부(全朝鮮講院學人名簿)	32
<표 2> 제주불교연맹 임원(1939년)	45
<표 3> 이세진의 제주불교연맹 순회강연 내용(1939년)	47
<표 4> 제주4·3 시기 사찰별 피해현황	66
<사진 1> 대각사 제주강원 비구수계식	76



I. 머리말

1. 연구목적과 연구사 검토

제주도에 불교가 전래된 지 이미 천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 유구한 세월 속에서 고려시대 법화사, 수정사, 존자암 등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 비보사찰(裨補寺刹)로서 제주의 정치·경제·사회 등 제주의 문명사(文明史)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고려 충렬왕 때 제주에 들어온 혜일선사는 법화사, 묘련사, 보문사 등 제주의 사찰을 순례하며 제주에 꽃피운 불교문화를 노래하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 발견된 ‘순천송광사장고려관천순판불전(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에는 ‘원정이년병신세고려국제주묘련사봉(元貞二年丙申歲高麗國濟州妙蓮社奉)’이라 하여 제주 묘련사에서 당시 최고의 인쇄술이었던 불경 판각이 행해졌다는 새로운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는 고려시대 제주불교의 위상뿐만 아니라 중세 제주도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근거로서, 제주불교사의 연구가 곧 제주사의 연구와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더군다나 억불정책이 시행되던 조선시대의 경우, 제주불교는 고려 말에 유입된 라마불교의 영향으로 밀교적인 양상을 보이면서 오히려 조선 초기에는 타 지역에서 탄압받던 승려들이 대거 내도하는 진풍경까지 펼쳐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이후 조선 중기에 이르러서는 민간신앙과 혼재된 모습으로 제주도민의 생활사(生活史) 속에서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되며, 조선 후기에는 김정희, 김윤식 등의 유배인들을 통하여 다시금 새롭게 뿌리내리기 시작하였다.

제주불교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기반으로 근대에 들어와서는 1908년 관음사 창건을 이뤄내며 새로운 중흥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제주에는 관음사를 비롯해 90여 곳의 사찰이 창건되었고, 1924년 제주불교협회와 1939년 제주불교의 통일조직인 제주불교연맹 등이 구성되며 대대적인 포교활동이 전도에 걸쳐 펼쳐지게 되었다.

그러나 근대 초, 제주불교의 새로운 중흥기를 이끌어냈던 활동가들이 1909년 제주의병활동과 1918년 법정사항일운동 등에 참여하면서 일제의 통제로 인해 활동의 제약을 받음에 따라 점차 공식적인 활동의 장에서 이탈되어갔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불교계의 제주4·3사건 참여로 인해 근현대 제주불교사가 제대로 조명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역사의 그늘에 가려지게 되면서 현 제주불교와 단절되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생활사 속에서 기복성향의 제주불교를 찾아내는 일처럼, 근현대 제주불교사 역시 제주4·3사건으로 폐허화된 잿더미 속에서 근대시기 중흥을 이루었던 모습을 찾아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음을 말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 세기가 지나지 않은 1950년대 이전의 근현대 제주불교는 그 당시 활동했던 승려들이 생존해 있는데다가 문헌자료 역시 적지 않게 남아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영역이라 하겠다.

이처럼 제주불교사는 종교사적인 차원을 넘어 제주의 역사를 조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를 통해 밝혀진 제주불교사는 그 지나온 내력을 알 수 있는 대강의 모습조차 그려 보기 힘든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본 논문은 1910년부터 1949년까지 생존했던 이세진이라는 한 승려의 생애를 통해 제주 민중의 삶과 그 궤적을 같이하며 면면히 이어져온 근현대 제주불교의 역사적 흐름과 그 속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제주불교혁신운동을 고찰함으로써, 그동안 잊혀졌던 제주 역사의 일부분을 밝혀내려 시도되었다.

이세진이라는 인물은 1910년 일본의 식민지가 되던 해에 태어나 1949년에 생을 마감하면서 40년이란 짧은 그의 생애사를 통해 근대 제주불교가 어떠한 모습으로 굴절되어 갔는지 매우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어 근현대 제주불교를 고찰하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특히 그의 주요 업적 중 근대 제주불교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제주강원의 승가교육활동과, 서관음사에서 승려와 마을주민들이 합심하여 공동으로 추진했던 제주불교혁신운동 등은 제주불교사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지니는 활동이었다. 따라서 이세진의 제주불교혁신운동에 대한 연구는 현 제주불교의 정체성, 한국불교사와의 시대적 영향과 충돌, 한국사회 변동기에 불교계의 구체적 동향을 밝히는

기초 자료로써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진행된 제주불교사에 대한 연구 현황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주불교사의 전반적인 연구 성과는 고려시대 사찰 터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와 더불어, 제주불교 기원설과 관련하여 1985년 서귀포시에서 주최한 『지방문화재 濟州 法華寺 復元을 위한 학술세미나』에서의 연구 발표 및 1999년 김동전의 『濟州 法華寺의 創建과 그 變遷』 등의 논문 외에는 이렇다할 진척된 성과물이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제주불교사의 연구는 고려시대 이전을 제외하고는 현재 미개척 분야로 남겨져 있으며, 그 중에서도 본 논문에 해당하는 시기인 근현대 제주불교사는 문헌자료 및 유물·유적, 기타 구술자료 등 다양한 사료가 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별다른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근현대 제주불교사에 대해 처음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한 것은 2002년 제주불교사연구회에서 주관한 『근대제주불교를 읽는다』의 세미나였다. 여기서 김광식의 「근대제주불교의 전개와 성격」과 오성의 「근대제주불교의 태동과 관음사 창건」 등의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특기할 점은 근대제주불교사를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선후기 제주불교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함을 강조하였고, 그에 맞춰 일부 연구 성과를 공개하기도 하였다. 또한 김광식은 2002년 『근현대불교의 재조명』의 저서에 조선불교혁신 제주승려대회를 분석한 「해방직후 제주불교계의 동향」을 게재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최근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서 한국전쟁 전후 제주불교계의 피해사례를 조사하여 보고한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Ⅱ 제주도편』이 2004년에 출간되었으며, 2006년에는 한금순의 「1918년 범정사항일운동」의 석사논문이 발표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일련의 제주불교사의 연구와 함께 근현대 한국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물에도 적지 않은 비중을 두고 검토하였다. 여기에는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폭넓은 시각으로 근현대 한국불교를 연구한 정광호와 김광식, 그리고 근대불교를 친일과 항일의 시각으로 다룬 김순석, 임혜봉 등의 연구를 주요 검토대상으로 삼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근현대 제주불교에 관한 연구는 2002년을 기점으로 비로소 출발했다고 보아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세진에 대

한 기존의 선행연구가 전혀 없으며, 근현대 제주불교사 역시 출발단계에 선 연구상태임을 감안하여 본 논문의 흐름은 기존 연구의 반론이나 재검토보다는 근현대 시기의 제주불교의 활동상을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데 중점을 두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2. 연구 방법과 범위

본 논문은 이세진의 승적(僧籍) 기록으로서 1947년에 작성된 『교적부(教籍簿)』를 기본 토대로 하고, 근대시기의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에 수록된 문헌들을 참조하여 생애사를 정리하였다. 그중 신문자료는 1935년 8월에 창간되어 1944년 4월까지 발간되었던 『불교시보』와 1904년 『대한매일신보』로 출발하여 1910년 『매일신보』로 개칭한 후 일제강점기 동안 중단된 일 없이 지속적으로 발간되었던 한국어 일간신문인 『매일신보』, 그 밖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이 참조되었다. 그리고 잡지 및 간행물은 1924년 7월 15일에 창간되어 1944년 12월까지 발간되었던 『불교』와 1924년 5월에 창간된 조선불교단 기관지인 『조선불교』, 그리고 이회명의 『회명문집』, 『조선총독부관보』 등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이러한 자료와 함께 본격적으로 근현대 제주불교의 문헌을 집중 검토하였다. 여기에는 1945년 제주승려대회와 제주불교청년단결성대회의 회록이 적혀있는 『법계』, 그리고 1940~1950년 초까지 제주교무원에서 승려 교적과 명부, 사찰관계의 자료를 모아놓은 『교적부』, 『교도책임자명부』, 『연혁철』, 『사찰등록철』, 『총무국』 등이 중점적으로 활용되었으며, 그 외에 『회명문집』, 『망형석성도인행록』 등이 참조되었다.

또한 추가로 구술자료를 적극 활용하였는데, 이는 이세진의 제주에서의 활동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여기에는 이세진의 상좌인 원혜관, 장연중, 강순익의 증언이 중심이 되었으며, 그 외 불교계 노장 승려들의 증언과 저지리, 도평리 마을주민, 그리고 이세진의 속가 친족 등의 증언들을 차례로 참고하였다.

본문의 전개는 크게 이세진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1930년대까지의 타 지역에서의 교육활동과, 제주로 들어와 제주강원을 출범시키고 이후 제주불교혁신운동과 제주4·3사건에 참여하는 1940년대의 제주에서의 활동상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 서술 흐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II장에서는 이세진의 생애와 그 사상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생애는 1910년대의 유년시절 내장사 백학명의 인연을 시작으로, 1920년대 출가 초기의 생활, 1930년대 교육사상가로의 성장모습, 마지막으로 1940년대 제주에서 펼친 불교혁신 활동에 대해 시기별로 언급하였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세진의 생애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그의 사상적 특성과 그 형성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세진의 사상적 배경은 크게 선농불교사상과 불교교육 혁신사상으로 대표되는데, 특히 선농불교사상의 경우는 1942년 서관음사를 창건해 제주불교혁신운동을 불러일으키는 데 중요한 사상적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 또한 개운사 대원강원에서 수학하던 시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불교교육 혁신사상 역시 이세진이 실천적 교육사상가로서 성장하는 데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주고 있다.

III장에서는 이세진이 제주로 들어오기 전 타 지역에서 펼쳤던 교육활동에 대한 내용을 고찰하였다. 먼저 1930년대 대원강원을 졸업하고 곧바로 출가 사찰인 내장사로 돌아와 내장선원에서 펼친 교육활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내장선원은 참선 수행을 비롯해 교학을 수학하는 강원 교육과 노동, 음악 등을 병행하여 후학들을 가르치는 독특한 교육방법을 채택하고 있었다. 여기서 이세진은 약 3년간 강사로 활동하며, 이후 강원도 금강산에 위치한 표훈사 중향강원의 강사로 부임한다. 중향강원은 전통강원의 교과목과 함께 근대식 신교육을 담당하던 외과를 두고 있었는데, 내장선원과 함께 중향강원에서의 교육활동이 이후 제주에서 행해진 이세진의 교육혁신사상과 어떻게 연결되고, 표출되고 있는지 확인하게 해준다.

IV장에서는 근대 제주불교혁신운동과 이세진의 본격적인 제주에서의 활동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세진의 활동 시기에 대한 기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장에서는 먼저, 근대 초부터 해방직후까지 제주불교사에 관한 개괄적인 흐름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192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독특한 형태로 제주 각 지역에 불고 있던 신불교운동의 동향에 대해 덧붙여 살펴보았는데, 이 신불교운

동은 이세진의 제주불교혁신운동이 제주에 정착하는 데 밑바탕이 되어준 운동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주변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이세진의 활동을 고찰하였는데 먼저 1939년 대각사 제주강원에서의 제주승가교육 활동을 살펴 보았다. 이 활동은 근대 제주불교에서 처음으로 행해진 체계적인 전통강원의 교육활동으로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와 제주불교계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큰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1942년 이세진이 제주불교혁신운동을 펼쳤던 서관음사에서 그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서관음사에서 이세진은 지속적인 교육활동과 함께 기와공장을 설립하여 경제적 자립을 통해 외부 세력에 좌우되지 않는 자주적인 제주의 전통강원을 설립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활동의 주체를 출가 승려만이 아닌 마을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승속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불교혁신사상을 일반 대중의 삶 속에 뿌리내리고자 하였다.

V 장에서는 이러한 제주불교혁신운동이 제주4·3사건을 겪으며 어떻게 좌절되어갔는지에 대한 이세진 생애의 후반부 모습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940년대 중반 이후 제주불교계의 동향과 현실참여의 모습 등을 고찰하며 이를 통해 영향을 받게 되는 이세진의 무장대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결과로서 근대 제주불교계를 이끌던 대다수 승려들의 입적, 사찰의 전소 및 파육 등의 지역별 사찰 피해현황 등, 기존 불교계의 제 기반을 허물어버린 제주불교계의 전반적인 피해실태에 대해 최종적으로 서술하였다.

II. 生涯와 思想的 背景

1. 生애

이세진(李世震)은 1910년 8월 25일 제주도 한경면 저지리에서 농부였던 아버지 이찬백(李贊伯)과 불심이 깊었던 어머니 김운하(金雲何) 사이에서 태어났다.¹⁾ 이세진은 5세 무렵 주로 외가가 있던 제주시 산천단에서 생활을 했는데, 당시 그곳에는 이세진의 외할아버지 김달권과 외삼촌 김형근이 산천단 부근에서 법당한 채를 마련하여 승려생활을 하고 있었다.²⁾ 또한 이세진의 모친인 김운하 역시 결혼 전부터 불교에 심취해 있었는데, 그녀는 이세진의 출가 배경이 된 내장사 승려 백학명(白鶴鳴)과 법제자(法弟子)의 인연을 맺고 있었다.

이러한 집안 내력의 영향으로 이세진은 1915년 6세 때 백학명이 있는 내장사로 보내지게 되었다. 이후 약 5년간 내장사에서의 유년시절을 보내고,³⁾ 1920년경 제주에서 일반 사회교육인 보통교육을 받기 위하여 제주로 돌아온다. 그리고 1924년 제주공립보통학교(濟州公立普通學校)를 졸업하고 다시 저지리 한문사숙(漢文私塾)에서 1926년 12월까지 사서(四書)를 배웠다. 이세진은 제주에서 이 두

1) 觀音寺敎務所, 『教籍簿』(1947, 한국불교대학교 제주중무원 소장).

제주불교사연구회 편, 『근대제주불교사자료집』(제주불교사연구회, 2002), 203~204쪽.

이세진의 생애는 그의 승적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교적부』를 기초로 하였다. 『교적부』는 해방 후 탄생된 제주교무원에서 제주승려들의 이력사항을 모아놓은 장부이다. 이세진을 비롯 총 40명의 기록이 담겨있는데, 현재 9명의 자료가 분실되어 31명의 기록이 남아있다. 이 기록을 토대로 그 외 구술자료를 참고하였는데, 그의 상좌인 원혜관·장연종·강순익과 이성월·일조·김평수·혜종 등의 불교계의 증언, 그리고 양경월·고계생, 도평리와 저지리 마을의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구술을 채록하였다.

2) 고계생 구술(81세, 엽광아파트, 1998. 8, 필자 채록).

근대제주불교의 중흥은 1908년 안봉려관에 의해 관음사가 창건되면서 시작되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안봉려관이 화주로서 대대적인 포교활동을 펼친 업적은 매우 고무적이거나, 안봉려관의 활동 이전 시기를 無佛시대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안봉려관이 관음사를 창건할 때 도움을 주었던 이들이 김석운, 박만하 등이었는데, 김석운은 1894년 위봉사에서 이미 출가를 하였고 박만하는 그의 은사였다. 또한 1918년 법정사항일운동의 주역인 강창규 역시 1892년 출가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오성, 「제7장 종교 / 제2절 불교」 『제주도지』제6권 : 문화·예술, 제주도편찬위원회, 2006, 987~993쪽).

3) 이 기간 중에 이세진은 승복을 입은 동자승의 모습으로 백학명과 함께 관음사를 왕래하기도 하였다. (앞의 고계생 구술채록, 1998. 8).

교육과정을 거친 후, 그의 나이 18세가 되던 1927년 11월 25일에 백학명이 주지로 있던 내장사에서 출가한다.

이세진의 은사는 백학명의 만상좌인 한고벽(韓古碧)이다. 한고벽은 1930년대 중반 내장사 주지를 역임했으며,⁴⁾ 주로 선방과 토굴에서 수행했던 선승이었다. 또한 이세진의 사미계사(沙彌戒師)는 김봉수인데, 그는 훗날 제주에서 함께 활동을 했던 이일선과 중앙학림(中央學林)에서 동문수학했던 인물이다.⁵⁾

이세진은 비구계를 1930년 백양사에서 받게 된다. 계사(戒師)는 유금해로, 그는 대흥사와 내장사의 전계화상(傳戒和尚)이었으며 백양사와 불갑사 선원의 종주(宗主)를 역임한 전남지역의 대표적 선승이었다.⁶⁾

출가 이후 이세진의 주변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대부분 한국불교의 전통 맥을 이어간 선불교(禪佛敎)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내장사의 경우는 백학명이 1924년 주지로 오면서 내장선원(內藏禪院)을 개원해 선농불교운동의 근거지로 정착시키고 있었다. 이세진은 출가 후 곧바로 내장선원에 들어가 선농불교사상의 영향을 받으며 생활하게 된다.

이후 유년시절부터 이세진과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던 백학명이 1929년 63세의 나이로 입적하게 되자, 이세진은 다음해인 1930년 7월 내장사 사집과(四集科)를 졸업한 후 내장사 생활을 정리하고 경성의 불교전문강원인 대원강원(大圓講院)에 입학한다. 대원강원은 일제에 의한 신교육, 신지식인의 흐름에 맞서 전통강원교육을 통하여 인재를 배출해내던 불교교육기관이었다. 여기서 이세진은 1934년까지 대교과(大敎科) 및 수의과(隨意科)를 모두 이수하고 같은 해 6월부터는 교육활동가로서 현장에 나서게 된다.

이세진이 처음으로 교육활동을 펼친 곳은 출가 사찰인 내장사이다. 이세진은

4) 『佛紀二千九百六十二年 乙亥 三月 十五日 立石 徒弟秩 一奎 戒輪 鳳華 慧淳 道悟 馬江 默堂 孫世震 世鎬 世煥 世旭 師兄 鷲峰 師弟 鉉圭…中略…禪雲寺秩 錦湖 浩溟 映明 鶴洙 尙鉉 長熙 一鮮…中略…崔寶藏雲 時住持韓古碧 事務殷道』(『鶴鳴碑陰記』, 내장사 비석, 1935).

1935년에 세워진 이 비석에는 손상좌로 세진이 기록되어 있으며, 同 문중의 선운사 계열로 이후 제주불교에서 함께 활동하게 될 일선도 확인되고 있다.

5) 『불교유학생 유학회』 『동아일보』(1921. 8. 9).

중앙학림은 1915년 개교하여 1928년에는 불교전수학교로, 1930년에는 중앙불교전문학교로 간판을 바꾸었다. 그리고 1940년에 해화전문학교로 다시 바뀌어 이어오다가 1944년 일제에 의해 강제 폐쇄되었다. 그리고 해방 직후 복교되어 1946년 현 동국대학교로 교명을 바꾸었다.

6) 불학연구소, 『강원총람』(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1997), 653쪽.

이곳 내장선원에서 참선과 학문, 노동, 음악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하여 후학들을 양성하며 1934년부터 1937년까지 약 3년의 기간동안 교육활동에 매진하게 된다. 또한 내장사 총무직(總務職)을 역임했으며, 이 기간 중 백양사에서 대선법계(大禪法階)와 중덕법계(中德法階)를 품수(稟受)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1937년 3월에는 표훈사 중향강원(衆香講院)의 강주(講主)로 부임하여 강원도 금강산에서 두 번째 교육활동을 시작한다.⁷⁾ 중향강원은 사미(沙彌), 사집(四集), 사교과(四教科)로 구성되어 있고, 학인의 수는 17명이었다. 또한 이 중향강원에는 강주 이세진과 함께 외과강사(外科講師) 한경원이 불전(佛典) 외의 근대 신학문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것은 전통강원의 개혁운동 즉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현실인식을 한국불교의 전통적인 교육기관을 통해 이뤄내고자 했던 불교교육 혁신운동의 한 모습이다.

이세진의 중향강원에서의 활동은 약 2년이었으며, 이 시기에 이세진은 제주로 귀향할 것을 결심하게 된다. 이세진이 제주에서의 활동을 결심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정황을 설정할 수 있겠지만, 백양사포교사였던 이일선의 내도(來島), 제주불교연맹의 추진 계획, 그리고 1930년 중·후반대의 한국불교 자주화운동과 불교청년운동의 침체 등을 그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세진은 백양사계의 이일선, 송만암의 요구⁸⁾와 제주불교의 통일기구 창설, 그에 따른 제주승가교육의 가능성 등을 바라보고 1930년대 후반 침체된 불교청년운동의 현실 속에서 새로운 활동의 근거지로 제주를 선택한 것이다.

제주로 귀향할 것을 결심한 이세진은 1939년 2월 백양사 한림포교당 포교사로 부임 받고 입도(入島)한 직후 활동을 시작한다.⁹⁾ 그리고 두 달 뒤인 1939년 4월에 제주불교연맹(濟州佛教聯盟)이 발족되면서¹⁰⁾ 이곳에서 교육부장을 맡게 된다.

7) 봉선사 흥법강우회, 「전조선강원학인명부」 『흥법우』제1호(1938. 3).

8)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일제시대 불교정책과 현황 : 조선총독부관보 불교관련자료집』상(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2001), 944, 948쪽. 송만암은 1938년 10월 백양사 한림포교당을 인수한 후 1939년 1월 포교담당자로 이세진을 발령하였다.

9) 「인사소식」 『불교시보』제45호(1939. 4. 1).

혜종의 구술내용(78세, 충훈각, 1999. 10) : 백양사 한림포교당의 당시 사찰명은 월계사였다. 부임 때의 분위기를 증언을 통해 잠시 살펴보면 “월계사를 창건해서 백양사 포교당이었는데 주지스님을 보내달라고 하니 백양사에서 이세진스님을 보낸 거라. 육지서 큰스님 온다고 해서 보살님들이 월계사에 다녀오고 그랬어. 부처나 다름없는 스님이 육지서 왔다고 불교이력을 다 마치고 분이라고.” 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10) 「제주불교연맹 결성」 『불교시보』제47호(1939. 6. 1).

제주불교 통일기구의 역할을 담당했던 불교연맹에서의 이 직위는 근대제주 승가 교육의 출발을 알리는 것이었다. 이세진은 제주도내 각 사찰의 청년승려들을 모집하여 관음사포교당인 대각사(大覺寺)¹¹⁾에서 근대의 첫 강원교육을 실시하였다. 제주강원에서 배출된 학인의 수는 대략 5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렇게 의욕적으로 출발한 이세진의 제주에서의 첫 교육활동은 1941년 대각사에서 치러진 비구수계식(比丘受戒式)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그것은 1940년대 식민지 말기의 정세변화와 제주불교의 통일기구로써 많은 기대를 걸었던 제주불교연맹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중단하고 유명무실(有名無實)하게 된 현실적 여건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이세진에게 있어 새로운 불교운동의 틀을 모색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42년 이세진은 기존의 공식 활동을 모두 정리하고 도평리 산간마을에 서관음사(西觀音寺)를 창건하여 그곳에서 기존 승가체제의 혁신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도평리 서관음사로 자리를 옮긴 이세진은 이곳에 법당(法堂)과 객실(客室), 그리고 기와공장을 세웠다. 이 기와공장은 이세진과 청년승려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함께 승속(僧俗)의 공동체(共同體)를 형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이세진이 직접 시장에 나가 판로(販路)를 개척하기도 하였다.¹²⁾ 이세진은 이 서관음사에서 전통 강원교육과 선농불교사상을 접목시키는 그의 오랜 꿈을 실현시켜 나갔다. 즉 한 사찰의 도량 안에서 승가교육기관인 강원과 생산체제의 틀을 갖춘 공장을 함께 설립하여 새로운 형태의 제주불교혁신운동을 펼쳐나가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이윤을 창출하여 그것으로써 승가의 경제를 독립시키고 나아가 전문적인 전통강원 설립을 추진하려 하였다.

그러나 1945년 해방이 되고 미군정이 등장하면서 제주사회는 격변의 현장으로 돌변한다. 이 격변의 시대에 이세진을 비롯한 제주불교계 인사들의 사회참여 활동이 눈에 띄게 늘어났으며, 불교혁신운동의 중심지인 서관음사 역시 시국을 논의하는 장소로 활용되면서 점차 4·3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흘러들게 되었다.

11) 대각사는 1923년에 창건된 관음사 읍내포교당의 사찰명이며, 현재는 관음사 중앙포교당으로 불리고 있다. 당시 대각사 건물은 현재 남아있지 않다.

12) 한국불교근현대사연구회, 『22인의 증인을 통해 본 근현대불교사』(선우도량, 2002), 197쪽.

그리고 당시 불교혁신운동의 중심에 서있던 이세진은 1948년 봄 입산하여 무장대 활동에 참여한다. 이세진의 활동 모습은 1948년 겨울부터 1949년 1월경까지 이덕구가 속해있던 제주 도당사령부 내에서 목격되기도 하였다.¹³⁾

이 시기 이세진의 무장대 활동 기간은 약 1년 정도이다. 제주 도당사령부가 관음사 전투에서 대패하면서 1949년 3월, 무기를 땅속에 묻고 후일을 기약하며 하산하게 되는데, 이세진은 이때 토벌대의 포로로 잡힌다. 그리고 제주시 산지부대에 있는 주정공장의 수용소에 감금되어 고문을 받다가 풀려난 후 관음사포교당에서 은신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얼마 뒤인 1949년 7월 9일 아침, 식사를 하던 도중 사복경찰에 의해 잡혀간 후 결국 총살되면서 파란만장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된다.¹⁴⁾

서관음사는 1949년 1월 도평리 집단학살사건 때 토벌대에 의해 전소되었으며, 뒤이어 7월 이세진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한 승려가 서관음사에 모셨던 불상을 도평리 인근 땅속에 묻고 홀연히 떠났다고 한다.¹⁵⁾ 이로써 이세진의 제주불교혁신운동은 1940년대 역사의 장벽 앞에 부딪혀 근현대 제주불교의 슬한 흔적들과 함께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13) 김광순 구술(70세, 하도리 명법사, 2003. 7, 필자 채록).

14) 이세진의 죽음에 대해서는 총살과 수장의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실제 그의 이복동생인 고계생의 증언(80세, 제주시 연동, 1998. 8, 필자 구술채록)에 따르면 이세진이 수장을 당하였다는 주변의 얘기를 전해 듣고 사라봉과 같은 제주시 해안오름의 동굴들을 찾아다녔다고 한다. 그러나 이세진을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제주승려들의 경우는 그가 수장이 아닌 군경에 붙잡혀 총살당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고계생 역시 처음에는 수장으로만 알고 있었으나, 나중에 들려온 소식에는 이세진이 수명의 사람들과 함께 공개 처형되었고, 누군가가 거적을 씌워주었다는 목격담을 전해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세진의 죽음을 군경에 의한 총살로 결론을 내렸다.

15) 앞의 김광순(2003. 7, 구술채록).

홍순녀(75세) 외 도평리 현지주민(도평동 흥룡사, 2003. 10, 구술채록).

이 구술은 서관음사 인근에 살고 있는 마을주민들에게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매장 경위나 위치 등은 전해지고 있지 않으며 다만 서관음사 일대로만 추정하고 있다. 불상을 땅에 묻은 의식은 불교에서는 '회향'이라고 하여 폐불할 때 행한다.

2. 사상적 배경

이세진은 제주 4·3 사건으로 희생될 때까지 40여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근현대 제주불교계에 승가 경제체제의 자주적인 독립과 제주 강원교육을 현실화시켜 낸 실천적인 교육사상가로서 매우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이세진의 사상의 핵심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현실인식과 그로 인해 펼쳐지는 다양한 생활환경에 기초하여 현재의 틀 속에서 미래의 해법을 찾는 것이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라는 자유롭지 못한 식민체제 하에서 한국불교의 사상을 전수할 강원교육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외부세력의 후원이 아닌 승가자체의 생산 활동을 통한 경제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의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러한 이세진 사상의 배경에는 우선 출가 초기 내장선원에서 습득한 선농불교사상, 그리고 청년기에 박한영의 대원강원을 졸업한 후 표훈사 중향강원의 강주 활동을 통하여 싹을 틔운 불교혁신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¹⁶⁾ 제주에서 보다 구체화되는 그의 교육사상은 대각사 제주강원의 교육 실시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마침내 제주 도평리의 서관음사에서 보여준 그의 제주불교혁신운동에서 최종 완성된다.

더욱이 이세진은 백학명에게서 전수받은 선농불교사상을 1940년대 제주의 여건에 새롭게 접목시켜 강원교육과 공장활동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제주불교혁신운동을 이뤄냈고, 승속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승가만이 아닌 일반 민중들의 삶에 까지 혁신사상의 뿌리를 뻗어나갔다. 이러한 이세진의 활동상은 근대라는 시대적 여건에 발을 딛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교육을 통해 미래적 대안을 강구하고자 한 그의 교육사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이세진의 사상적 배경과 그 성격을 살펴봄으로써 그의 사상의 결

16) 이세진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인물들은 모두 백양사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선 이세진에게 선농불교사상의 영향을 주는 백학명과 불교교육 혁신사상을 전수해준 박한영은 설유 강백에게서 구족계와 법을 이어받았으며 백과궁선의 법맥을 이은 매우 절친한 관계이다. 여기서 백학명이 입적한 후 이세진이 박한영의 대원강원으로 입문하게 되는 자연스런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 두 인물이 이세진의 청년기에 교육사상을 뿌리내리게 한 중요한 스승들이었다고 한다면, 역시 백양사와 연결되어 있는 송만암과 이일선의 경우는 이세진이 제주로 귀향하게 되는 주요 요인인 제주불교연맹의 창설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었다.

실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 대각사와 서관음사의 활동에 대한 이해의 출발로 삼고자 한다.

1) 禪農佛敎思想

일제강점기 하에서 한국불교가 자주권을 외치며 항쟁했던 여러 운동의 저변에는 고려 지눌과 보우 선사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선사상이 그 뿌리에 자리 잡고 있다. 근대불교의 중흥조로 불리는 경허 선사는 정혜결사운동을 이끌며 대대적인 선풍을 일으켰고 사찰 내의 선원을 복원하고 침체된 수행풍토를 일으켜 세우며 근대한국불교의 맥을 이어나갔다.¹⁷⁾

일제의 불교 통제정책인 사찰령(寺刹令)과 우후죽순처럼 성장해가는 일본불교에 대항해서 한국불교 전통사상으로 자리 잡은 선사상은 이후 자주적인 승가개혁을 끊임없이 실천한 선농불교운동으로 표면화된다.

이세진이 출가하던 1920년대 내장사와 백양사를 중심으로 한 전라도 일대 사찰들 역시 이러한 선사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의 큰 산맥을 형성하고 있었다.

당시 내장사의 본사였던 백양사의 경우는 일제의 정책과는 별개로, 본말사제도(本末寺制度) 이전 산중공의제(山中公議制)의 기본정신에 입각한 고유의 전통성을 유지하며 내장사 및 부근 사찰들과 밀접한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었다.

이세진의 경우에도 내장사에서 출가하여 사집과를 마치지만 백양사와 관련된 행적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우선 백양사에서 근대불교의 대표적 선승이었던 유금해(柳錦海)에게서 비구계를 받는데, 유금해는 대흥사와 내장사의 전계화상이었으며 백양사와 불갑사 선원의 종주를 역임한 인물이었다.¹⁸⁾ 또한 당시 백양사는 1920년대에 전국에서 엄정한 승풍(僧風)을 유지하고 있던 사찰 중 한 곳으로¹⁹⁾ 인정받고 있었는데, 이세진은 이 백양사에서 1934년에 대선법계와 1936년에 중덕법계를 품수(稟受) 받는다.

1920년대 말 이러한 전라도 부근 사찰의 고유한 선풍과, 일제의 식민정책 하에

17)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조계종사 : 근현대편』(대한불교조계종, 2001), 29~34쪽.

김경집, 「한국 근대불교 속의 실천불교」 『실천불교의 이념과 역사』(행원, 2002), 389~393쪽.

18) 불학연구소, 『강원총람』, 1997, 653쪽.

19) 『南遊求道禮讚』 『불교』제63호(1929, 9).

정광호, 『한국불교최근백년사편년』(인하대학교출판부, 1999), 21~26쪽.

서도 한국전통불교의 맥을 잇고자 노력했던 유금해와 백학명 등의 선승들이 정신적 스승으로서 위(威儀)와 체계를 갖추고 있던 시기에 이세진은 출가한 것이다.

또한 이세진의 출가 사찰인 내장사의 경우는 백학명이 입적하던 날까지 그곳의 내장선원에서 좌선(坐禪)과 학문, 노동 등의 수행법을 통해 근대선농불교운동을 펼쳤던 곳이다. 더구나 백학명은 이세진의 유년시절부터 출가와 이후 행적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었다.

여기서 잠시 이세진의 선농불교사상의 형성에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백학명이라는 인물에 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백학명은 일제하 불교계의 대표적인 선지식으로서, 중국과 일본 불교계까지 조선의 선지를 널리 휘날렸던 승려이다. 그는 백용성과 함께 근대 선농불교운동을 주창하여, 쇠락한 내장사를 중창하고 내장선원을 세워 식민지 시대의 토양 위에 불교혁신의 싹을 틔웠다.²⁰⁾ 1922년 3월 30일 선학원(禪學院)에서 개최된 선우공제회(禪友共濟會)의 창립총회에 참여한 백학명은 그 취지문에서, “선승들의 생활이 매우 궁벽하여 일의일발(一衣一鉢)의 운수생활을 지키기도 어려움은 실로 오늘의 현상이라. (중략) 따라서 자립의 활로를 개척하여 선계(禪界)를 부흥하고 중생제도 하여 자립자애(自立自愛)할 지어다.”라고 하여 일찍이 선농불교운동의 필요성을 표명하였다.²¹⁾

그러나 일제 강점기하에서 한국불교의 자각운동(自覺運動)으로 출범한 선학원의 공식 활동은 오래가지 못했다. 선학원은 1924년 활동을 중단하게 되고 이후 1926년에 범어사 포교소로 전환되었다.

이렇듯 중앙 차원에서의 활동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자 백학명은 쇠락하여 이미 사세가 기울어있던 내장사로 들어가 선농불교운동의 깃발을 쫓는다. 그 때가 1923년 봄의 일로 1929년 5월 6일 그가 입적할 때까지 끊임없이 선농사상을 실천하였다. 백학명은 내장사에서 극락보전을 중건하고 경내에 흩어져 있던 부도

20) 연관, 「학명계종 대종사 행장」, 『학명집』(성보문화재연구소, 2006), 105~116쪽.

김광식, 「백학명의 선농불교」, 『학명집』(성보문화재연구소, 2006), 138~157쪽.

불교전기문화연구소, 『현대고승인물평전』상(불교영상, 1994), 44~81쪽.

21) “禪侶到處에 窮迫이 相隨하야 一衣一鉢의 雲水生涯를 支持키 難함은 실로 금일의 현상이라. (중략) 따라서 自立의 活路를 개척하야 禪界를 勃興할 大道를 闡明하야 衆生을 苦海에서 救하고 迷倫을 彼岸에 度할지니 만천하의 禪侶는 自立自愛할지어다.”(김광식, 『한국근대불교사연구』 민족사, 1996, p106~107 재인용).

를 새롭게 부도전(浮屠殿)에 안치하고 도량을 정비하였다. 그리고 내장사 산내의 황무지를 개간하여 80두락(斗落)에 이르는 전답(田畝)을 일궈냈다.²²⁾ 그리고 이 농지를 인근 마을주민들과 함께 경작하여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했다. 모범적인 사찰운영과 함께, 선농불교운동을 통하여 민중의 삶 속에 뿌리내린 그의 사상의 결실인 것이다.²³⁾

또한 백학명은 내장선원을 통해 후학들에게 노동과 학문, 참선, 문학과 음악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방법을 보여주었고, 그밖에도 쉬운 글과 말로 불법의 정수를 알리고자 노력하여 직접 시가(詩歌)를 만들어 부르기도 하였다. 내장사에서 백학명이 펼치고자 했던 뜻은 식민지 시대의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고 한국불교의 정신적 맥을 잇는 것이었다. 백학명의 이런 뜻이 선불교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상이자 운동인 선농불교와 접목된 것이다.

백학명의 이후 행적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그는 1925년 망월사에서 만일선회결사(萬日禪會結社) 때 조실로 추대되었다. 그리고 1927년에는 조선불교총무원의 주최로 서울 수송동 각황교당을 중앙선원으로 변경 운영하게 되었는데 여기서도 조실방장으로 추대 취임하게 된다. 이때 함께 선원을 이끌었던 승려는 백용성, 백초월, 이춘성, 이화담 등이었다.

다음해인 1928년에는 백학명이 심한 병마에 시달리게 된다. 그리고 반년 뒤인 1929년 3월 27일에 63세, 법랍(法臘) 43세의 나이로 입적(入寂)하게 된다. 이때 백학명의 병상에서 시중을 들며 입적할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던 이가 유년시절 백학명의 슬하에서 자랐던 손상좌(孫上佐) 이세진이었다. 백학명은 입적 전날 이세진, 세묵 등과 함께 시가를 부르며 달마도 6장을 그렸는데, 그림 한 권에 ‘옷자락을 걷어 올려 더위를 피하다. 소나무는 짙고 산봉우리는 높다.(纜裾遁暑 松濃峰鏞)’ 라는 글을 남겨놓았다.²⁴⁾

박한영이 1935년 백학명의 입적을 애도하며 지은 『내장산학명선사사리탑명병서(內藏山鶴鳴禪師舍利塔銘並序)』에는 “학명선사가 자신의 몸을 계율로써 단속하여 말이 적고 욕심이 적었으며, 대중들에게 약속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참선을 하

22) 이정, 『한국불교인명사전』(불교시대사, 1993), 25쪽.
교육원 불학연구소, 『선원총람』(대한불교조계종, 2000), 947쪽.

23) 김광식, 「백학명의 선농불교」 『학명집』, 2006, 153쪽.

24) 연관, 「학명계종 대중사 행장」 『학명집』, 2006, 113~114쪽.

여야 한다는 안(案)을 주장하면서, 호미를 잡으며 조사의 화두를 들었고, 골짜기를 경작하면서 물소(水牯 : 화두의 하나)를 길들였으니 선사의 늘그막이 가풍이 소박하고 진지함이 이와 같았다.”²⁵⁾라고 기록되어 있다.

백학명의 이러한 행적과 내장사에 불고 있던 선농불교운동은 출가수행자로서 갖 입문한 이세진에게 깊은 영향을 끼쳐, 일제강점기의 한국불교가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의 눈을 뜨게 된다.

그렇다면 이세진의 사상에 큰 영향을 끼쳤고, 훗날 그의 사상의 근간이 되었던 선농불교사상이 이 시기에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 선농불교의 탄생 배경과 근대시기 선농불교운동이 갖는 의미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래 출가수행자는 삼의일발(三衣一鉢)이라는 기본 소유물 외에는 소유하지 않았으며, 1일1식(一日一食)으로 정해진 식생활도 병자를 제외하고는 걸식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인도불교의 전통에 일대 변혁을 가하며 새롭게 불교 경제관을 수립한 것이 중국불교 선종(禪宗)이다.²⁶⁾

불교는 중국에 들어온 이후, 한대(漢代)를 거쳐 남북조시대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성장과 토착화가 이루어졌고 왕실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남에 따라 막강해진 영향력에 따른 여러 폐해들이 생겨나게 되고 정치적 희생물로 권력에 이용되는 등의 수난을 당하면서 당대(唐代) 말기부터는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특히 안록산과 사사명의 난(安祿山과 史思明的 亂 : 755~763)을 고비로 하여 당 사회뿐만 아니라 불교 역시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그리고 중국불교 역사상 가장 규모가 컸던 당무종의 회창과 불(會昌破佛 : 842~845) 사건은 이러한 불교의 쇠퇴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그런데 당대 말에서 송대(宋代) 초로 이어지는 이러한 불교의 수난 속에서 가

25) “禪師嚴身以律 寡言少欲 約于衆而 倡卽農卽禪之案 把鋤頭而鍛祖師 耕谷口而馴水牯 暮年家風 樸真如是” (『內藏山鶴鳴禪師舍利塔銘並序』 내장사 비석, 1935).

26) 인도 전래(傳來)의 계율 및 전통과, 실제 중국불교와의 차이는 이미 남북조(南北朝)시대 후기인 6세기경부터 크게 인식되면서 대승보살(大乘菩薩)의 계율을 찾는 운동으로 변화하여 표면화되었다. 특히 그중에서도 국가권력의 보호나 특정한 상류층 신도들의 경제적 원조에서 벗어나 있던 초기 선종의 수행자들은 자급자족(自給自足)을 위한 경작 등의 생활형태를 갖춰나가며 점차 그 승가체제의 틀을 변화시켜 나갔다. (柳田聖山著·안영길, 추만호譯, 『禪의 思想과 歷史』 民族社, 1989, 216쪽).

까스로 살아남은 것이 선종이었다. 그것은 선종이 외부의 세력에 의지하지 않고 교단 스스로 자체 경작과 자급자족(自給自足)의 생활형태를 지향하였고 독립적으로 민중의 삶 속에서 그 맥을 이어나갔기 때문이었다.²⁷⁾

이러한 선종의 독립을 가능케 하고 그 기틀을 완성시킨 이가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유명한 일화를 남긴 백장 회해(百丈 懷海 : 749~814) 선사이다. 회해는 선농불교의 출발을 알리는 ‘백장청규(百丈淸規)’²⁸⁾를 제정하여 수행승들의 집단적인 수도생활의 규범과 선종 교단의 조직적 체계화의 운영 등을 꾀해 자체생산을 통한 기반과 함께 선종의 독립을 이루어냈다.²⁹⁾

백장청규를 통해 선종이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비단 시대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백장청규의 보다 근원적인 의미는 선종이 표방했던 일상 생활에서 불법(佛法)의 이치를 깨닫는 평상심(平常心)의 도(道), 즉 조사선(祖師禪)의 정신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다시 말해 시대마다 처한 삶의 방식이 각기 모양은 다르지만 그 본질은 하나, 즉 부처와 중생이 하나이듯 노동과 세간(世間)의 일상사(日常事) 역시 출가수행자의 수행법으로써 원만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 선종이 우리나라에 유입된 시기는 통일신라 말기이다. 중국 선종의 시대적 배경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통일신라의 왕권이 쇠약해지고 지방 곳곳에서는 연이어 반란이 일어났으며, 동시에 후백제의 출현을 예고하는 새로운 토호(土豪)들이

27) K.S 케네쓰 첸著 · 박해당譯, 『중국불교』하(민족사, 1994), 383~398쪽.

정성본, 『선의 역사와 사상』(불교시대사, 1994), 391~393쪽.

키무라 키요타카著 · 장휘옥譯, 『중국불교사상사』(민족사, 1989), 158~160쪽.

앞의 柳田聖山著, 『禪의 思想과 歷史』, 224~225쪽.

28) 불교전기문화연구소, 『인물중국선종사』상(불교춘추사, 1994), 292쪽.

정성본, 『中國禪宗의 成立史 研究』(民族社, 1991), 782~785쪽.

‘백장청규’는 현존하지 않으나, 대신 ‘백장청규’의 요지라고 하는 ‘선문규식’을 통하여 ‘백장청규’의 대강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정성본의 책에서는 ‘선문규식’을 11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는데, 1. 『禪門規式』이라는 제목 2. 律師로부터 禪院의 독립과 淸規의 제정 3. 道の 안목을 갖춘 사람을 장로라고 칭하고 方丈에 거주하게 함 4. 佛殿을 설치하지 않고 法堂만을 둠 5. 僧堂을 설치하여 대중과 함께 거주토록 함 6. 장로의 上堂說法 7. 齋粥(밥과 죽)의 法食 8. 普請(공동 작업)의 법 9. 衆僧의 직무, 十務를 설치 10. 규범을 범하고 僧堂생활을 어기는 자에 대한 벌칙 11. 백장청규에 의한 선문(禪門)의 독립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29) 노동에 관한 규정은 위의 11가지 항목 중 十務法와 普請法이 해당된다. 여기서 십무는 선원의 생활을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해 열 가지 직책을 골고루 분할하여 선원을 공동운영하는 규정이다. 이 십무의 직책 분할은 수행 생활에 있어서 수행자 전원이 균등한 업무 부담에 의해 교단을 운영한 것이었다. 이러한 선원의 직무분담과 교단운영은 실제 다음의 보청법이라는 공동 노동 정신을 토대로 한 편성이었다. 즉 보청법은 선원의 주지인 장로를 비롯하여 전 대중이 함께 평등하게 생산노동에 참여하는 의무 규정이었다.

탄생하던 시기에 선종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또한 선을 처음 전한 도의국사(道義國師)의 경우 마조(馬祖) 문하(門下)의 지장(智藏)에게서 법을 이어받았지만, 그와 함께 지장과 쌍벽을 이루던 회해에게서도 법의 요체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회해는 도의에게 "강서의 선맥(禪脈)이 모두 동국승(東國僧)에게 있구나."라고 감탄했다는 일화가 전해져온다.³⁰⁾

이처럼 우리나라에 처음 선종이 유입될 당시부터 백장청규의 선농사상(禪農思想)은 이미 내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사상이 본격적으로 불교계에 그 모습을 드러내며 승가 내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펼치게 된 때는 조선시대에 이르러서이다.

조선중기 이후 비대해진 지배계급의 사찰(寺刹)에 대한 수탈은 불교계 전반에 강도 높은 경제적 침탈로 그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른바 산내입장(山內入葬), 지역강과(紙役強課), 무명토식(無名討食), 일용품 토색(討索), 기타 승려 군(軍) 징발³¹⁾, 관아건축(官衙建築) 동원 등 사원경제(寺院經濟)를 뿌리 채 뽑는 이중삼중의 고역(苦役)이 관(官)에 의해 무분별하게 자행되었다.³²⁾

이렇게 조선후기에 오면서 온갖 고충을 감내해야 했던 승가(僧家)는 자체적인 대응책을 펴면서 새롭게 자립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게 되었다. 그것은 사찰경제의 자립운동(自立運動)에서 시작되는데, 토지 개간(開墾) 외에도 미투리 생산 등의 수공업과 목축업, 채소·과일 생산, 산나물 채취,³³⁾ 그리고 계(契)의 조직, 보사청(補寺廳)의 설치 등 여러 경제활동을 통하여 사원재산을 조성하는 형태로

30) 불교신문사, 『한국불교인물사상사』(민족사, 1990), 98쪽.

31) 제주도에서도 조선시기 승려가 군역을 했던 사례가 보인다. 김상헌의 『남사록』에는 ‘머리깎고 승려가 된 자도 관가에서는 승속을 불문하고 모두 병역을 치르도록 한다. 그래서 대오 가운데는 머리 깎은 자가 많다.(祝髮爲僧者官家不問僧俗並責本役故隊伍之中鬚髡首頗多)’고 기록되어 있다.

32) 정의행, 『한국불교통사』(한마당, 1991), 357~358쪽.

김갑주, 「조선시대 사원경제의 추이」 『한국불교사의 재조명』(불교시대사, 1994), 324~333쪽.

정광호, 『근대한일불교관계사연구』(인하대학교출판부, 1994), 15쪽.

정광호는 위 책에서 이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즉 산내입장은 풍수를 믿고 사찰 경내에다 함부로 조상들의 枯骨을 묻어 놓는 일, 지역강과는 각 관청 또는 土豪들이 쓰는 대·소 紙物들을 강제로 사원에다 부과하는 일, 무명토식은 사찰경내에 양반 이하 士女들이 들어와서 놀 때에 명분없이 酒食을 토색 갈취하는 일, 일용품 토색은 짚신을 필두로 누룩이니 밀가루니 하는 일용품잡물들을 절에서 強徵해 가는 일, 그리고 기타 잡역으로 승려들을 擔輿軍으로 징발하는 것과 각종 ‘행차’때의 접대라든가, 관아 修築 등의 役事に 승려를 동원하는 일 등으로 서술하고 있다.

33) 앞의 정의행, 『한국불교통사』, 1991, 358쪽.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계의 경우에는 갑계(甲契)를 비롯하여 그 종류가 20여 종이나 되었으며, 대사찰에는 동시에 10여 종의 사원계(寺院契)가 조직되어 있기도 하였다.³⁴⁾

이렇게 선농불교운동은 조선중기 이후 사찰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제반 활동의 사상적 근거가 되어 한국불교계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후 일제강점기 하에서는 일제의 통제와 그로 인해 변질되어 가는 한국불교의 난제(難題)를 해결하기 위한 대항의 논리이자 구체적 방법론으로써 정착되었다.

1910년 일제 강점 이후 불교계를 비롯한 모든 종교계는 일본의 정책에 의해 극심한 제약을 받았다. 특히 일본이 불교에 대한 통제책으로 내세운 것은 1911년 반포된 사찰령(寺刹令)과 그 시행규칙(施行規則)이다. 사찰령은 사찰을 병합(併合), 이전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하였고, 전국의 사찰을 30개 본사(本寺)와 말사(末寺)로 재편하는 규정을 담고 있었다. 또한 본말사(本末寺)의 경우에 본사 주지는 총독, 말사 주지는 도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과 함께 각 본사는 사법(寺法)을 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등의 규정이 명시되었다.

그 결과 법통(法統)의 전승(傳承)이 중시되어야 할 본말사의 관계가 행정적인 조직체로 전락하였고, 사찰의 주지는 총독부(總督府)의 지배를 받는 관리와 다를 바 없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또한 이들 30본사의 주지들이 각 사찰을 나누어 통치함으로써 불교계 전체의 단합된 활동이나 상호간의 협력을 억제하고 사찰운영의 모든 권한을 본사 주지에게 집중시켰다.

이와 같은 본말사 제도는 1920년에 화엄사가 본사로 추가되어 31본산(三十一本山) 체제로서 확립되었고,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불교정책은 한국불교의 행정체계를 총독부에 종속시키고 승려의 세속화를 부추겨 한국불교의 전통을 크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조선시대의 경우 억불정책과 사원경제의 피폐로 인해 사찰의 존립을 위한 경제활동이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일제강점기 하에서 사찰의 경제활동은 선농불교운동을 통해 경제적 타개와 더불어 일제의 정책에 대항하는 한국 전통의 사상으

34) 김갑주, 『한국불교사의 재조명』, 1994, 331쪽.

한상길, 『朝鮮後期 寺刹契 研究』(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0), 86~116쪽.

로서 재탄생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근대 선농불교운동을 이끈 대표적 인물이 앞서 언급한 백학명과 백용성이다. 백학명은 내장선원에 선농불교의 청규를 내걸어 그가 입적하던 날까지 한국불교의 진면목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백용성은 1927년 64세 때 경남 함양의 백운산에 화과원(華果院)을 설립하고 선농불교를 실천하였으며, 그해 대각교(大覺敎)를 선언하고 만주 용정에 대각교당인 선농당(禪農堂)을 개설하였다. 그는 승려자신이 노농(勞農)을 하여 자립하고 노농을 통한 선의 실천을 강조하였으며 이후 입적할 때까지 10여 년간 선농불교를 실천하였다.³⁵⁾

이렇듯 선농불교가 일어난 배경에는, 법난(法難)의 시대에 관권과 지배층 세력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불법을 구하고 수행자 본연의 모습을 견지하면서 교단을 이끌어어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자립이 무엇보다 큰 걸림돌이자 동시에 해결을 위한 돌파구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근대 선농불교 운동가들은 검소한 생활과 대중의 평등한 생산 활동이라는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굶주림과 배척으로 떨어져나가던 승려들이 다시 모여 동참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다.³⁶⁾ 그리고 모든 사부대중(四部大衆)이 평등한 노동을 통하여 생산의 가치를 인식함으로써 그 바탕 위에 진정한 수행정신을 고취시켰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이세진이 영향을 받게 되는 이러한 선농불교사상의 정수는 다음으로 이어지는 대원강원에서의 수학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기에 이른다.

2) 佛敎敎育 革新思想

이세진은 1930년 7월 16일 내장사에서 사집과(四集科)를 졸업하고 곧바로 경성 개운사에 위치한 대원강원에 입문한다. 이세진이 1920년대에 내장선원에서 선농불교사상을 체득했다고 한다면, 대원강원은 1930년대 이세진이 교육활동가로서 자립하게 되는 직접적인 배경이 된다. 특히 대원강원이 내포하고 있는 일제 강점기하의 전통 강원교육의 성격은 그 의미하는 바가 남다르다. 그것은 친일세력을 앞세워 신학문 교육을 실시하여 식민지화 정책을 강화시켜 나갔던 일제의 교육

35) 김광식, 『근현대불교의 재조명』(민족사, 2000), 71~110쪽.

36) 강석주·박경훈, 『불교근세백년』(중앙신서, 1980), 136~137쪽.

정책에 맞서, 한국 전통의 불교교육과 근대식 교육을 병행 추진하는 자체의 교육 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인재들을 양성해 내고자 했던 불교계의 흐름과 일맥상통한다. 즉 대원강원은 바로 이러한 불교교육 혁신운동의 중심에 있던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서, 1930년 중반 이후 대원강원을 졸업한 이세진이 교육사상가로서 독자적인 행보를 하기까지 중요한 사상적 배경이 된다.

대원강원은 박한영이 이끈 불교전문강원(佛敎專門講院)으로 1926년 10월 개운사의 산내암자(山內庵子)인 대원암(大圓庵)에 개설된다.³⁷⁾ 대원강원이 설립되는 이 시기는 이른바 신교육, 신지식인의 조류가 일제에 의해 전국적으로 파급되던 때였다.

1920년대로 넘어오면서 일제는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식민지 한국인들의 사상적 순화를 위해 친일본적 성향을 갖고 있는 조선 인사를 앞세워 강연, 강습 및 교육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또한 이러한 의도아래 일본 시찰단 파견과 조선인 포교사 양성을 위한 일본유학생을 파견하여 친일지식인의 양성을 꾀하게 된다.³⁸⁾

대원강원은 이러한 흐름에 맞서 한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불교교육기관으로써 설립되었다. 여기서 이에 대한 이해를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다음해에 진행되는 조선불교학인대회(朝鮮佛敎學人大會)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학문(新學問) 중심의 교육제도를 비판하고 구학문(舊學問)으로 상징되는 강원(講院)을 복구해야 한다는 불교계의 움직임 속에 1927년 10월 개운사에서 위의 주장을 배경으로 한 학인대회의 발기준비회(發起準備會)가 개최된다.³⁹⁾ 그런데 당시 발기회 모집위원 중 절반이 대원강원(大圓講院)의 1회 졸업생이었다. 학인대회는 1928년 3월에 개최되는데, 이미 출발시점부터 대원강원의 영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학인대회에서 주장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였을까. 그 당시 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7) 불학연구소, 『강원총람』, 1997, 517쪽.

38) 김순석 「조선불교단 연구(1920-1930)」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제9집(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5), 142~144쪽.
정광호, 「일본불교계와 식민통치」 『근대한일불교관계사연구』, 1994, 179쪽.

39) 김광식, 「조선불교학인대회 연구」 『한국근대불교의 현실인식』(민족사, 1998), 50~86쪽.

1. 우리는 불타적(佛陀的) 구제의 중심자로 홍임(弘任)과 건행(健行)을 가지자.
2. 우리는 시대에 적응한 교화방법을 만들자.
3. 우리는 불교 조선의 건립에 필요한 모든 자량(資糧)을 통일적으로 준비하자.
4. 우리는 불타의 자리아타(自利利他)의 불지(佛旨)를 체인(體認)키 위하여
완선(完善)한 불교교육제도의 일치, 확립을 기하자.⁴⁰⁾

이처럼 시대에 합리적인 교화방법과 불교교육제도의 확립 등을 목표로 세운 것이 1928년 조선불교학인대회(朝鮮佛敎學人大會)의 성격이었다. 이것은 당시 대회에서 결의된 교육과목 선정에서도 확인된다. 예를 들어 불조삼경(佛祖三經), 기신론(起信論), 화엄경(華嚴經), 불교사(佛敎史) 등과 같은 불교과목과 함께 조선지리(朝鮮地理), 동·식물학, 물리화학, 경제학 등 ‘시대에 적응한 교화방법’으로 신학문의 교과목을 선정하고 있다. 새로운 불교교육이 끌어안아야 될 근대화의 과제를 전통강원의 범주 안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것은 자칫 ‘전통 교수’라는 또 다른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전통강원의 문제점을 미리 차단하고 새로운 시대의 교육을 열어가자는 대원강원의 강사 박한영(朴漢永)의 뜻과도 일치한다.

박한영의 교육사상은 기존의 전통강원을 지켜내자는 것이 아니었다. 박한영은 이미 1910년대부터 명진학교(明進學校)의 후신인 불교고등강숙(佛敎高等講塾) 교장에 취임 등 적극적으로 근대식 교육을 추진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1920년대에 들어와서는 점차 일제의 의도에 의해 승가내의 변질과 근대제일주의(近代第一主義)에 따른 전통강원(傳統講院)의 소외가 문제시 되게 된다. 박한영은 이에 대한 극복방안으로 전통강원을 일으켜 세움과 동시에 강원의 교육내용을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교과목을 병행 추진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이다.

백학명에 이어 이세진의 두 번째 스승이자 근대 불교교육 혁신운동의 선구자인 박한영은 이세진이 독자적인 교육사상가로서 성장하는데 실질적인 발판이 되었던 인물이다. 박한영은 장금봉, 진진응과 함께 근대불교사의 3대 강백(講伯)으로 꼽힌다.⁴¹⁾ 당대의 석학 최남선은 생전에 박한영의 한시를 모아 출간한 『석전시초(石顛詩抄)』서문에서 “스님은 고사(故事)에 깊은 조예며 통철한 식견으로 내경(內徑)과 외전(外典)을 두루 꿰뚫어보신 분”이라 기록하며 함께 한라산 백록담

40) 삼보학회, 『교육편년』, 『한국근세불교백년사』 2권, 94~95쪽 재인용.

41) 불학연구소, 『강원총람』, 1997, 722쪽.

에 올라 물을 마시며 노는 말뚝을 구경하였다고 회고하였다.⁴²⁾

대원강원에서 이세진이 습득한 사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박한영이 펼쳤던 불교교육 혁신사상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그의 간단한 행적을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박한영이 근대시기에 불교혁신운동을 주창하기 시작한 것은 1908년 한용운, 금과 등과 함께 했던 불교개혁운동(佛敎改革運動)이었다. 여기서 그의 불교개혁론의 요지를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 진정한 계정혜(戒定慧)를 닦아 바르게 고칠 것. 둘째, 개인의 이익과 덕망만 좇지 말고 타인의 이익과 공동의 덕망을 함양 육성할 것. 셋째, 고루한 사문(沙門)적인 훈화에만 힘쓰지 말고 학교를 세워 지식을 보급시켜 영재양성에 힘쓸 것. 넷째, 이름뿐인 포교를 지양하고 성심으로 포교하며 법력(法力)을 널리 펼칠 것. 다섯째, 산업을 일으켜 일신(一身)과 가람(伽藍)의 유지책을 강구할 것. 여섯째, 백성들에 대한 자선사업(병원, 고아원, 교육, 빈민구제)을 실천할 것 등이었다.⁴³⁾

이러한 개혁론을 주창하며 박한영은 경술국치 이후 점차 노골화되는 일제의 불교통치와 그 속에서 파생되는 굴절된 승가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교육을 통한 본격적인 불교혁신운동을 전개해나간다. 그 첫 행보로서 1910년에 일어났던 임제종 운동(臨濟宗 運動)을 들 수 있는데, 이 운동은 원종(圓宗)대표인 이회광이 한국불교를 일본 조동종(曹洞宗)에 연합시키기 위한 연합맹약(聯合盟約) 7조약을 체결하고 이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촉발되었다.⁴⁴⁾ 즉 임제종 운동은 이회광의 매종(賣宗)행위에 대한 근절과 이들의 세력에 대응하는 임제종 및 그 기관인 종무원(宗務院)을 출범시킴으로써 일제의 흡수 통합정책에 정면으로 맞선 한국불교의 수호운동이었다. 이 운동의 선두에 선 인물이 박한영과 한용운 등이다. 또한 박한영은 1919년 3·1운동 이후 국내에 조직되었던 한성임시정부(漢城臨時政府)에서 13도의 대표 중 한 사람으로 참여하였으며,⁴⁵⁾ 1920년 초에는 사찰령 철폐를

42) 박한영, 『映湖大宗師語錄』(동국출판사, 1988), 23~25쪽. 박한영은 1924년경 제주도를 순례하고 기행시를 남기기도 하였다.

43) 이재창, 「일제하 불교 혁신운동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80), 57~58쪽.

44) 김광식, 「1910년대 불교계의 曹洞宗 盟約과 臨濟宗 運動」 『한국근대불교사연구』(민족사, 1996), 53~94쪽.

45) 정광호, 「일본침략시기 불교계의 민족의식」 『근대한일불교관계사연구』, 1994, 127쪽.

주장하던 조선불교유신회(朝鮮佛敎維新會)의 대표이기도 했다. 박한영이 보여준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그가 어떤 사상을 견지하며 후학들을 지도해 왔는지 알 수 있게 한다.⁴⁶⁾

박한영은 이후 1926년에는 개운사에서 불교전문강원을 맡아 후학들을 양성했으며, 1929년에는 같은 개운사 대원암에 불교연구원(佛敎研究院)이 설립되자 강주를 역임하였다. 또한 그해 1월에는 조선불교선교양종승려대회(朝鮮佛敎禪敎兩宗僧廬大會)에서 7인의 교정(敎正) 가운데 한 사람으로 추대되기도 하였다.⁴⁷⁾

그 외에도 1932년 11월 중앙불교전문학교(中央佛敎專門學校 : 동국대학교의 전신) 교장으로 선임되는 등 지속적인 교육활동을 해오다가 중일전쟁 발발 이후 점차 노골화되는 일제의 황민화정책에 반대하여 1938년 11월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장직을 사임하게 되었다.

이후 1945년 해방을 맞이하자 박한영은 다시 조선불교중앙총무원(朝鮮佛敎中央總務院)의 초대 교정(敎正)에 취임하여 한국불교의 새로운 중단을 이끌게 되었다. 그리고 말년에는 백학명이 선농불교운동을 펼치던 내장사로 내려와 1948년 4월 8일 79세 법랍(法臘) 61세의 나이로 입적하였다.

이세진은 이러한 스승 박한영으로부터 교육혁신사상을 전수받으며 대원강원에서 4년 남짓한 기간을 머물게 된다. 대원강원은 앞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개운사 산내 암자인 대원암에 박한영을 강사로 모시고 1926년 10월 불교전문강원으로 출범하였다. 여기에 송월송 및 홍상근, 홍월초 등의 재원회사(財源喜捨)에 힘입어 불교계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⁴⁸⁾

이후 대원강원은 1929년 4월 다시 중앙연구원(中央研究院)을 개설하여 내전(內典) 연구기관을 설치하였다. 여기서 중앙연구원은 중앙학림 위에 불교 내전을 전공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원 과정에 해당하는 최고 불교연구과정의 고등강원(高等講院)을 말하는 것이다.⁴⁹⁾

46) 불교신문사, 『한국불교인물사상사』(민족사, 1990), 429~441쪽.
김광식, 『한국근대불교사연구』, 1996, 211~212쪽.

47) 「조선불교선교양종승려대회회록」, 『불교』 56호(1929. 2). 여기서 선출된 교정은 박한영, 김환웅, 서해담, 방한암, 김경운, 이용희, 김동선이다.

48) 불학연구소, 『강원총람』, 1997, 517쪽.
「개운에 개강」 『불교』 제28호(1926. 10).
「홍월초화상의 자선」 『불교』 제68호(1930. 2).

이러한 대원강원에 발을 들여놓은 이세진은 1931년 12월 사교과(四教科)를 졸업하고, 1934년 4월에 대교과(大教科) 및 수의과(隨意科)를 졸업한다.⁵⁰⁾ 당시 한용운이 발행했던 대표적 불교계 잡지 『불교』에는 다음과 같은 이세진의 행적을 찾아볼 수 있다.

「경성 개운사(開運寺) 불교전문강원(佛敎專門講院) 대원회(大圓會) 망년강연회 개최」
2959년 12월 31일 개운사 강원에서는 망년에 관한 강연이 있었던 바 순서는 아래와 같다.

-개회

-개회사 신상빈(申尙賓)

-연제 및 연사

경종(景鐘), 이세진(李世震), 라병일(羅炳日), 李丙翊(이병익), 최혜봉(崔慧峰), 양경수(楊景洙), 이태수(李泰洙), 박선화(朴善化), 김일봉(金一鳳), 이승희(李昇熙), 신상빈(申尙賓)⁵¹⁾

이 기사는 1932년 12월 31일에 개운사 불교전문강원 대원회에서 ‘망년(忘年)에 대한 감상’이라는 제목으로 11명의 학인들이 강연을 가진 내용이다. 대원회(大圓會)는 1929년에 개운사 대원강원 학인들이 만든 학우회로서 이세진이 1932년에 대원강원에 재학 중이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⁵²⁾

대원강원에서 수학했던 교과목은 대교과에 삼현부(三賢部), 현담부(玄談部), 사교과에 능엄부(楞嚴部), 원각부(圓覺部), 반야부(般若部), 기신부(起信部), 그리고 사집과에 도서(都序), 서장(書狀), 선문염송과(禪門拈頌科) 등이 있었다. 또한 1929년에는 중앙고등보통학교(中央高等普通學校) 교사를 초빙하여 1주일간 조선어 강좌를 열기도 했다.⁵³⁾

어느 시대에나 기득권층은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통한 체제

49) 송선개, 「석전 박한영의 불교 교육개혁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70~71쪽.

김광식, 「1930년대 강원제도 개선문제」 『근현대불교의 재조명』(민족사, 2000), 290~313쪽.

50) 제주불교사연구회 편, 『근대제주불교사자료집』, 2002, 203쪽.

51) 「경성개운사 불교전문강원 대원회 망년강연회 개최」 『불교』제105호(1933. 3).

52) 불학연구소, 「개운사 대원강원」 『강원총람』, 1997, 517~521쪽.

53) 「개운사 강원에서 조선어 강좌」 『불교』제68호(1930. 2).

의 정당성을 획득하려 한다. 또한 그러한 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방안 역시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1920~30년대 일제가 주력했던 정책이 신교육을 통한 식민화 정책이었다면, 이러한 흐름을 바로 잡기 위한 불교계의 움직임은 한국불교의 전통사상과 시대흐름을 반영한 근대화 교육의 접목, 즉 불교교육 혁신운동에 있었다. 그 운동의 중심에 있던 대원강원에서 교육 사상가로서 거듭난 이세진은 이후 1934년부터 본격적인 교육활동에 나서게 된다.



Ⅲ. 內藏禪院과 衆香講院에서의 교육활동

1. 내장선원에서의 활동

이세진은 1920~30년대의 다양한 불교혁신사상을 접하면서 내장선원과 대원강원을 졸업한 뒤 1934년 이후부터는 자신의 출가 사찰인 내장사로 돌아와 교육사상가로서의 첫발을 떼게 된다. 이세진의 내장사 부임 시기는 1934년 6월 10일이다. 내장사에서의 교육활동은 앞서 언급되었듯이 내장선원에서 이루어졌다.

내장선원은 1924년 백학명이 세만(世萬)의 후원에 의해 벽련암(碧蓮庵)의 법전(法殿)을 중축하고 이어 새로이 내장사 선당을 신축하면서 개원하였다.⁵⁴⁾ 이세진은 1927년 출가 직후 이 내장선원에서 수학하였는데, 이 시기에 내장사를 탐방했던 목당 강유문은 당시의 내장선원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내장선원을 내장승계(內藏勝界)에 세우고 순진한 소년을 모아 선리(禪理)를 보이고 교학(敎學)을 가르치며 농업을 힘쓰게 하되 가무(歌舞)까지 있어 일하면서 글월을 읽으면서 선(禪)을 연구하면서 몸과 마음이 쾌활하게 되었으니 실로 이 세계에 가장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일인 동시에 이상적(理想的) 선원이라 하겠다. 천부전원(天府田園)에서 대자연의 향내를 맡으면서 흙덩이를 치우고 노래할 제 명창정궤(明窓淨几)에서 경(經) 읽고 범패(梵唄)를 부를 제 정야공산(靜夜空山)에서 선리(禪理)를 연구할 제 대인생(大人生)의 지식을 이에서 얻을 것이며 대인생의 풍치(風致)를 이에서 얻을 것이다. 이렇게 쓰고 보니 초현실적(超現實的) 이상(理想)에 가까운 듯 하나 가장 사실적(事實的)임을 말하여둔다.⁵⁵⁾

이 내용을 정리하면 당시 내장선원은 선(禪)과 교학(敎學), 그리고 농사와 가무(歌舞)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시도했던 새로운 형태의 선원이었으며, 현실에 부합되는 이상적이고 사실적인 선원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것은 내장선원이 기

54) 교육원 불학연구소, 『선원총람』, 2000, 945쪽.

55) 「내장선원一瞥」 『불교』제46·7합호(1928. 5).

존의 선원 역할뿐만 아니라, 강원과 기타 교육의 형태까지 담아내고 있었음을 말한다. 또한 이세진의 출가 초기 수선안거와 사집과까지의 강원교육이 이곳 내장선원에서 이루어진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세진은 1929년 7월 15일 내장선원에서 안거를 성취하고 다시 1년 뒤인 1930년 7월 16일에 사집과를 졸업하였다. 그리고 잠시 내장사를 떠나 대원강원에서 4년 동안 수학한 후, 1934년에 강사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고 내장사로 돌아오게 된다.

이세진의 내장사 강사 부임 시기는 1934년 6월 10일이다. 그는 1920년대 자신이 수학했던 내장선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며 3년간 교육활동에 매진하게 된다.⁵⁶⁾ 또한 총무로서의 소임도 병행하면서 내장사의 사찰운영에도 직접 관여하게 된다.⁵⁷⁾

그렇다면 이세진이 첫 교육활동을 펼쳤던 내장선원의 구체적인 수학 모습은 어떠했을까. 이것은 현재 그 내용이 일부 전해지고 있는 내장선원의 청구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 세부적인 규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선원의 목표는 반선반농(半禪半農)으로 변경함
- 선회(禪會)의 주의(主義)는 자선자수(自禪自修)하며 자력자식(自力自食)하기로 함
- 회원은 신발의(新發意)나 신출가(新出家)를 모집함
 - 단, 구참납자(久參衲子)라도 근성(勤性)이 있는 이는 선입(選入)함
- 略
- 총림(叢林)의 정규(正規)에 따라 의식(衣食)을 원융(圓融)으로 함
- 일용(日用)은 오전 학문, 오후 노동, 야간 좌선 3단계로 완정(完定)함

56) 관음사교무소, 『教籍簿』(1947).

57) 내장사는 당시 백양사의 말사였으며, 이세진의 행적 역시 내장사뿐만 아니라 백양사에도 적지 않게 남아있다. 그것은 이세진이 내장사로 부임한 후 두 달 뒤인 1934년 8월 25일에 백양사에서 대선법계를 품수 받는 등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백양사에서 내장선원과 마찬가지로 선농불교운동이 실현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공중원, 「반농반선 주창한 대종사 曇庵스님(1875~1956)」 『현대고승인물평전』 하(불교영상, 1994), 32~33쪽. 여기의 내용을 간추려 요약해보면, ‘백양사 주지 송종헌은 半農半禪(선농불교의異稱)을 주창하며 사찰 대중들에게 자급자족의 생활을 지도하였다. 매일 일정한 양의 운력을 했으며, 거기서 나온 수입은 ‘選佛場’이란 공동기금에 충당하였다. 또한 사찰 주변의 터에 대나무를 심어 죽세공품을 만들어 팔았다. 사찰 주변의 밭을 학인들에게 3평씩 주어 마음대로 경작케 하거나 학인들이 袈裟를 지을 줄 알도록 하기도 했다. 사찰林에 감나무나 비자나무 등 유실수를 심고 사찰 주변 공터에도 모란과 작약 등 약초를 심었으며, 양봉도 하여 수입을 삼았다. 1천2백 50 정보의 사찰림을 매년 10정보씩 간벌해 숲을 구워 그것으로 진답을 사들이기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최근 백양사 청운당을 재건하면서 ‘반농반선’의 내용이 담긴 상량문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 동안거(冬安居)는 좌선 위주, 하안거(夏安居)는 학문과 노동 위주로 합단, 안거증(安居證)은 3년 후 수여함
- 범음(梵音)은 시세(時勢)에 적합한 청아한 범패를 학습하며, 또 찬불(讚佛), 자찬(自讚), 회심(回心), 환향곡(還鄉曲) 등을 새로 만들어 창하기로 함
- 파계(破戒), 사행(邪行), 게으름(懶習), 기타 폐습(廢習)은 일체 엄금함⁵⁸⁾

이 내용에 따르면 내장선원은 반선반농(半禪半農) 즉 선농불교를 목표로 선수행(禪修行)과 생산 활동을 겸하여 자립해야 한다는 선원의 규율을 내세우고 있다. 자선자수(自禪自修), 자력자식(自力自食), 이것은 앞 장에서 잠시 살펴보았던 백장청규(百丈淸規)의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선농불교의 기본정신이다.

또한 세부규칙으로 들어가면 하루일과를 오전, 오후, 야간 3단계로 구분하여 오전에는 학문, 오후에는 노동, 그리고 야간에는 좌선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안거(冬安居)와 하안거(夏安居) 역시 좌선 위주, 또는 학문과 노동 위주라는 표현을 통해 이 규정의 기본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급자족의 경제운동을 위한 틀이 아니라, 학문, 노동, 참선을 모두 수행의 한 범주 안에 넣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즉 선·교·노동생산, 모두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행의 한 형태라는 것이다. 이것이 곧 선농불교사상의 요체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을 더욱 뒷받침해 주는 규칙으로써, 일곱 번째 불교가사(佛敎歌辭)의 창작에 대한 내용이다. 당시 이세진의 스승 백학명은 선농불교운동의 현장성을 담은 가사를 창작해 수행의 한 방편으로 이를 구연하였다. 그가 지은 가사는 모두 7편이 전하는데, 이중 특히 「선원곡(禪園曲)」은 내장사의 선농불교운동의 요체를 구비시가의 표현기법을 활용하여 전개한 작품으로 유명하다.⁵⁹⁾

그밖에도 내장선원에서는 범패를 학습하여 자칫 건조해지기 쉬운 수행과 노동에 활력소를 제공하였다. 이렇게 음악을 불교혁신의 매체로 활용하여 일상 속에 화두가 끊임없이 살아있게 하였으며, 일반 대중에게도 널리 불법을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렇게 이세진은 내장선원에서 후학을 가르치며 선·교의 융합뿐만 아니라 일

58) 「내장선원一瞥」, 『불교』제46·7합호(1928. 5).

59) 김종진, 「학명선사의 불교가사」 『학명집』(성보문화재단연구원, 2006), 158~177쪽.

상사의 요소들이 곧 수행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폭을 넓혀 보다 다양한 혁신운동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

이세진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대원강원에서 불교교육의 과제로 인식했던 불교교육의 전통과 근대화 사이의 해결점을 찾고자 노력한다. 그것은 내장선원에서 교육활동을 접고 두 번째 활동의 장인 표훈사 중향강원에서의 보여준 그의 교육활동 속에서 확인되는데 다음 절에 이어 전통강원의 개혁운동 선상에 있는 그의 중향강원에서의 활동을 고찰해보겠다.

2. 중향강원에서의 활동

1910년대 당시 한국사회 전반에 팽배해있던 사회진화론(社會進化論)은 불교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 전통강원을 지방학림(地方學林)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1915년 근대교육 체계의 안정과 1916년 1월 선교양종연합사무소(禪敎兩宗聯合事務所) 제5회 총회에서 전문강원을 지방학림으로 전환하자고 결의를 모으면서 절정에 달한다.⁶⁰⁾

그러나 192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흐름에 제동을 걸며 전통강원을 회복하자는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요인에는 근대교육기관에서 행하는 교육의 실제와 그 효과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근대학문을 익힌 일본 유학생들의 친일과 대처 및 환속에 따른 세속화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반면 그와 대조적으로 전통강원 교육에 대한 신뢰는 변함없이 근저에 흐르고 있었다. 또한 1926년 8월 6일 대강백(大講伯) 진하(震河)가 제주도포교당(濟州島布教堂)에서 66세의 나이로 입적하자⁶¹⁾ 진하와 같은 대강백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문강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게 되는데,⁶²⁾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통강원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데 일조하게 되었다.

60) 교육원 불학연구소, 『조계종사:근현대편』(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2001), 104~108쪽.

61) 「진하노사약력」 『불교』제17호(1925. 11).

62) 교육원 불학연구소, 『조계종사:근현대편』, 2001, 105쪽.

이리하여 1925년에 해인사 전문강원이 복원되었고, 1926년에는 범어사와 개운사에, 이후 건봉사, 유점사, 통도사 등 전국 각지에 강원이 차례로 복원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전통강원의 복원으로 시작된 운동은 점차 내실을 다지며 불교교육의 개혁운동으로 확대되었다. 1928년 3월 개운사, 범어사, 해인사, 유점사의 학인들이 주축이 되어 전국 강원 대표 44인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강원의 복구와 강원교육 개선을 위한 ‘조선불교학인대회(朝鮮佛敎學人大會)’를 개최하게 되었다.⁶³⁾ 여기서 학인들은 불교계의 상황을 개탄하면서 그 타개책의 일환으로 시대에 적합한 교화방법과 불교 교육제도의 일치를 주장하였다. 전통강원에 불교경전인 내전만이 아닌 지리, 역사, 철학, 종교사 등 외전(外典)을 교육과목으로 함께 지정하여 전통적 강원의 교과체제에 근대적 지식의 접목을 시도하게 한 것이었다. 이 조선불교학인대회에는 제주도에서 3명이 참석하는데 제주불교협회(濟州佛敎協會) 대표 강태현(康泰鉉), 관음사 대표 안도월(安道月), 관음사 성내포교당 대표 오이화(吳利化) 등이 그들이다.⁶⁴⁾ 이들은 당시 학인이 아니었지만, 제주도에 전통강원을 설립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이후 1939년 표훈사 강주 이세진을 제주강원 강사로 부임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 시기 불교교육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승가교육의 새로운 모델들이 차례로 등장하는데, 바로 앞서 언급했던 내장사의 내장선원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내장선원에서는 학문과 함께 노동, 시가, 음악의 영역에까지 다양한 교육내용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유점사의 경원(經院), 오산불교학교(五山佛敎學校) 및 불교순회강연 등도 이 시기 이러한 불교교육의 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기타 교육활동으로 백용성의 대각일요학교(大覺日曜學校) 설립, 불교일요학교, 불교청년회 야학부 등을 들 수 있다.⁶⁵⁾

이러한 다양한 교육개혁안들이 시도되던 시기에 이세진은 내장선원에서의 교육활동을 통해 독자적인 교육사상가로서 인정을 받고 1937년 3월에 표훈사(表訓寺) 중향강원(衆香講院)의 강주로 부임 받게 된다.

63) 김광식, 「조선불교학인대회 연구」 『한국근대불교의 현실인식』, 1998, 50~86쪽.

64) 「조선불교학인대회 발기인 승낙개최」 『불교』제44호(1928. 2).

65) 송선개, 「석전 박한영의 불교 교육개혁에 관한 연구」, 1998, 78~79쪽.

중향강원의 설립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현재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 이세진이 부임되던 시기인 1937년경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봉선사 홍법강우회(弘法講友會)에서 1938년에 발간한 『홍법우(弘法友)』에 처음 중향강원이 기록되었기 때문인데, 그 표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전조선강원학인명부(全朝鮮講院學人名簿, 1937년 12월 15일 현재)⁶⁶⁾

중향강원(衆香講院) (회양군 표훈사)

강주(講主) 이세진(李世震), 외과강사(外科講師) 한경원(韓慶源)

과 정	성 명	나 이	주 소
사교과	이기신(李驥新)	49세	회양군 표훈사
	송용만(宋鎔萬)	42세	회양군 표훈사
	윤호근(尹浩根)	29세	회양군 표훈사
	권태민(權泰敏)	44세	회양군 표훈사
	이혜화(李慧華)	32세	회양군 표훈사
	지학윤(池學潤)	33세	회양군 표훈사
	송달원(宋達元)	32세	회양군 표훈사
	최갑중(崔甲宗)	25세	회양군 표훈사
사집과	정지학(丁智學)	25세	회양군 표훈사
	빙성옥(氷成玉)	28세	회양군 표훈사
사미과	송문섭(宋文燮)	19세	회양군 표훈사
	전용국(全龍國)	25세	회양군 표훈사
	김동구(金東龜)	25세	회양군 표훈사
	송문웅(宋文雄)	14세	회양군 표훈사
	차일준(車一濬)	15세	회양군 표훈사
	김명산(金明山)	15세	회양군 표훈사
	최백수(崔白首)	17세	고성군 유점사

위 자료에 따르면 1937년 12월 15일 현재 중향강원에는 사교과 8인, 사집과 2명, 사미과 7명으로 모두 17명의 학인이 수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인

66) 봉선사 홍법강우회, 「전조선강원학인명부」 『홍법우』제1호(1938. 3).

들의 나이는 사미과 14~25세, 사집과 25~28세, 사교과 25~49세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훈사는 당시 유점사의 말사였다. 그런데 유점사에는 1928년 근대불교 최초의 경학연구 전문기관인 ‘동국경원(東國經院)’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동국경원의 전신은 동국강원(東國講院)이다. 1925년 김경봉 강사가 이끌던 동국강원에는 40여 명의 학인들이 있었는데⁶⁷⁾, 이 동국강원이 경원으로 바뀌면서 강원은 잠시 해산되었다. 이후 1933년에 동국강원이 다시 설치되었고 1937년에는 이퇴운이 강주로 지도하면서 16인의 학인을 두었다.

표훈사의 강원에 대한 기록은 위 기록이 전부이다. 이세진이 중향강원의 강주로 부임을 받게 되는 경위는 박한영과 표훈사 측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측된다. 강원의 강주로 부임받는 과정에는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스승의 전강계(傳講偈)를 받고 정식으로 강주로서 임명되는 과정을 밟기 때문이다. 1936년 박한영이 대원강원을 졸업한 운기 성원에게 자신의 전강계자임을 밝히는 내용의 전강계를 내려 백양사 강원의 강주로서의 소임을 맡게 한 예에서도 알 수 있다.⁶⁸⁾ 또한 1939년 선학원 조선불교(禪學院 朝鮮佛教) 1차 선종총회(禪宗總會)에서는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던 수십 개의 선방(禪房) 중에서 금강산 마하연(摩訶衍)을 모범 선원으로 지정하는데⁶⁹⁾, 마하연은 표훈사에 딸린 암자로 1920년대에 해동제일선원(海東第一禪院) 혹은 동국제일선원(東國第一禪院)으로 거론될 정도로 우리나라 명안종사(明眼宗師)의 산실로서 명성이 드높았다.⁷⁰⁾ 마하연의 본사였던 표훈사가 기존 전문불교교육기관의 부재함을 인식하고⁷¹⁾ 다시 표훈사의 본사인 유점사 강원과는 별개로 자체의 불교전문교육기관인 중향강원을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67) 「유점사의 전문강원」 『불교』 제7호(1925. 1).

68) 불학연구소, 『강원총람』, 1997, 86쪽.

69) 정광호 『근대한일불교관계사연구』, 1994, 203쪽.

70) 「只今부터는 마하연의 선원문이八字로 打開될 듯」 『불교』 30호(1926. 12).
「금강산 마하선원 良規 今夏안거부터 시행결정」 『불교』 제106호(1933. 4).
교육원 불학연구소, 『선원총람』, 960쪽.

71) 표훈사에서는 1929년부터 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움직임이 추진되는데, 이후 이와 관련된 기사는 없으며 1937년 이세진의 중향강원이 유일한 기록이다. (「내금강불교회창립」 『불교』 58호 1929. 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중향강원은 사미, 사집, 사교과로 구성되어 있고, 학인의 나이는 17세에서 49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층을 이루고 있었다. 같은 시기의 본사 동국강원과 비교해보면, 동국강원은 11세에서 28세까지 비교적 청년층의 승려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중향강원은 3, 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⁷²⁾

또한 중향강원에는 동국강원에 보이지 않는 외과강사(外科講師)가 배치되어 있음이 눈에 띈다. 외과는 앞서 언급한 불전 이외의 신학문 즉 지리, 역사, 경제, 철학 등의 교과목을 말한다. 다시 말해 이것은 대원강원이 주도했던 전통강원의 개혁운동이 중향강원에서도 시도되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 밖에 학인들의 출신 사찰을 보면 동국강원은 유점사 14인, 통도사 1인, 백양사 1인인 반면, 중향강원은 학인 17인 중 1명만 유점사 출신이고 나머지는 모두 표훈사를 출신 사찰로 두고 있다. 앞서 연령층도 보통의 사찰과 달리 중년층에 속하는 3, 40대가 대부분인 점을 미루어보면, 이 중향강원이 새로이 출범하면서 표훈사내에 거주하던 선승들을 중심으로 모집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이세진은 내장선원과 대원강원을 거치면서 이미 선·교를 수학했으며 불교혁신사상을 견지한 자신의 제자이기에, 박한영에게는 이세진이 28세의 젊은 나이임에도 이러한 중향강원의 강주를 역임할 수 있는 인물로 판단되었을지 모른다. 이세진은 1939년 2월 제주 한림포교당으로 부임받기 전까지 약 2년간 강주로서 중향강원을 이끌었으며, 1938년 1월 15일에는 표훈사 법무(法務)에 취임하게 된다.⁷³⁾

결국 내장선원과 중향강원의 교육활동을 통해 근대 교육사상가로서 자립한 이세진은 중향강원의 강주생활을 기점으로 미래의 활동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이에 대한 이세진의 최종적인 선택은 제주로의 귀향이었으며 1939년 중향강원을 정리하고 제주로 돌아오게 된다.

72) 동국강원 역시 중향강원과 함께 위의 『홍법우』에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강주 李退耘, 대교과 - 朴載德(24) 고성군 유점사, 사교과 - 元東哲(26) 고성군 유점사, 郭東宣(23) 장성군 백양사, 裴仁基(27) 고성군 유점사, 張性喆(19) 고성군 유점사, 李基悟(19) 고성군 유점사, 李慧哲(17) 양산군 통도사, 金敏喆(16) 고성군 유점사, 사집과 - 鄭鎭賢(16) 고성군 유점사, 金奉德(17) 고성군 유점사, 孫性秀(17) 고성군 유점사, 崔基永(17) 고성군 유점사, 사미과 - 金龍珠(12) 고성군 유점사, 李燦洙(11) 고성군 유점사, 수의과 - 李東華(28) 양산군 통도사, 洪景模(23) 고성군 유점사 총 16인.

73) 제주불교사연구회 편, 『근대제주불교사자료집』, 2002, 203쪽.

IV. 近代 濟州佛教革新運動과 이세진의 활동

근대시기 제주불교는 개항기를 전후해 제주출신 승려들이 배출되고 타 지역의 승려들과 적극적인 교류를 이루면서 서서히 중흥기를 맞이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 출가하는 김석윤과 강창규의 경우는 근대제주불교의 초기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들로서, 1908년 관음사, 1909년 제주의병, 1911년 법정사 창건, 1918년 법정사항일운동 등 근대 초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에 관여되어 있었다. 우선 김석윤(金錫允)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는 1891년 제주 광양서재(光陽書齋)의 김설월(金雪月) 문하에서 내전(內典) 금강반야경(金剛般若經)을 수학하고 이후 1894년 위봉사에서 박만하(朴萬下) 율사를 은사로 출가하였다. 그리고 법정사 항일운동을 주도했던 강창규(姜昌奎)의 경우는 그보다 2년 앞선 1892년에 같은 위봉사에서 박초월(朴初月) 화상을 은사로 출가하였다.⁷⁴⁾

이러한 근대 초의 흐름 속에서 1908년 대흥사로 출가한 안봉려관(安逢廬觀)이 박만하와 김석윤 등의 도움으로 관음사를 창건하면서 제주불교는 본격적인 중흥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⁷⁵⁾

1908년 안봉려관은 관음사 경내에 있는 해월굴에서 백일기도를 시작으로 불사(佛事)에 착수하여 김석윤과 함께 초가 법당을 짓고 관음사를 창건하였다. 그리고 1910년에는 영봉(靈峰) 화상과 안도월(安道月)이 통영군 용화사에서 불상과 탕화를 옮겨와 관음사에 봉안하였다.⁷⁶⁾ 김석윤은 1909년 제주의병을 주도하여 10년의 구형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1909년 7월 22일 다른 연루자들과 함께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된다. 이로 인해 일제의 삼엄한 감시권 안에서 행동의 제약을 받게 되지만 그 와중에도 1911년 관음사의 해월학원(海月學院) 교사를 맡으며 다수의 제자를 길러내기도 하였다.⁷⁷⁾

74) 관음사교무소, 『教籍簿』(1947).

75) 구산인, 「영주기행」 『불교』제6호(1924. 12.)
김석익, 『亡兄石惺道人行錄』(1949).

76) 이은상, 『탐라기행』(조선일보사, 1937).

77) 앞의 『教籍簿』.

1910년대는 그동안 제도권 밖에서 민중의 고통과 함께 하며 축적되어온 제주 불교의 역량이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자 자연스럽게 민족사상과 이어지게 되었다.⁷⁸⁾ 그 대표적인 모습이 1918년 서귀포 법정악에 위치한 법정사에서 주지 김연일을 비롯한 강창규, 방동화 등 수명의 승려들이 700여 명의 주민들과 함께 국권 회복을 외친 법정사항일운동이었다. 이 사건은 특히 내륙(內陸)과 본도(本島) 출신 승려들이 연계하여 한반도 전체에 독립운동의 움직임을 불러일으키려 했던, 3·1운동보다 1년 앞서 일어난 대규모 항쟁으로서 제주사뿐만 아니라 한국근대사에 중요한 의의를 남긴 사건이라 하겠다.⁷⁹⁾ 이러한 근대 초 제주불교의 외세에 대한 저항의식은 이후 제주불교 혁신운동의 싹을 틔우는 밑거름이 된다.

1920년대를 지나면서는 전국적인 불교 포교의 활성화에 맞춰, 항일운동의 여파로 타격을 받은 제주불교도 점차 활기를 띠게 되었다. 특히 1924년 제주불교협회의 탄생은 근대제주불교가 중흥기(中興期)를 지나 본격적인 발전 단계로 들어서는 촉진제의 역할을 한다.

제주불교협회(濟州佛敎協會)는 1924년 11월, 당시 조선불교계의 교단을 이끌던 대표 인물에 속했던 조선불교대회 범사 이회명(李晦明)이 회장직을 맡고 관음사와 제주도 유지들이 중심이 되어 ‘불교진흥’, ‘심신수양’, ‘지방문화발전’ 등을 취지로 창립하게 된다.⁸⁰⁾ 또한 고문직에는 제주도 최고행정책임자인 일본인 도사(島司)를 비롯한 각계 유지들이 참여하였는데, 여기에는 법정사 항일운동에서 보여준 제주불교의 반일감정에 위기를 느낀 일제당국의 통제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불교계에 대한 효율적 관리·감독을 위해서 그에 맞는 조직적 틀이 필요했던 일제와 포교활동에 박차를 가해야 했던 불교계의 의도가 서로 맞물린 것이었다. 또한 이 제주불교협회의 창설은 결과적으로 제주불교가 육지부의 중앙불교와 직접 연계를 갖고 제도권에 실질적으로 포섭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였다.⁸¹⁾

78) 오성, 「제7장 종교 / 제2절 불교」 『제주도지』 제6권:문화·예술, (제주도지편찬위원회, 2006), 991쪽.

79) 한금순,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06), 46~58쪽.

80) 「제주불교협회」 『동아일보』(1924. 11. 30).
 「제주불교협회」 『불교』 제6호(1924. 12).
 「제주불교협회」 『조선불교』 제10호(1925. 2. 11).

81) 오성, 「제7장 종교 / 제2절 불교」 『제주도지』 제6권, 2006, 996~997쪽.

이후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주불교협회는 활동의 부재로 침체상태에 빠진다. 이에 관음사 주지 안도월을 주축으로 기존 제주불교의 활동가들이 1931년 ‘제주불교임시대회(濟州佛教臨時大會)’를 개최하여 포교활동에 다시금 불을 붙인다.⁸²⁾ 기존 불교협회의 활동이 일제의 협조 하에 이루어졌던 반면, 이 시기의 활동은 성숙된 제주불교 토착세력들이 자생적인 노력에 의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기간에 제주불교계는 일본 대판에 관음사 대판출장(大阪出張) 대각포교당(大覺布教堂) 설립과 함께 20여 개의 포교당을 건립하고 염불회, 부인회 등 신도조직을 활성화하였다.⁸³⁾

1930년대 중반부터는 농촌진흥운동의 일환인 심전개발운동이 대본산 대흥사에서 과견된 문학연과 백양사의 이학암, 최청산, 이성봉, 김신산에 의해 진행되었다.⁸⁴⁾ 활동기간은 1936년부터 1938년 사이로 이들은 법화산림(法華山林), 미타정 토산림(彌陀淨土山林)과 같은 정기 설교와 경전 강습을 통해 기존불교의 미신을 타파하고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는 한편, 전쟁 참가자를 위한 무운장구 기원제(武運長久 祈願祭)를 거행하였다.⁸⁵⁾

이와 달리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항일운동가인 김석윤이 1934년 범어사 제주포교소 월정사(月井寺)을 창건하여 그곳에 1938년 9월에 선학원 후신인 조선불교중앙선리참구원(朝鮮佛教中央禪理參究院) 제1지방분원을 설치하였다.⁸⁶⁾ 이것은 근대시기 최초의 제주선원이 등장하였음을 말하는 것으로, 그 활동 시기는 1940년대까지 지속되었다.⁸⁷⁾

이경순, 「이회명과 제주불교협회」 『근대제주불교를 읽는다: 근대제주불교사 자료집출간기념세미나』 (2002), 37~46쪽.

82) 「제주불교 임시대회 개최」 『매일신보』(1931. 12. 6).

83) 「불교확장 계획」 『매일신보』(1926. 7. 26).

「제주불교협회의 현황」 『조선불교』제36호(1927. 4).

「한라산남에 칠일정진 有島以來의 未曾有事」 『불교』제36호(1927. 6).

「제주도 관음사 대판 출장 대각포교당 봉불식」 『불교시보』제29호(1937. 12. 1).

84) 「대본산 대흥사 순회포교 상황」 『불교시보』제14호(1936. 9. 1).

「문학연씨 초청대강연」 『불교시보』(1936. 10. 1).

「제주도 법화산림 대작불사」 『불교시보』제20호(1937. 3. 1).

「대본산 대흥사 제주성내 포교소 미타산림법회」 『불교시보』제20호(1937. 3. 1).

85) 「제주도 법화사의 기원제」 『불교시보』제28호(1937. 11. 1).

「기원제 및 위령제 거행」 『불교시보』제30호(1938. 1. 1).

86) 「제주도 제주선원 낙성식 및 기념강연」 『불교시보』제39호(1938. 10. 1).

87) 정광호, 『한국불교최근백년사편년』, 1999, 261~272쪽.

이러한 제주불교의 다양한 변화들은 이후 호남지역에서 농촌계몽운동에 앞장서다 백양사포교소로 부임해오는 이일선을 비롯한 제주출신 승려 이세진, 오이화, 이성봉 등으로 이어져 1939년 제주불교연맹을 탄생시키기에 이른다.⁸⁸⁾ 또한 192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신불교운동(新佛敎運動)이 함덕, 중문 등지에서 개별적인 활동의 모습으로 이어져 오고 있었고, 1940년대에 와서는 이세진의 혁신운동이 서관음사를 근거지로 제주불교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러한 흐름은 1945년 해방이 되자 ‘조선불교혁신제주승려대회(朝鮮佛敎革新濟州僧侶大會)’를 통하여 과거 친일의 반성과 왜곡된 불교풍토 정화, 불전강원 설치, 모범총림 창설, 교무원 운영 등 해방공간에서 불교계가 풀어야 할 과제와 방향에 대한 진지한 모색을 하면서 더욱 활기를 띠게 된다.⁸⁹⁾

이 장에서는 먼저 이세진의 혁신운동의 토양이 되었던 1920년대 이후의 제주신불교운동의 동향에 대해 잠시 살펴본 후,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했던 이세진의 제주불교혁신운동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近代 濟州新佛敎運動의 동향

고려시대 이후 새롭게 흥기한 근대 제주불교는 대중적 종교로서 자리를 잡고 꾸준히 성장 발전해오면서 양적팽창을 이뤄냄과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승가 내부 혹은 일반 민중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개혁적인 신불교운동(新佛敎運動)을 전개하였다.

이 운동의 대표적 인물로는 원문상, 신흥연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세진의 활동역시 넓은 의미에서는 이 신불교운동의 범주에 속한다. 원문상은 1918년 범정사 향일운동의 주역인 방동화의 제자로서 1927년 서귀포시 하원리에 야학을 개설해 민중 계몽운동을 펼쳐나갔으며, 신흥연은 1930년대에 지역 농민들과 함께 농촌운

교육원 불학연구소, 『선원총람』, 1486~1499쪽.

88) 「제주불교연맹 결성」 『불교시보』 제47호(1939. 6. 1).

89) 「조선불교혁신 전도승려대회 회의록」 『법계』(1945).

동에 앞장서며 제주에 새로운 불교운동의 바람을 일으켰던 신불교운동의 선구자들이었다.

한편, 당시의 신불교운동을 고찰함에 있어 이들과 더불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이 이일선이다. 이일선의 행적은 엄밀히 따지면 신불교운동과는 무관하나, 그는 1939년 근대제주불교의 최초의 통일기구인 제주불교연맹(濟州佛教聯盟) 창설을 주도하였고 이후 4·3사건에 불교계가 참여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주도했던 인물이었다. 이렇듯 제주불교의 중대한 전환점의 중심에 있었던 이일선은 청년시절 사찰령 철폐운동과 농촌계몽운동에 앞장서기도 했는데, 이러한 이일선의 행적이 제주불교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다는 의미에서 여기에 함께 포함시키기로 하겠다. 지금부터는 이 신불교운동의 흐름을 1920년대부터 1930년대 말까지 시기별로 나누어 위에 언급한 대표 인물들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1920년대 원문상(元文常)의 야학운동(夜學運動)이다. 원문상은 1908년 제주도 중문면 하원리 태생으로 법명은 법회(法回), 법호는 만허당(滿虛堂) 속명은 경오(京午)이다. 기록상에 나오는 문상(文常)은 관명(冠名)이다.⁹⁰⁾

그는 1922년경 서울로 상경한 뒤 혜화전문학교(惠化專門學校)에서 수학했으며 한글학회 회원으로 활동했다.⁹¹⁾ 그의 출가 사찰은 기림사로서 1918년 법정사 향일운동의 주역인 방동화를 은사로 모시어 그의 민족사상을 이어받았다.

원문상은 1926년 경 제주로 귀향한 후 교육활동에 뜻을 두고 1927년 하원리에 ‘소년명진회(少年明進會)’를 창설하였다.⁹²⁾ 이 소년명진회는 ‘자력갱생, 문맹퇴치, 민족정신 함양’을 3대강령으로 내세우며 교육을 통한 식민지시대에 잃어가는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야학운동을 실시하였다.⁹³⁾ 소년명진회의 구성원은 18세 이

90) 원혜관 구술(보목동 혜관정사, 1998. 1, 필자 채록). 원혜관은 원문상의 친동생으로 이세진의 상좌이기도 하다. 그의 이력을 간단히 살펴보면, 1945년 제주불교청년단 활동, 제주승려대회 교무부원 역임, 1967년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同 원로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1960년 혜관정사를 창건하였고 2000년 세수 85세의 나이로 입적하였다.

91) 앞의 원혜관 외, 원애경(69세, 원문상의 장녀), 조명철(69세, 원문상의 중문중학원 제자), 원용범(58세, 원문상의 외아들) 등의 증언을 통해 기본적인 원문상의 생애를 고찰하였다.

92) 김택춘 구술(84세, 서귀포시 하원동, 1999. 9, 필자 채록).

93) 『제주소년연맹회』 『동아일보』(1925. 10. 3).

박찬식, 『일제하 제주지역의 청년운동』 『제주도사연구』 4(제주도사연구회, 1995), 88쪽.

일제시대 야학은 강습회, 강습소 등과 같은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이들 야학운동은 1920~1930년대 민족교육운동의 중심이 되었다. 제주에서는 1925년 9월 23일 ‘제주소년연맹회’가 창립

하의 청소년들로서, 내부에는 총무부, 사회부, 체육부, 교화부 등이 조직되어 있었다.

또한 교과목으로는 산술, 조선어, 한문, 일본어 등 초등 교과목의 기본과정과 함께, 단군조선으로 시작하는 조선역사도 함께 교육시켰다. 이러한 과목의 교재들은 당시 미롱지라 불리던 갠지에 목지를 대어 필사해서 만들었는데, 가끔 불시에 들이닥친 일본경찰에 의해 발각되면 조선어나 조선역사 교재들은 곧바로 압수되어 주재소에서 불태워지기도 하였다.

소년명진회는 이러한 교육 외에도 한글 가사를 만들어 일반 대중에게 계몽사상을 전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원문상은 소년명진회의 회가(會歌)를 직접 만들었으며, 동향(同鄉) 선배인 오제식과 함께 하원경치가와 하원이별가 등을 만들어 대중에게 보급하였다.⁹⁴⁾

이러한 소년명진회에서의 야학활동은 1927년 창립 후부터 해방되던 1945년경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이 활동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일본으로 건너간 하원출신의 청소년들을 위하여 일본 대판시에 소년명진회 대판지부를 개설하기도 하였다.

이 대판지부는 원문상의 후배인 이시욱, 홍석구, 원상화 등이 운영하였는데, 이들은 원문상을 초당(初堂)이라 하고, 이시욱을 재당(再堂), 홍석구를 삼당(三堂), 원상화를 사당(四堂)이라 부르며 비밀리에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근대시기에 이루어진 이러한 원문상의 야학운동은 지역민들이 갈망했던 교육의 기회를 열어줌과 동시에 민족의식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승려이면서 일반 민중들의 교육자로서 비승비속(非僧非俗)의 삶 속에서 원문상은 야학운동을 통해 새로운 불교운동의 단면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1930년대 초에 출발한 신흥연(申鴻然)의 농촌계몽운동이다. 신흥연은 전남 순천 태생으로 일본에서 불교공부를 마치고 백양사에서 수학하였다.⁹⁵⁾ 그는

되었으며, 17곳의 소년회가 참가하였다. 이것은 성산소년단, 소년육영회, 협성소년회, 월정소년회, 가파소년회, 소년돈목회, 외도소년회, 김녕소년회, 신촌소년회, 일신소년회, 소년용진회, 소년선봉회, 소년성학회, 화북소년회, 삼양소년회, 소년탐흥회, 소년신명회으로 각 지역별 소년회가 대부분 참가하였다.

94) 앞의 김택춘(1999. 9), 조명철((1999. 6) 구술채록.

하원경치가와 하원이별가는 원래 15절로 구성되어 있었다. 1999년 하원향토지를 발간할 때 이 노래를 되찾아 향토지에 실으려 했으나, 일부만 전해져온 까닭에 가사를 이을 수 없어 수록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제주가 고향인 외가의 인연으로 1934년경 백양사포교사로 제주에 발을 디게 되었다.

신흥연은 1934년 11월에 백양사 함덕포교당을 설립하였는데,⁹⁶⁾ 그곳은 지리적인 위치상 함덕과 대흘 경계부근인 속칭 외곶에 자리하고 있어 마을주민들에게는 ‘외곶절’이라는 사찰명으로 불리던 곳이다. 이 외곶절에서는 1937년 불교의 근본정신을 되찾자 라는 취지 아래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에 걸쳐, 최청산, 김신산, 이성봉을 강사로 초빙하여 강연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포교활동을 전개하였다.⁹⁷⁾

이와 함께 신흥연은 함덕의 지역경제에도 적극 참여하여 당시 경제 불황을 타개할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고 실천하기에 이른다. 함덕은 현재에도 드넓은 백사장으로 유명한데, 당시에는 그보다도 더 넓게 모래가 분포되어 있어 수 킬로미터 이내는 모두 농경에 적합하지 않은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에 신흥연은 이러한 토양 속에서도 생산이 가능한 품종을 찾아내기 위하여 직접 사찰 경내에서 밭을 일구며 농사를 지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란 묘목과 씨앗을 마을주민들에게 보급하고 농사법도 전수하였다. 이때 들여온 품종이 시금치, 무, 호배추, 그리고 비파 등으로, 신흥연의 농사법은 대성공을 이루게 된다. 현재 이 지역을 대표하는 함덕 배추 역시 그때 들여온 품종으로써 수확량이 매우 많았었다.⁹⁸⁾

1930년대 이러한 신흥연의 농촌계몽운동은 해방 이후까지 지속되었으며, 외곶절에서 경작된 다양한 채소와 과수들은 점차 유명해져 함덕, 조천, 북촌 등지의 인근 국민학교에서 소풍과 견학을 갈 정도였다. 농촌계몽운동은 1920년대 사회운동가 및 지식인, 종교인들 사이에서 급속히 퍼져 각 지역마다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지만, 1930년대에 들어와서는 일제의 관권운동인 농촌진흥운동에 흡수되어 그 자취를 감추게 된다. 그러나 이 농촌계몽운동은 외곶절에서처럼 개별적인 운동의 형태로 전환하여 지속되기도 하였는데, 이 신흥연의 신불교운동이 대표적인

95) 신금자 구술(67세, 제주시 연동, 2003. 8, 필자 채록).

96) 제주도, 『제주록:조선총독부관보中』(제주도, 1995), 279~280쪽.

97) 『제주도 법화산림 대작불사』, 『불교시보』제20호.

98) 양지규 구술(71세, 조천읍 함덕리, 2003. 10, 필자 채록).
앞의 신금자(2003. 8, 구술채록).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일선(李一鮮)의 제주불교 통일운동이다. 이일선은 1895년 전남 장성 출신으로 법명은 일선(一鮮) 호는 운양(雲羊)이다.⁹⁹⁾ 선암사에서 출가하여 백양사와 중앙학림(中央學林)에서 수학하였다.¹⁰⁰⁾ 그는 1920년대 조선불교청년회에서 활동하며 당시 불교계의 주요 쟁점이었던 이회광의 매종(賣宗) 행위에 대한 규탄과 한국불교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것은 이일선이 조선불교청년회의 창립 직후인 1920년 7월 1일과 2일, 양일 걸쳐 조선일보에 「조선불교 청년제군에게」¹⁰¹⁾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면서 세간에 공론화되었다.

조선불교청년회(朝鮮佛教青年會)는 1920년 6월 20일 중앙학림의 학생들에 의해 결성된 혁신 단체로, 사찰령 철폐와 불교유신운동, 통일기관 설립 등을 주장하였다. 1924년에는 기존의 간사제가 총재제로 변경되면서 한용운이 총재로 취임하였고, 1931년 조선불교청년총동맹(朝鮮佛教青年總同盟)으로 전환될 때까지 한국불교청년운동의 중심역할을 수행하였다.¹⁰²⁾ 이일선은 이러한 조선불교청년회와 1921년 불교유학생 모임인 유학회에서 간부직을 역임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하며 격동의 청년기를 보내게 된다.¹⁰³⁾

이후 192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는 백양사를 중심으로 한 호남지역에서의 농촌 계몽운동에 앞장섰다.¹⁰⁴⁾ 이것은 내장사를 비롯한 백양사와 인근 사찰에서 행해

99) 백양사에 이일선이 기록된 비석은 모두 3기이다. ①『華嚴宗主蓮潭堂大禪師碑銘』(1927년)에 鶴鳴·映湖·翠雲 과 함께 現在門徒로 衡玉 밑으로 尙訥·載希·奉滂·一鮮이 각인되어 있으며, ②『羊岳啓璇禪師碑銘』(1935년)에는 5세손 圓明·宗誥·宗憲·衡玉 등의 뒤를 이어 6세손으로 尙律·順昨·永允·尙夏·尙訥·一鮮으로 기록되어 있고, ③『應雲雨能禪師殉公之塔』(1940년)에는 사법 2세로 一鮮·基俊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 외 내장사의『鶴鳴碑陰記』(1935년)에도 이세진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

100) 「불교유학생 강연회」 『동아일보』(1921. 8. 9).

「불교학생학우 총회」 『동아일보』(1922. 3. 9).

101) 한국불교근현대사연구회, 『신문으로 본 한국불교 근현대사』상(선우도량, 1995), 39~40쪽, 142~144쪽.

102) 김광식, 『한국근대불교사연구』, 1996, 192~254쪽

103) 앞의 「불교학생학우 총회」 『동아일보』, 기사내용은 ‘京佛教留學生學友會에서 제 2회 정기총회를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 수송동 82번 본회관내에 개최하고 金相琪씨의 사회하에 제반사항을 토론하는 중 前『唯心學友會』를 『佛教留學生學友會』로 변경하고 각부 임원을 개선한 바 如左, 총무부장 金光文, 부원 蔡在浩, 金奎河, 體育부장 李一鮮, 부원 金永鑽, 下善乳, 재무부장 鄭孟起, 부원 韓鳳華, 吳□權’

104) 「4·3의장 일선스님 행장 확인」 『불교신문』(2002. 2. 15).

진 선농불교운동의 영향이었으며, 또한 1920년대 당시 사회, 문화, 종교단체들이 농촌계몽운동에 적극 참여하던 전체적인 사회상과 맞물려 있는 것이기도 하였다.¹⁰⁵⁾

이일선이 제주에서의 활동을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10여년 후인 1937년경이다. 그는 백양사 서귀포 정방포교당의 포교사로 부임을 받고 이후 활발한 강연활동을 펼친다.¹⁰⁶⁾ 그리고 몇 달 뒤 1939년 4월 관음사 오이화를 집행위원장으로 선출한 뒤 이세진을 비롯해 조희영, 송재술, 김경식, 이성봉, 오일화, 방동화 등과 함께 제주불교연맹(濟州佛教聯盟)을 발족시키게 된다.¹⁰⁷⁾

이 제주불교연맹의 출범은 근대제주불교사에 있어 역사적인 획을 긋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당시 제주의 사찰은 타 지역에 위치한 각각의 본사 체제 아래에서 개별적인 사찰운영과 포교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1930년대에 제주불교가 내외적으로 성장 발전하면서 제주불교 전체를 대표하는 통일기구 설립을 희망하게 되었다. 이것은 근대 초부터 한국불교가 이루고자 했던 통일기관의 설립이 1930년대 여러 우여곡절 끝에 총본산건설(總本山建設)로서 마무리되던 전체 흐름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제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주불교의 통일된 역량을 통하여 타 본사에 대한 의존적인 경향에서 벗어나 제주도 자체의 통일기구, 즉 제주 교무원을 설립하기 위한 단초로 삼고자 하였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들은 총본산운동이 일제의 통제기구로서 일정정도 활용되었던 것처럼 제주불교연맹 역시 심전개발 강연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불교계의 통일기구 설립운동은 본래 1910년대부터 꾸준히 요구되어져 왔던 일제의 통제정책인 사찰령에 맞서 자주적

105) 당시 계몽운동가들의 개화사상의 저변에는 문명개화론과 사회진화론이 그 사상적 기반으로 깔려 있었다. 일본의 국권침탈이 한국의 국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국가적 실력 양성을 통하여 부국강병을 이루고 나아가 제국주의 국가와 같은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불교계도 이러한 개화 사상가들의 진화론을 수용하여 유신과 개혁을 꾀하였다. 이일선의 사상은 바로 이러한 진화론에 근거하여 불교계의 실력배양과 개혁을 주장한 것이다.

106) 「근하신년」, 「출정 황군 전사자 위령대법회」 『불교시보』제30호(1938. 1. 1).
「제주도 삼양리 백양사포교당의 백일기도 회향」 『불교시보』제31호(1938. 2. 1).
「서귀포교당의 가사불사」 『불교시보』제35호(1938. 6. 1).
「이일선의 招講」 『불교시보』제37호(1938. 8. 1).
「社告」 『불교시보』제34호(1938. 5. 1). ‘任 제주 서귀포분국장 李一鮮’, 위의 헤일 증언에 따르면 조선일보 주필도 역임하였다고 한다.

107) 「제주불교연맹 결성」 『불교시보』, 제47호.

인 중단을 설립하고자 했던 목적에서 출발하였다.¹⁰⁸⁾ 이와 마찬가지로 제주불교연맹 역시 총본산 건설운동이 지방으로 확산된 모습이면서, 동시에 제주불교의 독자적 역량을 결집하여 자체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한 구심체로서 출범하게 된다.

이일선은 이 제주불교연맹에서 포교부장을 역임하며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인다. 1939년 7월부터 8월까지, 제주불교연맹에서는 두 달에 걸쳐 전도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강연활동을 벌이게 되는데, 이일선은 여기서 14회의 강연을 맡아 순회 강연을 성공리에 이끌게 된다.¹⁰⁹⁾ 이러한 제주불교의 통일된 움직임은 이후 해방 공간에서도 조선불교혁신제주승려대회(朝鮮佛教革新濟州僧侶大會) 및 제주 교무원(濟州敎務院)을 탄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상 살펴본 1920년대 원문상의 야학운동과 1930년대 신흥연의 농촌계몽운동, 그리고 이일선의 제주불교연맹의 활동 등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근대제주불교는 내외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제주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이세진은 백양사와 제주불교의 요청에 의해 이일선의 부임 직후 귀향하게 되는데, 그의 첫 활동무대는 제주불교연맹에서의 교육활동이었다. 제주불교연맹은 이일선의 행적에서 언급되었기는 하나, 이세진의 승가교육이 실시된 활동무대이자 배경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절에서 보다 상세히 설립배경과 활동내역을 살펴보면서 본격적인 이세진의 제주에서의 활동모습을 다뤄보기로 하겠다.

2. 大覺寺 濟州講院에서의 濟州僧家教育 활동

이세진이 내장사와 표훈사에서 활동을 하던 1930년대 중·후반기는 불교자주화운동과 불교청년운동의 침체기였으며, 여러 사조의 논쟁이 혼란을 거듭하던 시기였다. 이와 함께 1930년 중반부터 각 지방별 본산이 자체발전을 꾀하며 경남 3본산총무협의회(慶南三本山宗務協議會), 경북불교협회(慶北佛教協會), 전남 5본산

108) 김광식,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2000, 362~364쪽.

109) 『제주불교연맹 제1회 巡講記』 『불교시보』제51호(1939. 10. 1).

연합회(全南五本山聯合會)를 발족시켰다.¹¹⁰⁾ 그리고 이 움직임은 1930년대 초부터 논의되었던 총본산건설운동(總本山建設運動)의 촉매제가 되어, 1938년 10월에는 총본산 건물인 대웅전(현재의 조계사)이 완공되기에 이른다. 이 총본산운동은 한국불교의 대표·통일기관을 건설하여 주지 임명권 확보와 불교교단의 재건을 목표로 추진된 운동이다.¹¹¹⁾ 그러나 결과적으로 1930년대 일제의 황국신민화 정책에 맞물려 심전개발운동과 함께 일제의 원활한 통제기구로 활용되는 이면(異面)을 낳기도 한다.¹¹²⁾

이러한 1930년대 중반 이후의 흐름은 제주불교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총본산 건설운동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던 1938년, 백양사 출신 이일선은 제주에 파견되어 관음사 오이화와 함께 제주불교연맹의 결성을 추진하게 된다.

이세진은 1939년 2월 3일자로 백양사 한림포교당 포교사로 부임을 받고 제주에서의 활동을 시작하였다.¹¹³⁾ 그리고 이세진이 제주에서의 활동을 시작한지 2개월 뒤인 1939년 4월 2일 오후 2시에 관음사포교당에서 제주불교연맹결성회(濟州佛敎聯盟結成會)가 개최되게 된다. 제주불교연맹은 제주불교의 통제, 신앙보국의 실천, 대중불교의 실현을 강령으로 내세우며 <표 2>의 조직을 구성하였다.¹¹⁴⁾

110) 김광식, 『우리가 살아온 한국불교 백년』(민족사, 2000), 82쪽.

111) 강석주·박경훈, 『불교근세백년』(중앙신서, 1984), 160~161쪽.

112) 김순석,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대응』(경인문화사, 2003), 186~203쪽.
김광식, 『한국근대불교사연구』, 402~458쪽.

113) 「인사소식」 『불교시보』 45호(1939. 4. 1).

114) 「제주불교연맹 결성」 『불교시보』 47호(1939. 6. 1).

<표 2> 제주불교연맹 임원(1939년)

직 책	위원장 및 부장	부 원
집행위원장	오이화(吳利化)	
서기장 겸 서무부장	조희영(曹喜英)	백학기(白鶴起)
회계장 겸 재무부장	송재술(宋在述)	김경수(金敬洙)
포교부장	이일선(李一鮮)	조의환(曹義煥), 고윤진(高允辰)
교육부장	이세진(李世震)	오현숙(吳賢淑), 고수선(高守善)
교육부 내 음악부장	김주(金主)	
수양부장	김경식(金景湜)	강남해(康南海), 현목련(玄木蓮)
체육부장	김경식(金景湜)	고원호(高元昊), 장기선(張基善)
검사위원	이성봉(李聖峰), 오일화(吳一華), 방동화(房東華), 김민수(金玟守), 임계련(林桂蓮)	

여기서 집행위원장 오이화는 당시 관음사 주지였으며, 그 외 원당사, 금봉사, 원만사, 정방사 등 각지의 사찰 주지들이 폭넓게 간부직에 배정되어 있다. 이는 명실상부 제주불교의 통일기구로서 그 출범에 앞서 제주불교의 토착세력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된 결과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세진이 담당했던 교육부이다. 당시 제주불교에는 승가교육을 체계적으로 담당할 강원이나 여타의 교육기관이 없었다. 관음사를 비롯한 일부 사찰에서 개별적인 강연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그것으로 후학을 양성한다거나 교육의 성과를 올릴 수는 없었다. 이것은 제주에 본사가 부재한 요인과도 상통하는 것으로, 제주불교가 독자적인 통일 체제를 꾸려가기 위해서는 제주도 자체에서 청년승려들을 배출해낼 수 있는 교육기관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교육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전 제주불교 토착세력이 중심이 되어 포교활성화를 추진했던 1931년 제주불교임시대회에서 이미 ‘현하 불교의 퇴보(退步)됨을 규창(叫唱)하고 장래 교무(敎務)를 쇄신할 정신으로’ 라는 취지아래 교육에 관한 안을 상정하고 협의한 바가 있었다.¹¹⁵⁾

이러한 제주불교의 과제는 제주불교연맹 출범에 앞서 중향강원의 강주로 있던 제주출신의 이세진을 강사로서 요청하게 되었고, 결국 이세진은 제주의 승가교육을 담당할 자격을 갖춘 인물로서 제주불교에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제주불교연맹은 첫 사업으로 전도 순회강연을 개최하였는데,¹¹⁵⁾ 이세진도 이에 참여하여 <표 3>의 6회에 걸친 강연을 하게 된다.

<표 3> 이세진의 제주불교연맹 순회강연 내용(1939년)

일 시	장 소	강연주제	청중 수
1939. 7. 23. 오후 9시	남원공회당	가정교육과 신앙	400명
1939. 7. 26. 오후 9시	서귀북소학교	교육과 신앙	300명
1939. 7. 27. 오후 9시	법환서당교사	자연과 인생	300명
1939. 7. 28. 오후 9시	중문면 면화매소전정 (棉花賣所前庭)	시심마(是甚麼)	200명
1939. 7. 30. 오후 9시 30분	모슬유치원	아시하수(我是何誰)	60명
1939. 8. 2. 오후 9시	애월면회의당	교육과 신앙	150명

제주불교연맹의 순회강연은 7월 16일부터 8월 3일까지 두 달에 걸쳐 행해졌다. 강연 지역은 삼양을 시작으로 조천, 김녕, 평대, 세화, 성산, 표선, 남원, 서귀, 법환, 중문, 안덕, 모슬포, 고산, 판포, 한림, 애월, 하귀에서 치러졌으며 장소는 소학교, 향사, 공회당 등이었다. 강사는 불교연맹의 간부진으로 구성되었는데, 이세진을 비롯해 이일선, 오이화, 김경식, 조희영이었다.

이 순회강연의 내용은 인생에 대한 종교의 힘, 인생과 신앙 등의 일반적인 종교개론과 함께 심전개발과 불교, 사변과 오인(吾人)의 각오, 사변과 총후(銃後)의 임무, 보국(保國)상의 불교 등 당시 시국을 반영한 강연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제주불교연맹의 또 다른 측면인 일제의 선전 창구로서의 역할을 말해주는 것이며, 또한 이세진이 제주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갖게 되는 한계이

115) 『제주불교 입시대회 개최』 『매일신보』(1931. 12. 6).

116) 『제주불교연맹 제1회 巡講記』 『불교시보』 51호(1939. 10. 1).

자 전시체제 하의 시대적 상황이었다.

이러한 한계를 안고 시작된 순회강연 속에서 이세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위 기록에 나타난 이세진의 강연 주제를 보면서 대강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가정교육과 신앙, 교육과 신앙, 자연과 인생, 시심마(是甚麼), 아시아수(我是我誰) 등이다. 이것은 생활불교와 선에 대한 내용으로 타 강연의 주제와는 너무 대조적이고 의외의 내용이다. 물론 이세진이 순회강연의 목적을 몰랐을 리는 없다. 그리고 다른 승려의 주장 역시 1940년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보편적으로 행해졌던 흐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세진이 제주불교의 활동 속에서 잃지 않으려 했던 그의 교육사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제주불교연맹 역시 일제라는 현실에 절반의 자리를 내주었다고 한다면, 다른 이면에는 이세진과 같은 한국불교 사상의 면모를 보여줄 불교내적인 발전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순회강연은 위의 1회로 끝이 난다. 대대적인 출범식을 갖고 시작했던 제주불교연맹의 활동이 단 한번의 공식행사로 시들해버렸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러나 제주불교연맹에서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중요시 여겼던 사업은 다른 데 있었다. 그것은 바로 대각사 승가교육으로, 제주불교연맹이 더 이상 존립할 수 없었던 1941년까지 이끌어다가게 된다. 그렇다면 당시 제주불교계에서는 왜 그토록 승가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것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제주불교는 1920년대부터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양적인 발전을 이루며 사찰의 수가 증가하고 출가승려 또한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부재했던 까닭에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주 승려들의 성향이 미신적인 경향으로 쏠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일었다.

둘째 당시 본말사제도(本末寺制度) 하에서 제주의 사찰과 승려들은 모두 육지부의 대흥사, 백양사, 위봉사, 기림사 등에 등록되어 있었다. 이것은 지역 정서적으로는 제주불교에 속하면서도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각기 다른 지도체제와 활동의 틀을 취해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찰간의 갈등구조를 양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제주에서의 승가교육을 통해 새로 배출되는 출가 승려들을 제주불교라는 구심체 속에 통합하고자 하였다.

셋째 이러한 제주출신의 승려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통강원의 청규(淸規)

와 엄중한 위의(威儀)를 통해 제주불교의 승가정신을 바로 세워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하였던 제주불교의 자립을 위한 통일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내에 승가교육기관의 설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이것은 이후 1945년 제주혁신승려대회에서 제주불교 총림(叢林)건설과 강원(講院)설립이 함께 제기되었던 것처럼, 제주불교가 독자적인 행정체제를 갖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주승가교육을 담당할 강원 건립이 가장 큰 당면의 과제로 인식된 결과였다.

결국 제주불교연맹은 외적으로는 일제의 통제를 수용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자체의 통일 욕구와 그것의 전제조건인 승가교육을 꾸준히 후원하고 보호해 왔던 것이다. 이세진은 순회강연에 잠시 모습을 드러낸 후 곧바로 본격적인 제주에서의 활동을 시작한다. 그것이 바로 대각사에서 승가교육이다.

이세진이 제주에서 첫 강원교육을 실시한 곳은 대각사(大覺寺)이다. 대각사는 현 제주시 중앙로에 위치한 관음사포교당의 사찰명이다. 교육의 시작은 불교연맹의 출범일인 1939년 4월 직후로, 불교연맹의 교육부장직을 맡으며 곧바로 학인을 모집하고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¹¹⁷⁾ 교과과정은 사미과(沙彌科), 사집과(四集科), 사교과(四教科), 대교과(大教科)로 구성되었다. 여기서 다른 지방의 강원과 다른 점을 찾는다면, 대부분 각 강원에 소속된 학인들의 경우 그 강원이 자리한 사찰에 기거하며 교육을 받게 되는데, 대각사에서 모집된 학인들은 각자가 소속된 사찰에서 정기적인 출석에 의해 참석을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주지역이 지리적 여건상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사찰이 모여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대각사 역시 적지 않은 학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이유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세진의 대각사 승가교육에 대한 기록은 1941년 3월 15일 비구수계식(比丘受戒式)을 마친 후 찍은 빛바랜 단체사진 한 장과 당시 교육을 받았던 학인들의 증언,¹¹⁸⁾ 그리고 ‘교적부(教籍簿)’와 ‘교도책임자명부(教徒責任者名簿)’에 실린 승려

117) 강대호 구술(86세, 제주시 일도동, 1999. 10, 필자 채록). 그 외 혜일(55세, 서귀포시 정방사, 1999. 5, 필자 채록), 앞의 원혜관(1998. 6.), 장연중(83세, 한림읍 옹포리 옹포포교당, 1997. 12, 필자 채록) 등의 구술채록을 추가로 참고하였다.

118) 대각사 제주강원에서 교육을 받았던 학인들 중 수명이 현재 제주불교 종단에 소속되어 있는

들의 수학 행적을 통해 찾을 수 있다.¹¹⁹⁾ 이 중 대각사를 배경으로 촬영된 비구 수계식의 사진은 당시 승가교육의 교과과정을 마친 학인들과 강주 이세진의 모습이 실려 있다.(사진1 참조) 사진에 나오는 학인의 수는 20여명으로 장연중, 오한일, 김용화, 향봉, 김홍조, 성주, 광일, 오춘송, 김태웅, 현응환, 오윤집, 강대효, 강동은, 두전, 원혜관 등이다. 이 중 강대효, 강동은, 장연중, 원혜관은 이후 이세진의 상좌가 된다.

대각사 승가교육은 제주불교에서 시도된 강원 의 첫 흔적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제주에서 승려 교육이 개별적으로 실시된 예는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관음사나 금봉사¹²⁰⁾ 등과 같이 한 사찰에서 특정인물을 초빙하여 학인을 양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형태를 보면 소의경전(所依經典)을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학습하거나, 다른 지방의 고승(高僧)을 모셔와 잠시 배움의 기회를 갖는 정도였다.

그러나 대각사의 경우는 전문 강사가 상주하며 전통강원의 형식에 맞는 체계적인 교과과정과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했다는 데에서 큰 차이가 있다. 즉 이세진은 근대제주불교에서 처음으로 승가의 전통교육기관인 대각사 제주강원을 출범시켜 제주의 청년승려들을 이끌어내었던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주의 여건상 학인들이 한 사찰에 모여 거주하며 교육을 받는 형태는 아니었지만, 강원 구성의 기본요건인 사미, 사집, 사교, 대교과의 교과과정을 통해 학인을 배출해 냈던 것이다.¹²¹⁾

80세 전후의 승려들이다. 이에 관한 구술채록은 강대효(1999. 10.), 원혜관(1998. 6.), 장연중(1997. 12.), 혜일(1999. 5.) 등이 있다.

119) 관음사교무소, 『教籍簿』(1947).

대한불교제주교도회, 『教徒責任者 名簿』(1951).

120) 당시 금봉사 승가교육에 참여한 학인의 수는 10여명 가량으로 출신지는 관음사, 금봉사, 백련사, 월성사, 법화사 등이었다. 강사는 최청산이며, 그가 1933년 지금의 대원정사인 원천사로 옮기기 전까지 금봉사에서 교육활동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원체제의 틀로서 교육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으며, 소의경전을 한권 정하여 정기적으로 교육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현재 금봉사 주지이며 이성봉의 손자인 수암(68세, 구좌읍 하도리 금봉사, 2000. 6. 필자 채록)과 최청산에 대한 증언을 한 일조(66세, 애월읍 수산리 대원정사, 1999. 8. 필자 채록)의 구술을 참조하였다.

121) 불학연구소, 『강원총람』, 1997, 60쪽.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미과의 경우는 기초교육으로서 반야심경, 초심문, 말심문, 자경문 등을 학습했으며, 사집과는 도서, 서장, 절요, 선요가 교재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사교과에는 능엄경, 기신론, 금강경, 원각경이며, 사교과에는 화엄경, 전등록, 탁송집(십지론, 선가귀감, 법화경)이 교육되어졌다.

이렇게 제주의 강원에서 졸업하거나 수료 중이던 학인의 수는 대략 50여명이 된다.¹²²⁾ 그러나 출범 후 2년 뒤인 1941년 위에서 잠시 언급했던 비구 수계식을 마지막으로 대각사에서 교육활동은 막을 내리게 된다. 그 요인으로는 1939년 7월 첫 사업이었던 1차 순회강연 뒤에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던 불교연맹이 1940년대로 넘어오면서는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는 현실적 여건 때문이었다. 이 시기 제주불교계의 활동은 거의 동결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1940년대 전후의 중일전쟁 여파와 태평양전쟁으로 돌입하던 당시 식민지 말기의 정세에 따른 것으로 불교계뿐만 아니라 제주사회 전체가 혼란과 긴장 속에 놓여있었다.

결국 이러한 외적인 정세변화와 함께, 내부의 문제 즉 협소한 교육장소와 제주지역의 지리적 특수성, 그리고 성숙되지 않은 제주불교의 교육 현실 등이 대각사 제주강원이 지속적인 제주교육기관으로서 자리 잡는 데 불완전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3. 제주불교혁신운동과 西觀音寺 창건

이세진은 제주불교에서 이루고자 한 승가교육이 1941년에 중단되자 공식적인 활동의 장을 떠나게 된다. 이것은 1940년대 당시 전시체제의 강압적인 사회 분위기와 함께 통일기구의 역할을 담당했던 불교연맹에서의 교육사업이 대각사 승가교육을 끝으로 좌초되었다는 데서 기인한다. 제주불교연맹의 활동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39년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의 순회강연이 전부이다. 관민의 대대적인 성원이 있었던 출발치고는 너무 싱겁게 끝을 맺는다. 그러나 불교연맹이 출범하면서 시작한 대각사 승가교육의 경우는 1941년까지 명맥을 유지하여왔다. 그것은 제주불교연맹이 이뤄낸 현실적인 성과였으며, 유명무실하게 되는 1940년대에도 당시 오이화 등과 같은 불교연맹의 중추세력이 뒷받침한 결과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41년 비구 수계식을 마지막으로 이세진의

122) 앞의 강대효(1999. 10), 헤일(1999. 5) 구술채록.

대각사 승가교육은 막을 내리게 되었으며, 또한 그보다 앞서 1940년경부터 이미 제주불교의 활동은 개별적 신고사항 외에는 별다른 활동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얼어붙어 있었다. 이와 같은 불교활동의 전면적인 중단은 이세진의 교육활동이 더 이상 공식적인 장에서는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반면, 이러한 현실은 오히려 이세진에게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듬해인 1942년 이세진은 공식적인 포교사직을 내놓으며 기존 활동을 모두 정리했다. 그리고 어느 조직에도 소속되지 않는 새로운 근거지인 서관음사를 통하여 불교혁신운동을 현실화시켜 나갔다.

1942년 이세진은 도평리에 위치한 조그만 산간 마을에 터를 잡고 서관음사(西觀音寺)를 창건한다. 원래 초가가 있던 그곳에 이세진은 법당(法堂)과 객실(客室)한 채씩을 짓고 나머지 터에는 기와공장을 세웠다. 이 서관음사 기와공장은 이세진과 대각사 승가교육을 통해 배출된 청년승려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함께 승속(僧俗)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운영되어졌다. 그리고 여기서 생산된 기와는 이세진이 직접 시장에 나가 판로(販路)를 개척하였다.¹²³⁾

그러나 당시 제주도의 경제적 여건상 판로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기와가 대부분 사찰 신축이나 보수공사를 하는 데 쓰였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그것도 지금처럼 흔한 일이 아니었다. 갑작스런 기와공장의 운영도 의아하지만, 강주로서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던 그가 시장에 나가 직접 판로를 찾아 헤맸다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세진이 이렇게 변모한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세진이 청년승려들에게 남긴 이야기 속에서 확인해진다. 혜관정사 주지 원혜관은 당시의 일을 이렇게 회고했다.¹²⁴⁾

이세진 스님은 정신이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육지 강원에서 강사노릇도 하고 제주에 들어와서 혁신을 같이 주장했던 스님이십니다. 그래서 혁신을 하자면 오늘날까지는 승려가 보시를 받고 생활했는데 이제는 우리도 생산을 해서 보시를 주고 교화 사업을 해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관음사 흙이 좋아 그곳에서 기와공장을 했습니

123) 앞의 원혜관(1998. 6), 장연종(1997. 12), 강대효(1999. 10) 구술채록.
양경월 구술(80세, 제주시 외도동, 1998. 10, 필자 채록).

124) 원혜관은 1917년 생으로 해방이후 1945년 제주불교청년단과 제주승려대회 교무부원을 역임했으며, 1967년에는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을 역임하는 등 근현대 제주불교에 많은 업적을 남겼던 승려이다.

다. 기와를 팔아 학인을 모집해서 불교강원을 하자는 취지로 기와공장을 만들었던 것이었죠. 나도 도왔고 다른 스님들도 들락날락 하면서 도와줬어요.¹²⁵⁾

원혜관은 이세진의 상좌로서, 대각사 제주강원에서 수학하고 서관음사의 불교혁신운동에 직접 참여했던 당시 제주청년 승려 중의 한 사람이다. 그의 증언은 이세진이 제주에 와서 청년승려들에게 어떤 사상을 심어주었고, 특히 서관음사의 창건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서관음사의 목적은 승가내부의 생산 활동을 통해 자립적인 불교강원을 세우고자 한 것이었다. 대각사에서 이루지 못한 승가교육활동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불교계 스스로의 경제적 힘을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러한 서관음사에서의 활동은 이세진이 추구했던 제주불교혁신운동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이세진은 한국불교의 정신을 잇는 전통강원교육과 선농불교사상을 접목시켜 한 사찰의 도량 안에서 승가교육기관인 강원과 생산체제의 틀을 갖춘 공장을 함께 설립하여 새로운 형태의 불교운동을 제시한 것이었다.

선농불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열악한 시대적 환경 속에서 관권과 그에 결부된 재력가 또는 기득권층으로부터 벗어나, 불법을 구하고 수행자 본연의 모습 속에서 교단을 이끌어내고자 한 운동이다. 이것은 법납(法臘)이나 지위, 나이, 재가자나 승려 할 것 없이 모두가 평등한 노동을 통하여 생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 바탕 위에 진정한 수행정신을 진작시키고 청정한 교단을 구축할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었다.

대각사 승가교육의 무산, 전시체제 하에서 일제의 강압정치, 그리고 식민지 종교로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와 불교의 퇴색,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이세진이 선택한 것은 바로 이 청년기에 심취했었던 선농불교의 기본 정신이었다.

그러나 이세진은 이곳 서관음사에서 기존 선농불교운동에서 행해졌던 자급자족의 농사 형태를 취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제주도가 전라도처럼 땅이 비옥하거나 영농 환경이 좋은 조건은 아니라는 데에 일차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같은 백양사포교사로서 함덕 외떨절에서 농촌계몽운동을 펼치고 있었던 신흥연의 경우에는 열악한 함덕의 지리적 환경을 극복함으로써 더욱 확고히

125) 한국불교근현대사연구회, 『22인의 증인을 통해 본 근현대불교사』(선우도량, 2002), 197쪽. 앞의 원혜관(1998. 6, 구술채록).

지역공동체 속에서 신불교운동을 정착시켜낼 수 있었다. 이 신흥연의 농촌계몽 역시 그 뿌리는 선농불교사상에서 출발하였다. 백양사의 주지 송만암은 내장사 백학명과 함께 선농불교운동을 펼친 인물이었으며, 이후 사회 흐름에 편승해 농촌지역을 회생시킬 적극적인 계몽운동에 동참하여 전국 각지에 백양사포교사를 파견하였다. 여기에 함께 동참했던 인물이 백양사포교사인 이일선과 신흥연이었는데, 특히 신흥연의 경우는 제주에서의 주된 활동의 대상을 승가 내부의 문제보다는 농촌지역의 계몽에 두었다는 특이점을 지니고 있다.

이세진은 이러한 신흥연과 이미 친분관계에 있었고, 그가 행한 농촌지역에서의 선농불교운동의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가 농사가 아닌 공장 설립이라는 의외의 카드를 들고 나온 데는 어떤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인가. 이것은 이세진의 불교혁신사상의 맥락에서 함께 파악할 수 있겠다.

그것은 첫째, 서관음사의 취지에서 나타나는 “혁신을 하자면 오늘날까지는 승려가 보시를 받고 생활했는데 이제는 우리도 생산을 해서 보시를 주고 교화사업을 해야겠다고 했어요.”라는 내용에서처럼 보다 근원적인 불교 경제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승가 내부의 경제활동을 통해 외부의 세력에 좌우되지 않는 승가의 독립을 이뤄냄과 동시에, 더 나아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여 그것으로써 제2, 제3의 교화사업을 일으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생각된다.

둘째, 불교계에 보다 적극적인 경제관을 도입하여 농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경제 활로를 모색하자는 의미로 보인다. 특히 재정이 넉넉하지 않았던 서관음사에서 다수의 학인을 수용할 수 있는 불교강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더욱이 기존의 보시와 후원으로 이루어진 경제의 틀을 완강히 거부함으로써 더욱 크게 부담으로 늘어난 경제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농사보다는 공장의 형태가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셋째, 1920년대 중반부터 사회주의 활동가들이 주도했던 반종교운동(反宗教運動)이 기독교·천도교 등의 종교단체들과의 충돌에서 점차 확대되어 1930년대 들어와서는 불교에 대한 비판까지 가해지기 시작한다. 이러한 반종교운동의 영향으로 승려의 생산 활동에 대한 고민과 변화의지가 널리 확산되게 되는데, 이세진

의 공장설립 역시 이러한 변화의 수용으로 판단된다.¹²⁶⁾

넷째, 서관음사를 중심으로 한 도평리 일대는 기와를 굽기에 적합한 토양을 이루고 있었다. 1970년대까지 서관음사 터에는 벽돌공장이 자리하고 있었고, 지금에도 서관음사 터 바로 맞은편에 대규모의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 있다. 즉 이세진은 서관음사에서 가장 적합한 경제활동을 선택하여 기와공장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며, 그것이 농업이건 상공업이건 별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상 서관음사에서 행해진 경제활동과 함께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서관음사에서 전문적인 불교강원 설립의 추진과 별개로 미흡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를 나온 고제선(高濟善)의 경우 1942년 12월부터 1945년 9월까지 서관음사에서 내전(內典) 초등과(初等科)와 중등과(中等科)를 수료한 사례에서 확인이 된다.¹²⁷⁾ 내전 초등과와 중등과는 강원의 교과과정 중 사미과(沙彌科)와 사집과(四集科)에 해당한다.

이것은 서관음사가 창건된 직후 이곳에서 승가교육이 행해졌음을 말하는 것이다. 즉 이세진은 1941년 대각사 승가교육이 좌절되자, 1942년 서관음사에서 새롭게 학인을 모집하여 그 승가교육의 맥을 이어갔던 것이다.

그러나 서관음사의 넉넉지 않은 경제적 여건상 교육활동이 원활하지 못했을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더욱이 이세진은 대각사에서 이루지 못했던 모범적인 불교강원을 새롭게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것은 이세진뿐만이 아닌 제주불교의 숙원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이세진은 침체된 제주불교를 활성화시키고 그의 교육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강원과 공장설립이라는 이중 구조 속에서 유기적인 형태의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승속의 공동체가 주

126) 김광식, 「1930년대 불교계의 반종교운동 인식」,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2000, 40~70쪽.

127) 고제선의 이력을 간단히 살펴보면, “법명 正學 은사 吳利化, 수계 1940년 3월 8일 해남군 대흥사에서 사미계를 受, 1933년 3월 24일 제주공립보통학교 졸업, 1935년 3월 25일 경성고등예비학교 중학부 2년 수료, 1938년 3월 25일 경성전기학교 전기분과 3학년 졸업, 1940년 3월10일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X광선과 수료, 1942년 12월 10일 서관음사에서 李古山(이세진의 법호)화상을 師하여 내전 초등과 수료, 1945년 9월 15일 右 李古山을 師하여 내전 중등과 수료”라고 기록되어 있다. (관음사교무소, 『교적부』).

고제선은 이세진의 법제자였으며, 1945년 12월에 개최된 ‘조선불교혁신제주승려대회’에 서관음사를 대표하여 참석하였다.

체가 되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며 일반민중의 삶 속에 불교의 정신을 깃들게 하였다. 이전 제주불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형태의 제주불교혁신운동은 바로 이세진이 제주불교에 뿌리내리고자 했던 그의 교육사상의 정수였다.

이렇게 이세진의 불교혁신운동의 근거지가 된 서관음사는 근현대 제주불교의 중추세력이었던 오이화, 이일선, 원문상 등이 왕래하며 제주불교의 현안을 논의하던 장소이기도 했다. 이것의 직·간접적인 영향은 1945년 12월에 열린 제주승려대회에서 불전 강원설치, 인재양성 등의 의안이 제기되는 계기를 마련한다.¹²⁸⁾

그러나 근대 제주불교의 후반부를 이끌었던 이세진과 이일선, 오이화, 원문상 그리고 서관음사에서 배출된 학인 고제선 등은 해방 후 4·3에 연루되어 모두 생을 마감하게 된다. 이세진이 1948년 입산을 결심하기 전까지 서관음사에서 이들의 만남은 지속되었는데, 그 속에서 논의된 내용이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속내를 알 길은 없다. 다만 서관음사라는 혁신운동의 근거지가 1940년대를 통틀어 불교계와 제주사회에 어떤 위치로 자리하고 있었는지는 짐작할 수 있다.

1945년 해방 이후 제주사회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과 함께, 뒤이어 등장한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에 의해 풍전등화의 기로에 서게 된다. 서관음사와 이세진 역시 이러한 제주의 긴박한 현실 속에 놓여있었다. 그리고 그 긴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 참여했던 이세진의 죽음과 함께 그가 주창했던 불교운동도 결과적으로 소멸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세진이 서관음사에서 이루고자 했던 자주적인 교육체계와 선농불교사상에 입각한 현실적인 대처방안은 서관음사 활동이 남긴 성과이며 제주불교에게 던진 과제이자 그 본보기가 되고 있다.

128) 『조선불교혁신 전도승려대회 회의록』 『법계』(1945).

V. 제주 4·3사건과 이세진의 濟州佛教革新運動의 좌절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¹²⁹⁾

제주불교 역시 이 4·3사건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어 기존 불교계의 체 기반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린 법난(法難)의 시기였다. 1945년까지 제주불교 관련기록에 나타난 사찰의 수는 대략 100여 곳이다. 현재까지 조사된 결과에 의하면, 4·3사건으로 피해를 본 사찰은 35곳이며, 16명의 승려들의 인명피해도 확인되었다.¹³⁰⁾ 기록에 나타난 100여 곳의 사찰 중에서 약 8 곳의 사찰만이 파옥되거나 불태워지는 피해를 면했는데, 나머지 50여 곳은 그 행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¹³¹⁾ 또한 당시 승려나 사찰의 분위기가 일반 속인들과 함께 비승비속의 모습으로 생활했던 사례가 많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기록에 등재되지 않았던 사찰 수도 적지 않을 것이다.¹³²⁾ 이렇게 본다면 당시 제주불교계의 피해는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증가할 수도 있다. 실제 대대적인 포교활동과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며 성숙된 불교운동을 정착시켜 나갔던 근대제주불교는 4·3이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황폐화되어버렸고, 현재의 제주불교의 뿌리를 상실케 만들었다.

제주불교계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시기는 1948년 11월이다. 이 시기는 사태의 유행기로 제주도 전체를 적으로 간주하고 무제한적인 초토화 작전을 결행한

129) 함옥금, 「‘제주 4·3’의 초토화작전과 대량학살에 관한 연구:미국의 역할과 책임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1쪽.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533~540쪽.
양조훈, 「4·3사건」, 『제주도지』제2권(제주도, 2006), 790~804쪽.

130)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Ⅱ: 제주도편』(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2004), 121~139쪽.

131) 이것은 2004년까지 문헌자료와 구술을 통해 확인한 결과이며, 현재 상대리 사찰을 비롯해 몇 곳의 추가 피해가 확인되고 있어 차후 좀더 상세한 불교계 피해가 조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전소나 파옥의 위기를 모면한 사찰을 나열해보면, 금강사(월계사), 대원사(서림사, 원각사), 백련사, 서극락사(동명사), 연봉사, 용문사, 월성사, 정방사이다.

132) 근대시기 제주승려의 外樣은 현재와는 달리 승속의 차이를 크게 두지 않았다. 김택춘의 증언에서 원문상은 평소 속인의 모습을 하고 속가에서 생활을 했는데, 우연히 법화사에 그와 동행했다가 갑자기 예불을 드린다면 승복을 입고나와 놀랐던 사실을 회고하였다. 또한 김석운 역시 상투를 틀고 한복 입은 모습의 사진을 남겨놓고 있다.

시기였다. 이 시기의 상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1948년 10월 17일 제9연대장 송요찬은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중산간 지역을 적성지역(敵性地域)으로 선포하고 이에 불복하는 자는 폭도배로 인정하여 총살에 처한다는 포고령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초토화 작전의 사전 조치로 제주읍내 지역 유지들에 대한 일제 검속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 출신의 법조계, 언론계, 교육계 인사들이 불법 처형되었고, 그 해 10월 말에서 11월 초순 사이 백여 명의 9연대 군인들과 20명의 경찰들이 희생되었다.¹³³⁾

1948년 11월 17일에는 불법 계엄령이 선포되어 본격적으로 무제한적인 초토화 작전이 전개되었다. 이때부터 하루에 백여 명이 넘는 대량 집단학살이 자행되었으며 제주도 곳곳의 중산간 마을들이 방화되었다.

제주도의 지형상 토벌대가 지척한 5km 이상의 경계는 해안마을을 제외한 제주도 전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었고, 또한 해안마을조차도 무장대를 고립시키기 위해 마을마다 성을 쌓게 하여 주민들을 차단하고 마을 밖 출입도 통제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대부분 산간지역이나 인가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던 사찰의 경우는 자연 피해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다. 토벌대에 의한 소개(疏開)는 사람을 이동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남겨진 시설물도 무장대에게 이용될 우려를 없애기 위해 미리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소각 등의 방법을 통해 폐허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 대부분의 사찰은 소각되거나 파괴되어 폐사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 관음사, 법화사를 비롯한 제주도내 주요 사찰들이 이 시기 토벌대에 의해 불태워지거나 철거당하는 피해를 입었다.¹³⁴⁾

서관음사도 1949년 1월 도평리 마을 집단학살 때 토벌대에 의해 전소되었다. 서관음사에서 제주불교혁신운동을 일으키며 교육활동에 매진하던 이세진은 1948년 봄 입산을 결심하고 무장대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133) 강성현, 「제주 4·3 학살사건의 사회학적 연구:대량학살 시기(1948년 10월 중순~1949년 5월 중순)를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2), 47~53쪽.

134)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제 II:제주도편』, 2004, 125쪽.

1. 이세진의 武裝隊 활동

승속이 함께 참여하여 선농불교운동을 펼치던 서관음사는 앞에서 잠시 언급되었듯이 1945년 제주불교승려대회에 중추세력이었던 오이화, 이일선, 원문상스님 등이 왕래하며 제반 논의를 하던 장소로 활용되어왔다. 이것의 직·간접적인 영향은 1945년 12월에 열린 제주불교승려대회에서 불전강원(佛專講院)설치, 인재양성 등의 의안이 제기되는 계기가 되며, 4·3 발발 직전에는 시국을 은밀히 토로 하던 장소로 쓰이기도 했다.

1947년 서관음사에서는 다수의 승려와 재가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세진 모친의 환갑잔치를 성대히 치르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세진의 이복동생인 고한수가 참석자를 상대로 시국을 비판하는 정치적인 내용의 연설을 하게 된다. 고한수는 당시 민전의 선전부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세진의 4·3 참여에는 이처럼 속가 친족과의 교류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¹³⁵⁾

이세진의 모친인 김운하는 이세진이 출가한 후 이세진의 부친과 이혼하고 새로이 재가하지만, 변함없이 이세진의 후원자로서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인다. 이세진의 성격과 제주 모친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1936년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북 정읍군 내장사 이세진은 제주도 출생으로 재가시부터 부모효성이 적지 않더니 출가 후에 경성 개운사 대원강당에 와서 석전노사의 사교와 대교를 다 마치고 본사(本寺)에 들어가서 은사 한고벽 화상을 시봉하고 있던 바 고벽화상이 채금(債金) 사백여원으로써 근심함을 보고 이세진은 친가에 가서 생모와 상담한 후 위 금액을 융통하여 은사의 빚을 청산하여 걱정을 면케 하였으므로 이 소식을 들은 일반 승려들은 이세진에 대하여 근래에 희유한 효상좌라고 해서 칭송이 자자하다 한다.¹³⁶⁾

1936년 불교시보에 실린 ‘근래 희유(稀有)의 효상좌(孝上佐)’라는 제목의 이 기

135) 장연중 구술(83세, 한림읍 옹포리 옹포포교당, 1997. 12, 필자 채록), 고계생 구술(80세, 제주시 아라동, 1998. 8, 필자 채록).

136) 「근래 희유의 효상좌」 『불교시보』(1936. 10. 1).

사는 대원강원을 졸업하고 내장사로 돌아간 이세진의 근황과 함께 제주도 출생 승려로서 제주와의 인연이 지속되는 관계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관음사가 있던 현 도평리 마을주민들은 불교강원의 강주였던 이세진을 ‘큰스님’이라 기억하면서 동시에 4·3 당시 산속의 대장이었다라고 하여 ‘산왕’이라 부르고 있었다.¹³⁷⁾ ‘산왕’과는 맞지 않는 듯한 위의 이세진의 성품은 여러 증언과 이후 행적에서도 조용하고 말이 없는 인자한 성격의 승려로 묘사되고 있었다.

해방공간에서의 제주불교는 일제강점기 때 친일적 자세에 대한 참회를 통해 자체적인 정화를 실시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며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이것은 불교계가 제주사회 속으로 적극 참여하게 되는 자연스런 계기가 되었으며, 이세진의 경우는 서관음사의 활동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미 승속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마을주민들과 함께 불교혁신운동을 펼치고 있었다.

이러한 관계와 여러 요인들 속에서 이세진의 시국에 대한 인식은 급박했던 4·3의 상황처럼 급변했고 자신의 운명을 단시일 내로 결정해야만 했다. 제주 청년승려들의 스승이자 모범이 되어야 하는 강주의 신분으로서 승복을 벗고 총을 들어야했던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시대상황 앞에서 고뇌하는 그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1948년 봄 이세진은 서관음사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던 마을주민들 중 몇몇의 장정들과 함께 입산을 감행하였다. 이세진의 입산 목적은 무장대 활동을 위한 것이었다. 그의 활동기간은 약 1년이다. 이 시기에 이세진이 활동한 지역과 활동내용에 대한 기록이나 증언은 없다. 다만 막연히 산왕, 무장대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등의 증언뿐이었다.

이세진의 유일한 행적은 의미심장하게도 1948년 겨울 관음사에서였다. 관음사는 근대시기 이세진의 주된 활동장소였으며, 4·3사건 직후 한라산 중턱에 위치해 있던 관계로 무장대와 토벌대 사이에서 많은 피해를 입은 사찰이었다. 1948년 5월에도 토벌대에 의해 이곳에서 기도 중이던 한 승려가 잔인하게 고문을 당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모슬포대대가 11연대로 재편된 이후에도 사고뭉치 대대로 여겨선지 한동안 출동하

137) 홍순녀(75세) 외 도평리 현지주민 구술(제주도 도평동 흥룡사, 2003. 10, 필자 채록).

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토벌작전에 끼게 된 것이지요. 오등리 주둔지를 떠나서 처음으로 간 곳이 관음사였습니다. 아마도 그곳에 공비들이 집결했다는 정보가 있었던가 봅니다. 한밤중에 이 절간을 이중, 삼중으로 포위했습니다. 새벽녘에 공포를 쏘면서 경내로 진입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인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주지스님만이 총성이 울리는 그 와중에도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목탁을 두드리며 불경을 외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¹³⁸⁾

당시 토벌대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에서 서로 관통하는 산악소통작전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관음사에서 무장대를 찾지 못하자 그곳 주지를 끌어내어 마차 위에 몸을 묶고 물고문을 가했다고 한다. 이때의 주지는 이세진과 함께 근대제주불교를 이끌어왔던 관음사 2대 주지 오이화였다.¹³⁹⁾

이후 1948년 10월 17일 해안선으로부터 5km이상 떨어진 중산간 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폭도배로 인정,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이 발표되었고 중산간 부락 주민들에게는 해안마을로 이주하라는 소개령이 발동되었다. 그리고 다음날인 18일, 제주해안은 7척의 함정과 203명의 수병에 의해 완전히 봉쇄되어 제주는 완전한 고립무원의 섬이 되었다.¹⁴⁰⁾

토벌대가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초토화 작전을 전개한 것은 1948년 11월 중순부터 1949년 2월까지이다. 이때 한라산 성판악 부근에는 무장대의 12군단과 8군단이 위치해 있었으며, 그 아래 물장오리 부근에는 훈련소가 있었다. 그리고 이덕구와 행동을 함께 했던 도당 사령부는 ‘삼의악’ 부근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곳은 다름 아닌 관음사와 그 암자인 소림사가 있던 일대를 말한다.¹⁴¹⁾

1949년 초 미군 비밀문서에도 한라산과 그 주변에 숨어 있는 유격대는 상부에

138)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3권(전예원, 1995), 149쪽 康徳潤 증언 재인용.

139) 고헩일 구술(78세, 성산읍 신산리 혜림사, 2000. 9, 필자 채록). 오이화는 당시 고문의 후유증으로 복수에 물이 차서 1950년 7월 10일 사망하게 된다.

140) 양조훈, 「4·3사건」 『제주도지』 2권, 2006, 773~774쪽.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4권(전예원, 1997), 53~56쪽.

141) 당시 조천면당에서 활동했던 이의 증언에 따르면 1948년 겨울에 도당이 관음사에 있었으며 무장대가 주변에 주둔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1948년 겨울에 관음사에는 도당이 있었지. 나는 조천면당에서 연락병을 했었어. 면당에서는 하루에 연락을 세 번 보내.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이들에 한번씩 다니고, 연락은 두명씩 관음사로 가는 거라. 면당에서는 직접 도당에는 못 들어가지. 중간에 연락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가는 거지.”라고 채록되어 있다.(김동만, 「4·3의 격전지 관음사」 『월간제주』, 1992, 80~84쪽).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 II:제주도편』, 2004, 15쪽.

1개의 도당사령부가 있고, 하부에는 각 면 별로 12개의 면당사령부, 그리고 4개의 무장부대가 포진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도당사령부의 인원은 약 50여명으로 극소수의 인원만 무장을 하였고, 그 아래 무장부대는 약 25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¹⁴²⁾

당시 관음사에서 출가하기 위해 행자생활을 하고 있던 김광순의 증언¹⁴³⁾에 따르면 이 도당사령부가 1949년 2월 관음사가 불태워지기 직전까지 경내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증언자가 기억하고 있는 사령부 내의 수뇌부는 15명 안팎이었으며, 인민유격대장 이덕구와 이세진, 그리고 장교로 보이는 몇 명의 군인과 3, 4명의 민간인들이었다. 이들은 관음사에 남아있던 승려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별채에서 생활하며 의식주를 해결했다.

이렇게 관음사는 그때까지 사찰의 기능을 수행하며 6명가량의 승려와 처사, 보살 등이 기거하고 있었고, 산천단에 위치한 관음사의 암자인 소림사를 오가며 사시공양을 드렸다고 한다. 당시 이세진의 신상에 대한 증언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그때가 민간인 3, 4명하고 육지 말 쓰는 군인장교들, 이덕구 등 총지휘본부 사람들이 관음사에 살았었어. 15명 정도가 왔는데 내가 본 것은 그들이 보름 정도 산 후에 관음사가 불에 탔주. 그때 세진스님은 사복을 입고 있었어요. 평상복……. 지휘관인 듯 했어. 권총을 차고 있었는데 그걸 들고 있었던 사람은 몇 안 되어. 이덕구도 들고 있었고……. 군인장교들은 긴 장총을 들어서……. 세진스님이 계서서인지 우리한테 폐를 안 끼쳤어. 밥도 따로 해먹었고……. 양식도 다 들고 와서 따로 다른 처소에서 밥해 먹었어. 세진스님한테는 다들 깎듯했어. 이덕구도 방에 앉을 때 스님한테 먼저 상석에 앉으라고 권할 정도였어.”¹⁴⁴⁾

이세진이 이 수뇌부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여러 정황으로 보아 참모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은 아닌가 짐작해본다.

그러나 이세진의 이러한 관음사에서의 행적은 이후 1949년 2월 대규모 관음사

142) 제민일보4·3취재반, 『주한미군사령부 ‘G-2보고서’(1949년 4월 1일자), 『4·3은 말한다』 2권 (전예원, 1994), 378~388쪽.

143) 앞의 김광순(2003. 7, 구술채록).

144) 앞의 김광순(2003. 7, 구술채록). 당시 관음사에는 12살이었던 김광순과 대지월보살, 강용백스님, 김광순의 아버지(당시 산감의 일을 했던 처사였음), 대명화보살 등이 있었다고 구술함.

전투에서 무장대가 패하고 관음사가 전소되면서 끝이 난다. 토벌대는 1949년 1월 4일부터 실시된 한라산 공습과 함께 관음사 일대에 은신해 있던 무장대를 습격하여 대부분을 소탕하고 그 일대를 점거하게 된다. 그리고 1949년 2월 12일(음력 1월 15일) 관음사를 접수한 토벌대는 돌연 관음사를 방화, 전 건물을 전소시켰다.¹⁴⁵⁾

그리고 관음사를 불태운 직후 그 잿더미 위에 3월 중순경 제2연대 소속 제2대대가 주둔하며 주변을 요새화 하였다. 4·3 무장대의 핵심세력인 도당사령부는 관음사전투에서 대패하면서 3월, 무기를 땅속에 묻고 후일을 기약하며 하산하게 된다.¹⁴⁶⁾ 이세진은 이때 토벌대에게 포로로 잡히며 무장대의 활동을 마감하게 되었다.

이세진이 이렇게 제주 4·3사건에 적극 가담하게 되는 요인은 위에서 살펴본 주변 속가 인맥들과의 관련도 있지만, 그보다는 1945년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제주불교계의 사회 참여활동 속에서 찾을 수 있다.

1945년 해방 직후 중앙 불교계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불교혁신의 움직임은 각 지방으로 확산되어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고, 제주불교계 역시 이러한 혁신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¹⁴⁷⁾ 그것은 1945년 12월 2일과 3일 양일에 걸쳐 개최된 ‘조선불교혁신제주승려대회(朝鮮佛教革新濟州僧侶大會)’로 표출되었는데, 각 사찰의 대표 67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음사 포교당인 대각사 대웅전에서 열렸다.¹⁴⁸⁾ 여기서 제주불교는 기존 타 지역에 소속된 말사 위치에서 벗어나 제주도 독자적인 제주교구를 성립시켰으며 과거 친일행적을 반성하고 자주적인 불교발전을 기할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였다.

이 대회에 상정된 의안을 살펴보면, 건국정신(建國精神) 진작, 사찰정화(寺刹淨

145) 관음사 방화는 당시 제주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증언을 보면, “관음사가 불에 별경게 타오르자, 갑자기 하늘이 깜깜하게 어두워지고 맑았던 하늘에 대같은 산비가 퍼붓기 시작했다. 대웅전이 불에 타고 이곳에 안치되어 있는 300여년 된 목불에 불이 붙자 부처가 분노하였다. 목불상은 불에 타면서 분노하여 몸체가 격렬하게 떨리고 눈이 별경게 되어 번쩍번쩍 빛을 내더니만 ‘핑’하는 소리와 함께 스스로 폭발하였다. 하늘마저 격노하여 불을 붙인 토벌대에게 천벌을 내렸다.”(제주도, 제주4·3연구소, 『제주4·3유적 I』, 각, 2003, 147쪽).

146)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346쪽.

147) 김광식, 「해방 직후 제주불교계의 동향」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2000, 215~249쪽.

148) 불교청년단, 「조선불교혁신 전국승려대회 회의록」 『법계』(1945).

化), 의식개혁, 법려품위(法侶品位) 향상, 사찰재산 정리, 대중불교 실현, 교구자원(敎區資源) 확립, 불전강원(佛專講院) 설치, 인재 양성, 모범총림(模範叢林) 창설, 교무원(敎務院) 운영, 중앙교무원 대표 파견, 포교기관 월간지 발간 등이었다.

특히 이중에서는 당시 중앙 불교계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었던 승려의 대처 육식 금지, 사찰경제 공개 운영 등의 문제에서 합의를 도출해냈으며, 불교 전문강원의 설립, 모범총림의 건설 등 제주불교가 독자적인 위상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는 중요 사안들을 결정하였다.

제주불교는 이 승려대회를 통해 그간 근대시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좌절을 거듭했던 제주불교의 단합과 혁신의 바람을 새로운 해방공간에서 이루어내고자 했던 것이다.

이와 함께 이 대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던 이일선, 오이화, 원문상 등의 활약도 제주불교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1920년대 제주 신불교운동을 펼쳤던 원문상의 경우는 1945년 11월 30일 개최된 ‘조선불교혁신 제주청년단대회(朝鮮佛教革新濟州靑年團大會)’에서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고,¹⁴⁹⁾ 곧바로 제주승려대회가 성사되기까지 중앙 불교계와의 연계를 맡아 활동하면서 제주승려대회 임시부의장 및 제주교무원의 총무과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원문상은 야학운동을 지속해오던 가운데 1947년 9월 서귀포 중문중학원(中文中學院) 교사로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중문중학원은 그가 운영했던 야학장소인 하원리의 중문면 소재지에 위치한 비인가 사설 중학교과정의 교육기관이다. 이 중문중학원은 현 중문중학교의 전신으로, 당시 중문면에서는 유일하게 중학교 과정을 교육하던 곳이다. 이곳의 설립자는 원문상의 동향(同鄉) 후배이며 야학동지였던 이경주이며, 1940년대 후반 목조 건물로 신축하고 1950년 4월2일에 문교부로부터 ‘부문중학교’라는 교명의 정식 중학교로 인가받았다.¹⁵⁰⁾ 원문상은 여기서 후학들을 양성하며 승려이자 교육자로서 제주사회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승려대회의 준비위원장과 제주교무원의 교무과장을 맡았던 이일선의

149) 『제주도불교청년단결성대회회록』 『법계』(1945).

150) 조명철 구술(73세, 제주도 일도동, 1999. 6, 필자 채록). 중문중학원은 1945년 10월 4일에 개설되었다.

경우는 불교계를 대표해 제주사회 참여활동을 가장 두드러지게 펼쳤던 인물이다. 그는 1947년 2월 23일 ‘제주도 민주주의민족전선 결성대회’에서 사회를 맡아 결성식을 치른 후 안세훈, 현경호와 함께 민전 공동의장에 선출되었다.¹⁵¹⁾ 그리고 ‘3·1사건 대책위원회’ 위원장¹⁵²⁾을 역임하는 등 불교계뿐만이 아니라 제주사회에서도 매우 명망 있는 인사였다. 이러한 이력을 가진 이일선은 이세진이 제주에서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4·3사건의 참여로 인해 사망하기까지 이세진의 후원자이자 동반자로서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이러한 둘과의 관계에서 볼 때 이세진이 4·3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는 배경에는 이러한 이일선이 직·간접적인 영향이 깔려있었으리라 짐작해볼 수 있겠다.

또한 앞서 이미 언급되었지만 해방이후 서관음사는 제주불교승려대회의 중추 세력이었던 오이화, 이일선, 원문상 등이 빈번하게 왕래하며 제주불교의 앞날을 고민하고 논의하던 장소였다.¹⁵³⁾ 이러한 근대제주불교를 이끌었던 주역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서관음사에서 이루어진 승속의 지식인들의 시국토론 분위기는 이세진으로 하여금 풍전등화의 기로에 놓인 제주의 문제에 적극 동참하게 만든 계기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제주불교계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함께 이세진의 혁신사상 즉, 승과 속의 경계를 떠나 대중의 삶 속에서 불법을 찾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려 했던 그의 사상이 제주4·3이라는 절박한 현실 앞에서 그로 하여금 무장대의 선봉에 서게 했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으리라 짐작해 본다.

2. 제주불교계의 피해와 佛敎革新運動의 좌절

1949년 1월 3일 아침, 경찰과 군인들은 갈옷을 입고 무장대인 것처럼 모습을 꾸민 후 주민들에게 모두 도평국민학교로 모이라고 명령했다. 주민들은 무슨 영

151) 「각종 사회단체 참가하고 民戰 성대리 결성」 『제주신보』(1947. 2. 26.)

152) 「4·3은 말한다」 『제민일보』(1991. 10. 22.)

153) 양경월 구술(80세, 제주시 아라동, 1998. 10, 필자 채록).

문인지 모른 채 의아해 하며 국민학교 운동장으로 집결했다. 주민들이 대부분 모인 것을 확인한 토벌대는 곧 사방에 기관총을 설치, 주민들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하였다. 80여명이 현장에서 사살된 이 도평리 주민 집단학살 사건에서 용장사 주지인 백인수(白仁守)도 희생되었다.¹⁵⁴⁾

학살을 끝낸 토벌대는 도평리 산간지역으로부터 가옥을 방화하기 시작하여 아랫마을로 불길을 확산시켰다. 이때 처음 방화된 건물이 서관음사였다.

제주불교가 토벌대에 의해 대거 피해를 당하기 시작한 때는 1948년 11월경이다. 현재 조사된 피해 사찰은 35개소이며, 사망한 승려의 수는 16명에 달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제주4·3 시기 사찰별 피해현황¹⁵⁵⁾

지역	사찰명	소재	피해내용	가해자 및 시기
제주시	관음사	제주시 아라동	불상 몇 점 제외하고 사찰 전소(全燒), 주지 오이화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	토벌대, 1949년 2월 12일(1950년 7월 10일 사망)
	대각사	제주시 이도동	원문상 사망	1950년 8월경 예비검속으로 사망
	백화사	제주시 아라동	사찰 파옥	토벌대, 1948년 12월 21일
	불탑사	제주시 삼양동	대웅전, 요사 등 대부분 파옥, 주변일대 나무 잘림.	토벌대, 1948년 11월경
	서관음사	제주시 도평동	사찰 전소 이세진, 상좌 고제선 사망	토벌대, 1949년 1월 3일(이세진 1949년 7월 9일경)
	석굴암	제주시 노형동	사찰 전소	토벌대, 1948년 11월경
	소림사	제주시 아라동	사찰 전소	토벌대, 1949년 2월경
	용장사	제주시 도평동	사찰 전소 주지 백인수 사망	토벌대, 1949년 1월 3일
	원당사	제주시 삼양동	목조 대웅전 외 사찰 파옥	토벌대, 1948년 11월경

154)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426쪽.
앞의 홍순녀(2003. 10, 구술채록).

제주시	월정사	제주시 오라동	사찰 전소 김덕수 사망	토벌대, 1948년 12월 10일과 1949년 2월 23일, (1948년 12월 16일 사망)
	정광사	제주시 일도동	이일선 사망	예비검속으로 1950년 사망
	고관사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강제매각	조천읍 면장, 1948년 11월경
	고운사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사찰 파옥	토벌대, 1948년 11월경
	광룡사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사찰 파옥	토벌대, 1948년 11월경
	귀이사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사찰 전소	토벌대, 1948년경
	극락사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사찰 전소	토벌대, 1948년 10월경
	금봉사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사찰 전소, 법당 일부 남음, 주지 이성봉 사망	토벌대, 1948년 11월 21일 소각 및 사망
	금천사	제주시 애월읍 어도리	사찰 전소	토벌대, 1948년 11월경
	묘음사	제주시 애월읍 어음2리	불상 1점과 일부 탕화 제외하고 사찰 전소	토벌대, 1948년 11월경
	백양사북 촌포교소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사찰 전소, 주지 김유신 사망	토벌대, 1949년 1월 27일 전소 및 사망
	보광사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사찰 파옥, 성명 미상 스님 사망	토벌대, 1948년 12월 5일 전소 및 사망
	본원사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법당 일부 소각, 불상과 불구 도난	무장대, 1948년 8월경
	수덕사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사찰 소각	토벌대, 1949년 2월경
	수산사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사찰 파옥, 주지 고정선(이세진 상좌) 사망	토벌대, 1949년 초
	외곶절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사찰 전소, 주지 신흥연 사망	1948년 11월 중순경
은수사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사찰 폐허, 주지 고인봉 수차례 투옥 후 지명수배 받고 일본으로 피신.	1950년 예비검속으로 이일선 사망 후 일본으로 피신.	

서귀포시	법화사	서귀포시 하원동	사찰 전소(재건 후 한국전쟁 때 다시 피해:1952년 2월 13일 군에 의해 제3숙영지로 이용되다가 1953년 9월 21일 해산되면서 파옥)	토벌대, 1948년 11월경
	용주사	서귀포시 호근동	불상과 탕화 제외하고 사찰 전소	토벌대, 1948년 11월경
	원만사	서귀포시 하원동	사찰 전소, 기거 중이던 승려 양홍기 사망	토벌대, 1948년 11월경
	월라사	서귀포시 신호동	사찰 파옥, 창건주 변옥희와 딸 사망	토벌대, 1948년 11월경
	호촌봉 암자	서귀포시 하효동	사찰 파옥	토벌대, 1948년 11월경
	단산사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사찰 일부 파옥, 주지 강기규 사망	토벌대, 1948년경
	두수사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사찰 일부 파옥	토벌대, 1948년 11월경
	선광사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불상 1점 제외하고 사찰 파옥 및 소각	토벌대, 1948년 11월경
	봉주사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사찰 파옥	토벌대, 1948년 12월경

이 4·3 당시 제주불교의 피해 사례는 현재 복원되거나 이전되어 당시 사찰의 내력을 찾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1940년대 후반까지 존립했던 대부분의 사찰의 행방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인명피해도 사찰의 피해에 부수적으로 조사된 결과이기 때문에 재가자나 기타 사찰과 관련된 총체적인 피해조사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 조사된 위의 사례만 보아도 제주불교의 피해가 어느 정도 심각했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3을 겪은 후 일본으로 건너간 조천만세운동의 독립운동가 김순탁의 딸 김동일의 경우는 1948년 겨울 제주시 경찰서에서 취조를 받을 때 승려들의 피해를 전해 들었으며, 직접 고문을 받고 있던 승려 5명 정도를 목격했다고 한다.¹⁵⁵⁾ 이처럼 근현대 제주불교를 이끌었던 주역들이 대거 희생되면서 4·3사건을 거치

155) 한금순, 「한국전쟁 시기 제주도 불교계의 피해 현황과 분석」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Ⅱ:제주도편』, 121~139쪽

156) 김동일 구술(72세, 日本 東京都, 2005. 7, 필자 채록).

고 난 후의 제주불교는 물적 인적자원이 고갈된 폐허상태가 된다.

그렇다면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1909년 의병항쟁을 일으키고 관음사와 법정사 창건에 주된 역할을 했던 독립운동가 김석윤의 경우, 근대시기 최초의 제주선원을 창설하고 1945년 조선불교 혁신 제주승려대회에서는 고문을 맡아 활동하며 제주불교계의 노장으로서는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다. 그런데 1948년 12월 10일 제주선원이 있던 월정사가 토벌대에 의해 불태워졌고, 그곳에 기거하던 그의 아들 김덕수가 인근 박성내에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희생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7월에 맏아들 김성수가 관음사포교당에서 사망한 뒤 김석윤도 1949년 8월 26일 입적하게 된다. 그리고 뒤이어 뒷수습을 모두 마친 두 번째 아들인 김인수가 그해 겨울 차가운 방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3명의 아들을 출가시켰던 김석윤의 출가 가족들은 이 시기에 모두 생을 마감하게 된다.

그리고 1930년대 함덕에서 신불교운동을 펼쳤던 신흥연도 토벌대에 의해 희생되었다. 이일선, 이세진과 함께 백양사에서 파견된 포교사로 함덕에 외톨이를 창건한 그는 함덕의 마을주민들과 함께 밭을 일구며 새로운 농사법을 전수하였다. 외톨이는 초등학교의 소풍장소로 이용될 정도로 방문객이 끊이지 않았던 주변 지역에서 유명한 사찰이었으며 신흥연 역시 마을주민들에게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던 승려였다.

그런데 1948년 11월경 함덕리를 비롯하여 조천면 일대에서 연일 자행되는 토벌대의 무차별 학살이 계속되자 주민들의 대규모 입산사태가 벌어졌고, 외톨이의 신도들도 무장대에 가담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낮에는 군인이, 밤에는 무장대가 찾아오는 이중생활을 해야 했는데, 신흥연은 배고픈 무장대를 위해 미리 솔마다 가득히 밥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그러다가 혹 경찰이 오는 기척이 들리면 짚을 덮어 감추고는 변소 속에 들어가 몸을 숨기는 생활을 해왔다.

이런 가운데, 1948년 11월 중순경 외톨절 법당 내에 은신해 있던 무장대 수십 명이 토벌대에 의해 발각이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토벌대는 곧바로 신흥연을 법당에서 200미터 떨어진 밭으로 끌고 가 그곳의 유자나무에 몸을 묶고는 뒤따라온 마을 민보단원들에게 총을 쥐어주며 사살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민보단원

들은 차마 신흥연을 쓰지 못하고 다른 곳을 향하여 일제히 총성을 날렸다. 이에 격분한 토벌대는 민보단원들에게 다시 죽창을 쥐어주며 신흥연을 찌를 것을 강요했다. 결국 민보단원들은 울부짖으며 그를 죽창으로 찢러 사망케 하였는데, 이 일은 현재에도 함덕리 노인들의 입을 통해 구전되어 오고 있다.¹⁵⁷⁾

그 외에도 마을 목동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토벌대에 의해 금봉사 경내에서 수십 발의 총탄에 맞아 사망한 금봉사 주지 이성봉, 고문 후유증으로 1950년 사망한 관음사 주지 오이화, 그리고 예비검속으로 붙잡혀 사망한 이일선과 원문상 등 밝혀진 인명피해만으로도 당시 제주불교계의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4>에서 밝힌 가해자의 대부분은 군경으로 구성된 토벌대이며, 그중 함덕본원사(本願寺)의 경우는 무장대에 의한 피해 사례였다. 그곳은 토벌대에 의해 사찰이 전소되고 주지가 현장에서 사살되는 외팔절과 한 마을에 위치해 있던 사찰로, 1937년 일본불교 종파인 정토진종 대곡파(淨土眞宗 大谷派) 포교당으로 창건된 곳이었다. 본원사의 주지는 김원종이었는데, 당시 아들 김병택이 외도지사 주임을 맡고 있었고 이후 제주비상경비사령부 산하 특별수사대 제1반장을 역임할 정도로 위세가 높았었다.

이런 관계로 본원사는 무장대의 타격대상이 되어 몇 차례 방화될 위기에 처했는데 번번이 실패로 끝나게 된다. 그러던 1948년 8월경 다시 본원사를 기습한 무장대는 방화를 포기하고 대신 불상과 불구를 훔쳐가게 되는데, 이들 무장대는 그들의 은신처였던 동굴에 이 불상을 모셔놓고 예불을 드렸다고 전한다.¹⁵⁸⁾

이렇듯 불교계의 피해가 여러 곳으로 확산되면서 초도화되어가던 시기에 이세진 역시 1949년 봄 토벌대의 포로로 잡혀 끌려오게 된다. 이때 외도리에서 이세진을 우연히 목격한 양경월은 당시 모습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157) 신흥연의 죽음은 곧바로 조천리에 거주하고 있던 가족들에게 알려졌다. 무장대로 보이는 사람들이 야밤에 몰래 집 담벼락 너머로 편지를 묶어놓은 돌맹이를 던졌는데, 그 편지에는 토벌대가 떠난 이후에도 신흥연은 숨을 쉬고 있었으며, 8~9시간 동안 가부좌를 한 채 었불하다가 돌아가셨다고 적어놓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임종을 지켜본 무장대는 신흥연의 시신을 고구마 줄기로 감아 숨겨놓았고 그 위치를 소상히 편지에 기록해 놓았다.

외팔절은 그 후 11월 20일경 토벌대에 의해 전소되었다. 이때 외팔절과 인접해 있는 대흘리도 함께 방화되어 마을 전체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참변을 겪었다.

158) 김병석(76세)·김춘선(73세) 구술(구좌읍 함덕리, 2003. 7, 필자 채록).

“다시 졸업증서를 가지러 집에 들렀다가 외도초등학교 앞 정류소에 서 있었는데, 세진스님이 물로 취조를 받았는지 뒷덜미가 젖어 있고 수갑 찬 채로 잡혀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던지.”¹⁵⁹⁾

이세진이 고문을 받았던 곳은 제주시에 있는 주정공장의 임시수용소였다.¹⁶⁰⁾ 이세진은 이곳에서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고문을 당하며 몇 달째 수용생활을 하였는데, 총살되기 직전 가까스로 이일선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죽음을 모면하게 된다. 당시 이일선도 군경에 주목을 받고 있었으나, 육지에서 파견된 장교 중 그의 상좌 김우송을 만나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세진의 석방도 이 김우송의 도움에 의한 것이었다.¹⁶¹⁾

그러나 석방의 안도도 잠시, 이세진은 1949년 7월 경 관음사에서 아침식사를 하던 중 사복경찰에 의해 붙잡혀간 후 결국 총살되면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된다. 당시 이세진의 나이는 40세였다. 이세진의 죽음으로 인해 그가 제주불교에 남기고자 했던 다양한 노력들, 그것의 총집합체인 제주불교혁신운동은 제주4·3 사건이라는 절벽에 가로막히어 결국 좌절되기에 이른다.

159) 앞의 양경월(1998. 10, 구술채록).

160) 앞의 김광순(2003. 7, 구술채록).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자료집Ⅱ』 미국자료편 5편(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135쪽.

위의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521쪽.

김광순은 다른 승려들과 함께 주정공장에 갇혀있는 이세진을 면회했다. 그때 주정공장에는 2,000여명의 사람들이 잡혀있었다고 증언하였는데, 1949년 6월 17일에 주한미대사관이 보낸 문서에도 같은 숫자의 수감자가 있었다고 기록해 놓고 있다. 또한 당시 주정공장의 임시수용소에서는 군부대 정보과 소속 군인들과 사찰계 형사가 취조를 담당하였는데 혹독한 여러 고문방법이 행해졌다고 한다.

161) 앞의 김평수(1998. 1, 구술채록). 김우송은 1945년 11월에 열린 제주도불교청년단결성대회에 참석하여 이후 불교청년단원의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 열린 ‘조선불교혁신 제주승려대회’에도 참석하여 임시집행부에서 査察직을, 그리고 제주교무원에서 監察직을 각각 맡아 활동하였다.

VI. 맺 음 말

이세진의 제주불교혁신운동은 일제강점기 하에서 식민지 종교가 안고 있는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불교의 전통사상을 계승해나가려 했던 근대 한국불교운동의 흐름 중 제주지역에서 표출된 혁신운동이었다.

일제강점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불교혁신운동의 경우 대개 항일의 시각에서 연구되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이세진의 경우에는 그보다도 식민시대의 승려로서 겪었던 현실적인 삶의 문제, 강압적이고 부조리한 측면의 불교 정책적인 문제, 그리고 한국불교의 맥을 이어나가려는 고단한 불교운동가로서의 문제 등이 오히려 그의 삶의 중심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필자는 제주불교혁신운동의 논점을 항일적 시각보다는 이세진에 의해 결실을 맺게 되는 불교혁신운동과 그 주변에서 함께 꽃피웠던 근대 제주불교의 다양한 운동의 흔적들에 주목하여 서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세진의 생애사를 통해 제주불교혁신운동과 근대 제주불교사의 흐름을 고찰하였는데, 이제까지 논의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1910년부터 1949년까지 이세진의 전반적인 생애를 통해 출가배경과 사상적 영향, 그리고 교육사상가로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다루었다. 그중에서 필자는 이세진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백학명과 박한영의 불교운동에 주목하였다. 유년시절부터 인연이 되어 출가수행자로 입문하게 되는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던 백학명의 경우는 이세진에게 다양한 교육의 형태와 선농불교사상을 심어 주었다. 그리고 1930년대에 두 번째 수학의 길을 걸었던 박한영의 대원강원에서 불교교육 혁신사상의 영향을 받으며 독자적인 교육사상가로서 성장하게 되는 실질적인 발판이 되어주었다.

둘째, 이세진이 독자적인 교육사상가로서 활동을 시작했던 1934년 내장선원에서의 교육활동에 대해 고찰하였다. 내장선원은 선과 교학, 농사와 가무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시도했던 새로운 형태의 선원이었다. 내장선원의 목표는 선농불교

로서 백장청규의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승가자립의 기본정신을 내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하루의 교육 일정을 학문과 노동, 좌선으로 정하였으며, 그 밖에 구비시가 형태의 불교가사를 창작하거나, 불교음악인 범패를 학습하는 등의 기존 선원과 차별화된 교육활동을 펼쳐왔다. 이세진은 이 내장선원에서 3년간 강사로서 활동하였다.

셋째, 전통강원의 개혁운동이 시도되었던 1938년 표훈사 중향강원에서의 교육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향강원은 사미, 사집, 사교과로 구성되어 있었고, 표훈사 선승들이 대거 입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3, 40대의 총 17명의 학인이 수학하고 있었다. 여기서 특기할 점은 강주 이세진 외에 외과강사가 추가로 배치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외과란 근대 신학문인 지리, 역사, 경제, 철학 등의 교과목을 일컫는다. 이것은 1920년대 말 전통강원 내에서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근대식 교육을 담아내고자 했던 불교교육의 개혁운동이 중향강원에서 이뤄지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해주는 것이었다.

넷째, 이세진이 제주에서의 활동을 결심하고 귀향한 후 관음사포교당인 대각사에서 본격적인 교육활동을 실시하게 되는 제주강원에서의 승가교육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근대시기 제주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이 승가교육은 당시 제주불교계의 절실한 당면과제였다. 1920년대부터 활발한 포교활동으로 양적 발전을 이뤄내며 꾸준히 출가 승려들을 배출해내던 제주불교는 그들을 교육시켜낼 교육기관이 부재했던 까닭에 제주승려들이 미신적 경향으로 치우치는 문제에 대해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본말사제도 하에서 제주의 사찰과 승려들이 타 지역의 본사에 개별적으로 소속됨으로서 행정적인 마찰과 함께 여러 갈등요소를 낳게 되었는데, 이러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제주불교를 하나의 구심체 속에 통일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제주승가교육은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1930년대 초부터 추진되었고, 1939년 전통강원의 강주로서 자격을 갖춘 이세진이 부임하면서 비로소 교육기관으로서의 틀을 갖춘 제주강원을 출범시키게 된 것이다. 제주강원에는 사미, 사집, 사교, 대교과의 교과과정이 있었으며 여기서 배출된 학인의 수는 대략 50여명에 달하였다.

다섯째, 1942년 서관음사를 근거지로 승가교육과 기와공장을 통한 생산 활동을 병행 추진하여 보여주었던 제주불교혁신운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세진은 대각

사 제주강원에서 이루지 못한 승가교육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관음사를 창건하고 그곳에 기와공장을 세워 승가 스스로의 경제적 힘을 원천으로 삼아 불교 강원을 세우고 교육활동을 펼쳐 나가고자 하였다.

이세진의 제주불교혁신운동은 기존의 의존적 구조 하에 놓여있던 제주불교계의 제 기반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출가수행자도 농업뿐만 아니라 상공업 등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으며, 그에 따른 경제적 자립을 통하여 관권 혹은 외부의 세력에 좌우되지 않는 포교 및 교육활동을 가능하게 했던 현실적인 실천방안이었다.

이세진의 이러한 혁신사상의 바탕에는 유년시절부터 출가 이후 그의 행적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던 근대 선농불교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선농불교는 일반 민중과 함께 생활 속의 불교를 지향하며 평등한 생산구조 속에서 노동을 통한 수행정신을 고취시켜 승·속이 함께 문제의 해법을 찾아나가는 불교개혁운동이었다. 이세진은 이 선농불교사상에 한국불교의 정신을 잇는 전통강원 교육을 연계시켜 한 사찰의 도량 안에서 승가교육기관인 강원과 생산체제의 틀을 갖춘 공장을 함께 설립 운영함으로써 기존 불교계 내에서는 찾을 수 없는 매우 독특한 형태의 불교혁신운동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근대 한국불교에서 사찰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농업이 아닌 공장을 설립했다는 것은 거의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는 이세진에게 있어 제주불교혁신을 위한 대안이 단지 기존의 불교운동을 그대로 답습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비록 소규모의 기와공장이지만 이세진이 사찰 내 공장을 설립한 배경에는 보다 근원적인 불교 경제관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고 판단된다. 즉 이것은 승가경제체제의 독립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경제적 이윤을 통해 승가가 주체가 되는 제주사회의 교화사업을 일으키고자 시도된 운동이라는 것이다.

여섯째, 1948년 이세진의 마지막 생애에 해당하는 제주4·3사건의 무장대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세진은 1949년 1월경 이덕구가 이끄는 인민유격대 도당사령부의 수뇌부와 함께 관음사를 찾아오면서 그의 무장대에서의 활동이 일부나마 드러나게 된다. 당시 관음사에 들어왔던 이들 수뇌부는 15명 안팎의 인원으로, 이덕구와 이세진, 그리고 장교로 보이는 몇 명의 군인과 3, 4명의 민간들이었다. 그들의 일부는 권총과 장총 등으로 무장하고 있었지만 관음사에 이렇다할 피해

를 끼치지 않는다고. 그리고 의식주는 별채에서 따로 생활하며 자체적으로 해결하였다.

당시 관음사는 6명 가량의 승려와 처사, 보살 등이 기거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관음사의 산내 암자인 소림사를 오가며 사시공양을 드리는 등 평상시와 같은 사찰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세진이 도당사령부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참모의 역할이었던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또한 이세진은 당시에도 여전히 무장대원들에게 승려로서 예우를 받고 있었는데, 이덕구의 경우 방에 들어가 앓을 때 이세진에게 먼저 상식을 권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고 전한다.

이상과 같이 이세진의 제주불교혁신운동을 비롯한 그의 대표적인 활동모습을 간략히 되짚어 보았다. 이와 함께 이세진의 활동에 대해서 당시의 불교계와 제주사회에 어느 정도의 성과와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져다주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평가가 뒤따라야 하겠지만, 이세진을 급작스럽게 좌절의 길로 향하게 했던 제주4·3사건과 이후 1960년대 후반 정화운동까지 겹치면서 쉽사리 결론지을 수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하여 이세진을 비롯한 근현대 제주불교 활동가들이 추구했던 바가 무엇이었는지 그들의 활동을 통해 제주에 남긴 업적과 의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필자가 현 제주불교에 제언하고 싶은 바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로 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세진을 비롯한 과거 제주불교운동가들이 고민하고 노력해 왔던 활동과 업적을 이어받아 현재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고 실천해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근대시기 주요 현안이었던 제주불교의 통일과 화합, 독자적인 역량과 위상 정립 등 이세진의 못 다 이룬 활동은 현 제주불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실천방안들을 그대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사진 1> 대각사 제주강원 비구수계식
(1941년 초과일에 관음사 포교당인 대각사에서 촬영, 이세진-원 표시)

참고 문헌

1. 문헌자료 및 금석문

1) 문헌자료

- 李一鮮, 「朝鮮佛教青年諸君에게」 『朝鮮日報』, 大正九年七月一日(1920. 7. 1.)
- 李一鮮, 「朝鮮佛教青年諸君에게 續」 『朝鮮日報』, 大正九年七月二日(1920. 7. 2.)
- 「佛教留學生講演會」 『東亞日報』, 大正十年八月九日(1921. 8. 9.)
- 「佛教學生學友總會」 『東亞日報』, 大正十一年三月九日(1922. 3. 9.)
- 「濟州佛教協會」 『東亞日報』, 大正十三年十一月三十日(1924. 11. 30.)
- 「濟州佛教協會」 『佛教』第六號, 大正十三年十二月(1924. 12.)
- 龜山人, 「瀛州紀行」 『佛教』第六號, 大正十三年十二月(1924. 12.)
- 「楡岾寺의 專門講院」 『佛教』第七號, 大正十四年一月(1925. 1.)
- 「濟州佛教協會」 『朝鮮佛教』第十號, 大正十四年二月十一日(1925. 2. 11.)
- 「濟州少年聯盟會」 『東亞日報』, 大正十四年十月三日(1925. 10. 3.)
- 「震河老師略歷」 『佛教』第十七號, 大正十四年十一月(1925. 11.)
- 「佛教擴張計劃」 『每日申報』, 大正十五年七月二十六日(1926. 7. 26.)
- 「開運에 開講」 『佛教』第二十八號, 大正十五年十月(1926. 10.)
- 「只今부터는 摩訶衍의 禪院門이 八字로 打開될 듯」 『佛教』第三十號, 大正十五年十二月(1926. 12.)
- 圓慧居士, 「濟州佛教의 由來」 『佛教』第三十二號, 大正十六年二月(1927. 2.)
- 「濟州佛教協會의 現況」 『朝鮮佛教』第三十六號, 大正十六年四月(1927. 4.)
- 「漢羅山南에 七日精進有島以來의 未曾有事」 『佛教』第三十六號, 大正十六年六月(1927. 6.)
- 「朝鮮佛敎學人大會發起人承諾開催」 『佛教』第四十四號, 大正十七年二月(1928. 2.)
- 「內藏禪院一瞥」, 『佛教』第四十六,七合號, 昭和三年五月(1928. 5.)
- 「朝鮮佛教禪敎兩宗僧侶大會會錄」 『佛教』第五十六號, 昭和四年二月(1929. 2.)
- 「內金剛佛敎會創立」 『佛教』第五十八號, 昭和四年四月(1929. 4.)
- 「南遊求道禮讚」 『佛教』第六十三號, 昭和四年九月(1929. 9.)

- 「開運寺講院에서 朝鮮語講座」『佛教』第六十八號, 昭和五年二月(1930. 2)
- 「洪月初和尚의 慈善」『佛教』第六十八號, 昭和五年二月(1930. 2)
- 「各地成道紀念法會 內藏寺」『佛教』第六十八號, 昭和五年二月(1930. 2)
- 白桓陽氏, 「漢羅山巡禮記(續)」『佛教』第七十一號, 昭和五年五月(1930. 5.)
- 「濟州佛教臨時大會開催」『每日申報』, 昭和六年十二月六日(1931. 12. 6.)
- 「京城開運寺佛教專門講院大圓會忘年講演會開催」『佛教』第壹百五號, 昭和八年三月(1933. 3.)
- 「金剛山摩訶禪院良規 今夏安居早日 施行決定」『佛教』第壹百六號, 昭和八年四月(1933. 4.)
- 「布教所設置屆」『金剛山』第六號, 昭和十一年二月(1936. 2.)
- 「大本山大興寺巡廻布教狀況」『佛教時報』第十四號, 昭和十一年九月一日(1936. 9. 1.)
- 「近來希有의 孝上佐」『佛教時報』, 昭和十一年十月(1936. 10. 1.)
- 「文學淵氏招請大講演」『佛教時報』, 昭和十一年十月一日(1936. 10. 1.)
- 「濟州島法華山林大作佛事」『佛教時報』第二十號, 昭和十二年三月一日(1937. 3. 1.)
- 「大本山大興寺濟州城內布教所彌陀山林法會」『佛教時報』第二十號, 昭和十二年三月一日(1937. 3. 1.)
- 「濟州島翰林布教堂落成兼奉佛式」『佛教時報』第二十號, 昭和十二年三月一日(1937. 3. 1.)
- 「濟州島 法華寺의 祈願祭」『佛教時報』第二十八號, 昭和十二年十一月一日(1937. 11. 1.)
- 「濟州島觀音寺大阪出張大覺布教堂奉佛式」『佛教時報』第二十九號,
昭和十二年十二月一日(1937. 12. 1.)
- 「祈願祭及慰靈祭舉行」『佛教時報』第三十號, 昭和十三年一月一日(1938. 1. 1.)
- 「謹賀新年」, 「出征皇軍戰死者慰靈大法要」『佛教時報』第三十號, 昭和十三年一月一日(1938. 1. 1.)
- 「濟州島三陽里白羊寺布教堂의 百日祈禱回向」『佛教時報』第三十一號,
昭和十三年二月一日(1938. 2. 1.)
- 奉先寺 弘法講友會, 「全朝鮮講院學人名簿」『弘法友』第一輯, 昭和十三年三月(1938. 3.)
- 「大本山仙巖寺濟州布教所地藏契組織」『佛教時報』第三十四號, 昭和十三年五月一日(1938. 5. 1.)
- 「任濟州西歸浦分局長」『佛教時報』第三十四號, 昭和十三年五月一日(1938. 5. 1.)
- 「西歸布教堂의 袈裟佛事」『佛教時報』第三十五號, 昭和十三年六月一日(1938. 6. 1.)
- 「大本山白羊寺濟州島西歸浦布教堂의 釋尊降誕記念式舉行」『佛教時報』
第三十六號, 昭和十三年七月一日(1938. 7. 1.)
- 「李一鮮師의 招講」『佛教時報』第三十七號, 昭和十三年八月一日(1938. 8. 1.)
- 「中央佛專巡講隊의 巡講狀況」『佛教時報』第三十八號, 昭和十三年九月一日(1938. 9. 1.)

- 「濟州島濟州禪院落成式及記念講演」『佛教時報』第三十九號, 昭和十三年十月一日(1938. 10. 01.)
- 「人事消息」『佛教時報』第四十五號, 昭和十四年四月一日(1939. 4. 1.)
- 「濟州佛教聯盟結成」『佛教時報』第四十七號, 昭和十四年六月一日(1939. 6. 1.)
- 「張貞烈女史의 特志」『佛教時報』第五十號, 昭和十四年九月一日(1939. 9. 1.)
- 「濟州佛教聯盟第1回巡講記」『佛教時報』第五十一號, 昭和十四年十月一日(1939. 10. 1.)
- 「祝佛教時報創刊第5週年」『佛教時報』第五十七號, 昭和十五年四月一日(1940. 4. 1.)
- 「各種社會團體參加코“民戰”盛大裏結成」『제주신보』, 1947. 2. 26.
- 「總額廿六萬七千圓突破本社寄託弔慰金磨勘」『제주신보』, 1947. 6. 18.
- 『法界』, 佛紀二千九百七十二年十二月(1945. 12.)
- 『教籍簿』, 觀音寺教務所, 1947.
- 『教徒責任者名簿』, 大韓佛教濟州教徒會. 1951.
- 『沿革綴』, 佛教濟州教務院, 1951.
- 『總務局』, 佛教濟州教區教務院, 1952.
- 『寺刹登錄綴』, 濟州教務院, 1953.
- 김석익, 『耽羅紀年』, 이문당, 1918.
- 이은상, 『耽羅紀行』, 조선일보사, 1937.
- 김석익, 『亡兄石惺道人行錄』, 1949.
- 박한영, 『映湖大宗師語錄』, 동국출판사, 1988.
- 이희명 著 권태연 譯, 『晦明文集』, 여래, 1991.
- 연관, 『鶴鳴集』, 성보문화재연구소, 2006.

2) 금석문

- 『華嚴宗主蓮潭堂大禪師碑銘』, 1927.
- 『鶴鳴碑陰記』, 1935.
- 『內藏山鶴鳴禪師舍利塔銘並序』, 1935.
- 『羊岳啓璇禪師碑銘』, 1935.
- 『應雲雨能禪師殉公之塔』, 1940.
- 『比丘古山堂李世震頌德碑』, 1978.

2. 연구논저

1) 단행본

- 강석주·박경훈, 『佛敎近世百年』, 중앙신서, 1980.
- 유전성산著 안영길·추만호譯, 『禪의 思想과 歷史』, 민족사, 1989.
- 키무라 키요타카 著, 장휘옥 譯, 『중국불교사상사』, 민족사, 1989.
- 나라야스아키著 정호영譯, 『인도불교』, 민족사, 1990.
- 불교신문사, 『한국불교인물사상사』, 민족사, 1990.
- 제주도경찰국, 『濟州警察史』, 제주도경찰국, 1990.
- 정성분, 『中國禪宗의 成立史研究』, 민족사, 1991.
- 정의행, 『한국불교통사』, 한마당, 1991.
- 이정, 『韓國佛敎人名辭典』, 불교시대사, 1993.
- K.S 케네쓰 첸 著, 박해당 譯, 『중국불교』하, 민족사, 1994.
- 불교신문사, 『韓國佛敎史의 再照明』, 불교시대사, 1994.
- 불교전기문화연구소, 『현대고승인물평전』상·하, 불교영상, 1994.
- 삼보학회, 『韓國近世佛敎百年史』, 민족사, 1994.
- 정광호, 『近代韓日佛敎關係史研究』, 인하대학교출판부, 1994.
- 정성분, 『선의 역사와 사상』, 불교시대사, 1994.
- 제주도교육연구원, 『제주의 서당교육』, 1994.
- 제민일보4·3취재반, 『4·3은 말한다』1~5편, 전예원, 1994~1998.
- 제주도, 『제주록:조선총독부관보中』, 제주도, 1995.
- 차하순 외, 『韓國史 時代區分論』, 소화, 1995.
-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제9집, 독립기념관, 1995.
- 한국불교근현대사연구회, 『新聞으로 본 韓國佛敎近現代史』
(한국불교근현대사자료집 I) 상·하, 선우도량, 1995.
- 김광식, 『韓國近代佛敎史研究』, 민족사, 1996.
- 김승태,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사 자료집:기독교편, 1910~1945』,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 고창석 외, 『19세기 濟州社會 研究』, 일지사, 1997.

- 불학연구소, 『講院總覽』,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1997.
- 윤이흠, 『일제의 한국민족종교 말살책』, 고려한림원, 1997.
- 김광식, 『韓國近代佛敎의 現實認識』, 민족사, 1998.
- 야마베 겐타로 著 이현희 譯, 『日帝強占下의 韓國近代史』, 삼광출판사, 1998.
- 정광호, 『韓國佛敎最近百年史編年』, 인하대학교출판부, 1999.
- 한국불교근현대사연구회, 『新聞으로 본 韓國佛敎近現代史』
 (한국불교근현대사자료집Ⅱ) 상·하, 선우도량, 1999.
- 김광식,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민족사, 2000.
- _____, 『우리가 살아온 한국불교 백년』, 민족사, 2000.
- 이도영, 『죽음의 예비검속』, 월간 말, 2000.
- 교육원 불학연구소, 『禪院總覽』, 대한불교조계종, 2000.
- _____, 『한국근현대 불교사 연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2000.
- _____, 『曹溪宗史:근현대편』,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2001.
- 김경집, 『韓國佛敎 改革論 研究』, 진각종 해인행, 2001.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일제시대 불교정책과 현황』상·하 (조선총독부관보
 불교관련자료집),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2001.
- 제주불교사연구회 편, 『근대제주불교사자료집』, 제주불교사연구회, 2002.
- _____, 『근대제주불교를 읽는다:근대제주불교사 자료집출간기념
 세미나』, 2002.
- 한국불교근현대사연구회, 『22인의 증인을 통해 본 근현대불교사』, 선우도량, 2002.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자료집Ⅱ』 1~11,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1~2003.
- _____,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 김순석,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대응』, 경인문화사, 2003.
- 제주도·제주4·3연구소, 『제주4·3유적 I』, 각, 2003.
- 최기영, 『한국근대계몽사상연구』, 일조각, 2003.
- 조계종 총무원,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Ⅱ』제주도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2004.
-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총서:제주의 사찰과 불교문화』21편, 사찰문화연구원, 2006.

2) 논문 및 기타

- 이재창, 「日帝下 佛教 革新運動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대학원, 1980.
- 이상철, 「韓龍雲의 社會思想에 관한 一考察」,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1983.
- 권인혁, 「19세기 前半 濟州地方의 社會經濟構造와 그 變動」, 『邊太燮博士華甲紀念 史學論叢』, 삼영사, 1985.
- 김기웅, 「日帝下 農民教育에 관한 一研究:‘朝鮮農民’誌를 中心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속대학원, 1985.
- 한도현, 「1930년대 농촌진흥운동의 성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5.
- 이만열, 「1920年代 韓國基督教人들의 民族運動에 관한 一考察:社會經濟運動을 中心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86.
- 양한권, 「제주도 4·3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1988.
- 고창석·양진건, 「濟州道 流配에서의 勉菴 崔益鉉의 教學活動研究」 『탐라문화』 제9호,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89.
- 권기현, 「용성의 대각교운동과 만해의 불교유신운동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대학원, 1991.
- 법혜 외, 「제4회 수련결사 발제문」 『선우도량』3호, 대한불교조계종 선우도량, 1992.
- 김동만, 「4·3의 격전지 관음사」 『월간제주』, 1992.
- 노영택, 「일제하 농민계몽교육운동 연구」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연구논문집』 제51집, 1995.
- 박찬식, 「일제하 제주지역의 청년운동」 『제주도사연구』 4, 제주도사연구회, 1995.
- 김동진, 「濟州人の 3·1運動과 그 영향」 『탐라문화』제16호,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96.
- 진영일, 「조선시대 제주와 오키나와 交流史」 『인문학연구 제3집』,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7.
- 권인혁·김동진,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수취체제와 주민의 경제생활」 『탐라문화』제19호,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98.
- 송선개, 「石顛 朴漢永의 佛教 教育改革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 김동전, 「濟州 法華寺의 創建과 그 變遷」 『탐라문화』제20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9.
- 김광식, 「백용성스님의 선농불교」 『대각사상』제2호, 대각사상연구원, 1999.
- 박경준, 「인도불교계율에 있어서의 노동문제」 『대각사상』제2호, 대각사상연구원, 1999.
- 김경집, 「일제하의 불교혁신운동 연구」 『대각사상』제3호, 대각사상연구원, 2000.
- 한상길, 『朝鮮後期 寺刹契 研究』,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0.
- 김호일, 「일제하 농촌계몽운동과 최용신」 『인문학연구』제32집, 중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1.
- 김경집, 「한국 근대불교 속의 실천불교」 『실천불교의 이념과 역사』, 행원, 2002.
- 강성현, 「제주 4·3 학살사건의 사회학적 연구:대량학살 시기(1948년 10월 중순~1949년 5월 중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2.
- 허대학, 「근대 계몽철학과 조선불교 유신론」 『불교평론』제16호, 불교시대사, 2003.
- 김종진, 「근대 불교혁신 운동과 불교가사의 관련 양상:鶴鳴의 가사를 중심으로」 『동양학』제36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4.
- 최법혜, 「선종 청구에 대한 총설」 『승가교육』5호,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2004.
- 함옥금, 「‘제주 4·3’의 초도화작전과 대량학살에 관한 연구:미국의 역할과 책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 김광식, 「백학명의 불교개혁과 선농불교」 『불교평론』제25호, 현대불교신문사, 2005.
- 한금실,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06.
- 고암, 「다시 보는 학명선사의 선농불교」 『선문화』67호, 선문화사, 2006.
- 오성, 「불교」 『제주도지』제6권, 제주도, 2006.
- 양조훈, 「4·3사건」, 『제주도지』제2권, 제주도, 2006.

3. 구술자료 (채록자 : 한금실)

- 장연중, 83세, 한림읍 옹포리 옹포포교당, 1997. 12, 구술채록.
- 김평수, 84세,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998. 1, 구술채록.

고선봉, 2000년 80세로 입적, 제주시 도남동 보덕사, 1998. 3, 구술채록.
원혜관, 2000년 84세로 입적, 서귀포시 보목동 혜관정사, 1998. 6, 구술채록.
고계생, 80세 제주시 아라동, 1998. 8, 구술채록.
양경월, 80세, 제주시 외도동, 1998. 10, 구술채록.
고도인, 72세, 제주시 연동, 1999. 7, 구술채록.
혜일, 55세, 서귀포시 정방사, 1999. 7, 구술채록.
일조, 66세, 애월읍 수산리 대원정사, 1999. 8, 구술채록.
김택춘, 84세, 서귀포시 하원동, 1999. 9, 구술채록.
혜중, 78세, 제주시 노형동 충훈각, 1999. 10, 구술채록.
강대효, 86세, 제주시 일도동, 1999. 10, 구술채록.
수암, 68세, 구좌읍 하도리 금봉사, 2000. 6, 구술채록.
고광일, 78세, 성산읍 신산리 혜림사, 2000. 9, 구술채록.
이성월, 2006년 86세로 입적, 대정읍 하모리 대각사, 2000. 12, 구술채록.
이재준, 83세, 제주시 일도동, 2001. 1, 구술채록.
수열, 61세, 남원읍 남원리 선광사, 2003. 6, 구술채록.
일현, 68세, 제주시 삼양동 불탑사, 2003. 6, 구술채록.
김광순, 70세, 구좌읍 하도리 명법사, 2003. 7, 구술채록.
신금자, 67세, 제주시 연동, 2003. 8, 구술채록.
양지규, 71세, 조천읍 함덕리, 2003. 10, 구술채록.
김동일, 72세, 東京都 高二三덕에서, 2005. 7, 구술채록.
홍순녀, 75세, 제주시 도평동 흥룡사, 2003. 10, 구술채록.
김춘선, 74세, 구좌읍 함덕리, 2003. 7, 구술채록.

[부록] 이세진의 생애사 연표(1910~1949년)

시 기	나이	이세진의 행적	제주불교관련	비 고
1910년 8월 25일	1	제주도 한경면 저지리에서 출생	1908년 觀音寺, 1911년 法井寺 창건	1908년 박한영 佛敎 改革運動 주창
1914년	5	母親김운하의 親家가 있는 제주시 산천단에서 생활	1909년 김석운 제주의병 항쟁 참여	1910년 臨濟宗運動 1911년 寺刹令 공포
1915년	6	내장사 백학명에게 맡겨짐		
1916년경	7	백학명과 함께 몇 차례 관 음사를 방문해 머물다 감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	1921년 禪學院 창설 1922년 禪友共濟會 결 성
1920년	11	보통교육을 제주에서 받기 위해 제주시 산천단에 있는 외가로 돌아옴		1923년 백학명 내장 사에서 禪農佛敎運動 주창
1924년 3월 13일	15	濟州公立普通學校 졸업	1924년 관음사 灌佛會, 제주불교협회 창설	
1926년 12월 5일	17	제주도 저지리 漢文私塾에 서 四書を 수학	1926년 8월 震河 제주도 포교당에서 입적	
1927년 11월 25일	18	내장사에서 출가 백양사에서 도첩 受	1927년 원문상 소년명진 회 창설하여 야학운동 펼침	1926년 10월 개운사 대원암에 大圓講院 설립
1927년 12월 27일	18	내장사에서 사미계를 受		
1929년 7월 15일	20	내장사에서 安居를 성취함		
1930년 4월 8일	21	백양사에서 비구계 柳錦海 계사로부터 受		1927년 백용성 경남 과 중국에서 선농불 교운동 주창
1930년 7월 16일	21	내장사에서 四集科 졸업		
1934년 4월 15일	25	대원강원에서 大敎科 및 隨意科를 졸업	1931년 제주불교 임시대 회 개최	1928년 조선불교학인 대회
1934년 7월 15일	25	내장사에서 수선안거를 성취함	1934년 신흥연 함덕리 외 곶절에서 농촌계몽운동 펼침	1929년 3월 27일 백 학명 입적 1929년 조선불교선교 양종승려대회 개최
1934년 6월 10일	25	내장사에서 첫 교육활동 시작, 총무 겸직	1935년 제주불교협회 중 학강습소	
1934년 8월 25일	25	백양사에서 大禪法階 稟受	1936년 5월 관음사 초대 주지 안도월 입적	

1936년 8월 25일	27	백양사에서 中德法階를 昇受	1936년 8월 대홍사에서 제주 순회포교	1938년 총본산 건축 완공
1937년 3월 15일	28	표훈사 衆香講院 講主 활동	1936년 10월 문학연을 비 롯 법화산림 대작불사 제 주도 주요포교소 순회강 연	
1938년 1월 15일	29	금강산 표훈사 法務에 취임	1936년 10월 백양사 한림 포교소 이학암 창건	
1939년	30	제주에서의 활동 시작	1938년 5월 안봉려관 입 적	
1939년 2월 3일	30	백양사 제주도 한림포교당 포교사부임	1938년 9월 월정사에 근 대최초의 제주선원 설립	
1939년 4월	30	濟州佛教聯盟 교육부장 역 임, 관음사 읍내포교당인 大覺寺 제주강원에서 승가 교육활동 시작	1938년 7월~8월 中央佛 專 巡講隊 순회강연	
1939년 7월	30	제주불교연맹 제1회 순회 강연 강사로 참여	1939년 4월 제주불교연맹 창설	
1941년 4월 8일	32	대각사에서 比丘受戒式	1939년 7월 관음사 燒失, 대웅전, 승방, 객실 3채 전소	
1941년 4월 16일	32	유점사에서 大德法階를 昇受		
1942년	33	도평리 西觀音寺 창건, 청년승려들과 마을주민들이 합심하여 강원과 기와공장 운영, 이세진 제주불교혁신 운동 주창		
1948년	39	서관음사에서 마을장정들과 함께 입산 무장대활동	1943년 5월 제주도내 위 봉사포교당 40여 곳을 백 양사로 양도 협정 인하함	
1949년 1월경	40	이덕구를 비롯한 무장대 도당사령부 대원들과 함께 관음사에 잠시 기거	1945년 12월 조선불교혁 신제주승려대회 개최	
1949년	40	군경의 포로로 잡힘	1947년 2월 이일선 민전 공동의장 역임	
1949년 7월	40	관음사포교당에서 군경에 게 붙잡혀간 후 입적	1947년 3·1사건 희생자 조위금 모집에 제주교무 원 성금전달	

※ 이 표는 이세진의 이력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1947년 작성된 『교적부(教籍簿)』와 근대시기에 발간된 매일신보·불교시보 등의 신문과 불교·홍법우 등의 잡지, 그밖에 여러 문헌기록 및 구술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다.